

※과제번호

RR2012-12-393

[연구결과보고서]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1]

2012. 7

· 연구책임자: 정희모(연세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과제명	국 문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1]			
	영 문	Research on Development of Converged Writing Program for 21st Century[1]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 : 2 명 연구보조원 : 1 명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부교수	정희모	010-5226-9809
	공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조교수	박정하 김미란	010-5225-254 1 010-6344-104 3
연구비	3,000 천원		연구기간	2011년 7월~2012년 6월	

한 국 교 양 기 초 교 육 원

○ 연구요약문

연구책임자	정희모	소 속	연세대학교
연구과제명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1]		
<p><연구 내용과 결과></p> <p>본 연구팀은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이중 1차년도(2011. 7. 1.~ 2012. 6. 30.)의 연구 주제는 <지식 중점 모형(읽기-쓰기 모형)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첫째, 읽기-쓰기'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 정립(3장), 둘째, 한 학기 교과과정(CURRICULUM) 개발(6장), 셋째, 텍스트 이해능력, 분석능력, 비판능력 배양(4장), 넷째, 읽기-쓰기 교육에 적합한 과제 제공 (MIT자료, 영문 자료, 국내 대학교재 자료) (7장), 다섯째, 읽기-쓰기 교육에 적합한 읽기 자료 제공(국내 대학 글쓰기 강좌 읽기 자료) (8장) 등 다섯 가지 항목을 1차년도에 수행할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다섯 항목에 따라 개발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p> <p>먼저, <3장.이론적 배경>은 기-쓰기'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을 다룬 장으로, 모형개발의 전제가 되는 읽기-쓰기 이론의 동향, 읽기-쓰기 모형의 의미와 가치 등을 이론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읽기-쓰기 모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장. 국내외 대학의 '읽기-쓰기'교육 현황>은 국내 글쓰기 교육에서 읽기-쓰기 교육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다. <5장,'읽기-쓰기'강좌의 구성 요소>에서는 '읽기-쓰기'강좌 모형에 들어가는 여러 요소들을 설명했다. 이 장에서 설명한 여러 요소들을 응용하면 다양한 방법의 '읽기-쓰기' 모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읽기를 위한 다섯 가지 텍스트 접근법'과'렌즈 에세이','워크숍형 강좌 모형'이다. 이 방법들은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쓰기 교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p> <p>이 프로젝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읽기-쓰기'강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차년도에는 <지식 중점 모형(읽기-쓰기 모형)>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팀에서는 1) 읽기 모형, 2) 읽기-쓰기 중점 모형, 3) 프로젝트형 워크숍이라는 세 가지 모형을 개발했다. 5장에서 강좌 모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강좌의 성격을 설명하고, 수업 운용 계획, 교재 및 과제의 특성, 실제 수업처럼 구성된 수업 계획서를 제공하였다.</p> <p>첫 번째 프로그램은 '1) 읽기 모형'에 해당한다. 이 강좌의 특징은 읽기에서 비판적 문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텍스트 해석의 다섯 가지 텍스트 접근법(존 피터)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였다는 데 있다. 다섯 가지 접근법은 정서적 관점, 윤리적 관점, 수사학적 관점, 논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다.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관점에 따라 텍스트 읽기를 수행하게</p>			

함으로써 능동적인 읽기 방법을 체득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다섯 가지 관점을 익히고, 이중 2, 3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분석적인 텍스트 읽기를 수행함으로써 통합적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읽기-쓰기 중점 모형'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쓰기 과정에서 읽기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관점을 세우고, 내용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학생들은 쓰기 주제에 관해 자기 관점을 세우기 위해 렌즈에세이 방법을 사용한다. 미국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렌즈에세이 방법은 학생들이 읽기 자료를 통해 렌즈를 설정하고 이를 다른 텍스트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는 자료탐색에세이도 포함되는데, 자료탐색에세이는 학생들이 논문 1편으로부터 자료를 확대하여 찬, 반 자료들을 찾고 자기 관점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으로 하여금 대학교 교육의 전형적인 방법, 즉 다양한 읽기를 통해 자기 지식을 만들고, 자기 지식을 재생산하도록 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프로젝트형 워크숍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학생들이 전문적인 주제에 심층적으로, 또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모형은 다양한 방식의 워크숍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과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적 텍스트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돕는 모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형식 면에서 전체 워크숍과 모듈별 워크숍을 구분하고 소개하고, 성격 면에서 읽기 중심 워크숍, 쓰기 중심 워크숍, 쟁점 토론 워크숍을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팀이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교양기초 교육의 핵심적 기능인 **의사소통능력 교육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인식적,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 연구는 융복합적인 사유 능력과 수사학적인 표현 전략을 결합시키고자 노력했다. 또 이

를 교육적 방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에 따라 '읽기', '읽기-쓰기', '워크숍' 유형을 분리하여 설명했으며, 또 **사용 요소들을 모듈화하여 교수자들이 새 모형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3)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글쓰기 교육모형을 개발하지 못한 지역 대학에 글쓰기 교육 모형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과 방법적 원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교육 모형의 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는 의사소통교육을 선도하는 대학과 후발 대학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모듈화된 글쓰기 요소, 다양한 과제와 읽기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글쓰기 교육 모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교육 적 자원을 다른 기초교양교육에 투자하도록 도움이 된다.

6) 본 연구는 글쓰기 교수자들로 하여금 **글쓰기 교육 모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쓰기 교육 모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를 확산**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I. 연구 개요	1
I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
III. 이론적 배경	7
IV. 국내외 대학의 <읽기-쓰기> 교육 현황	12
V. <읽기-쓰기> 강좌의 구성 요소	29
1. 과정 중심 요소 : 계획, 자료, 개요, 집필, 수정	29
2. 읽기 과정 중심 요소	40
3. 워크숍 중심 요소	52
VI. 강의 프로그램 구성	74
1. 읽기 중심 모형	74
2. 읽기-쓰기 중점 모형	97
3. 프로젝트형 워크숍	109
VII. 기대 효과 및 제안	127
부록1 수행한 연구 내용과 결과 보고	129
부록2 읽기-쓰기 모형의 과제 예시	136
부록3 국내 대학의 읽기 자료 소개	149

I. 연구 개요

1. 융복합형 의사소통교육을 위한 모형 개발의 필요성

- 의사소통능력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임.
- 의사소통교육은 주요 교양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교양교육센터가 담당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임.
-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학문적, 학제적 능력, 총체적인 종합적 판단 능력이 요구됨. 이에 따라 글쓰기 교육에서도 논증과 표현, 지식을 융합한 복합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논증과 표현, 지식을 종합한 융복합형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논증, 표현, 읽기의 측면을 강조한 중점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할 예정임. 이를 통해 여러 대학에게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함.

2. 일차년도 개발 모형 및 내용

- 지식 중점 모형 : 대학 글쓰기 '읽기-쓰기'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쓰기'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 정립· 한 학기 교과과정(CURRICULUM) 개발· 텍스트 이해능력, 분석능력, 비판능력 배양· 읽기-쓰기 교육에 적합한 과제 분석 (MIT자료, 영문 자료, 국내대학교재 자료)· 읽기-쓰기 교육에 적합한 읽기 자료 제공 (국내 대학 글쓰기 강좌 읽기 자료)
--

3.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

가. 읽기 모형

- 1) 비판적 문식력을 기를 수 있는 다섯 가지 텍스트 접근법을 제안한 존 피터의 읽기 모형을 집중적으로 활용함. 이 모형은 정서적 관점, 윤리적 관점, 수사학적 관점, 논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라는 다섯 가지 관점에 따라 텍스트 읽기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동적인 읽기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함.
- 2) 학생들은 다섯 가지 관점을 읽히고, 이중 2, 3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분석적인 텍스트 읽기를 수행함으로써 통합적 읽기 능력을 향상시킴.

나. 읽기-쓰기 중점 모형

- 1) 학생들은 제시한 책을 읽고, 주제에 대해 자기 관점을 세워 글을 작성하도록 함. 렌즈 에세이 쓰기, 자료탐색 글쓰기 등을 통해 자료 해석 방법, 자료 접근 방법 등을 배우고 이를 쓰기 능력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임.
- 2) 학술적 글쓰기에 필요한 자기 관점을 수립한 후 공동 논문 쓰기를 통하여 학술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다. 프로젝트형 워크숍

- 1) 지식 중점 모형에서 워크숍형은 보다 전문적인 주제에 심층적이며 다각적으로 접근하거나 전문성 있는 책에 접근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임.
- 2) 다양한 방식의 워크숍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과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전체 워크숍과 모듈별 워크숍이 모두 활용되며, 세부적으로는 읽기 중심 워크숍, 쓰기 중심 워크숍, 쟁점 토론 워크숍이 채택됨.
- 3) 쓰기 워크숍의 기본 전략은 학생 글의 단점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글쓰기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 4)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한 권의 책을 꼼꼼히 읽어나가면서 관련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힘.

4. 모형 적용 방법

가. 읽기-쓰기 모형

- 1) 읽기-쓰기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다섯 가지 관점으로 분석적 읽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문법을 활용한다는 것임. 기존의 질문법과 달리 각 관점에 부합되면서 텍스트적, 수사학적, 담론적 수준을 고려해 만들어진 질문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질문 활동 수업이 가능함.
- 2) 읽기-쓰기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하기가 중심이지만, 학생들이 이 능력을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요약물 통한 설명적 글쓰기(효과적인 요약 방법 익히기), 다섯 가지 접근법을 활용한 분석적 글쓰기(다섯 가지 접근법 익히기), 다섯 가지 접근법을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쓰기에 다섯 가지 접근법 활용하기)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함.

나. 읽기 중심 초점

- 1) 학생들이 지적인 필자와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읽기 과제와 쓰기 과제를 제공함. 학생들은 이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읽기와 쓰기의 능력을 배양하게 됨. 학생들은 4가지 주요 과제를 완수해야 하며, 모든 과제는 초고와 수정고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2) 수정은 워크숍 형식(조별워크숍, 전체워크숍 모두 활용)으로 진행하여, 워크숍 활동은 분석과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3) 담당 교수의 강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학생의 발표와 토론을 늘려 자기 주도적으로 내용을 생성하고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이 강좌는 전체 4 단계의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됨. 쓰기 과제는 '텍스트 읽기 → 렌즈 에세이 쓰기 → 자료탐색 글쓰기 → 공동 논문 쓰기' 순으로 부과됨.

다. 프로젝트형 워크숍

- 1) 이 모형은 워크숍형 프로그램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요소들을 수업 활동으로 끌어들이어 다음과 같은 능력을 배양함.

- | |
|---|
| 가) 읽기 능력 배양 : 분석적 이해 능력, 요약 능력, 비판적 평가 능력 배양 |
| 나) 쓰기 능력 배양
: 계획·구성·검토·교정 능력, 특히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능력 배양 |
| 다) 주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정의'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입장의 장단점 분석 및 평가 |
| 라) 협력 학습 능력 향상 : 다양한 형식의 워크숍을 통해 협력 학습 능력 배양 |
| 마) 토론 능력 배양 :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을 통해 토론 능력 배양 |

- 2) 이를 위해 워크숍 설계된 수업 계획은 위의 다섯 가지 능력을 다각도로 배양할 수 있도록 6 가지 개인 과제를 제시함(요약하기, 정당화하기, 비판하기, 자기 견해 제시하기, 평가 및 대안 제시하기, 의미 분석하기).
- 3) 공동 과제는 총 4개이며, 워크숍을 통해 '모둠 별 대표글'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함.

5. 기대 효과

- 가. 교양기초 교육의 핵심적 기능인 의사소통능력 교육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인식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함.

나. 이 연구를 통해 **융복합적인 사유 능력과 수사학적인 표현 전략이 결합될 수 있는 인지적, 교육적 연구 기초를 다질 수 있음.**

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글쓰기 교육 모형을 개발하지 못한 지역 대학들에 모형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전 대학에 걸쳐 글쓰기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라. 지식 중점 모형 안에서도 <읽기-쓰기>, <읽기 중심>, <워크숍형>으로 유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였고 교육할 내용도 모듈(modul)화시켜 부분적으로도 기존의 강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기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 수요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할 수 있게 되어 현장 확산 효과를 제고함.

마. 의사소통교육을 선도하는 대학과 후발 대학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고 글쓰기 교육 모형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투자비용을 최소화하여 교육적 자원을 다른 기초교양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바. 글쓰기 교수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증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여 글쓰기 교육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를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임.

II.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의사소통능력은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능력임.
-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맞추어 의사소통능력 중 가장 중요한 능력인 글쓰기 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과제임.
- 다원화 사회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적인 사유 능력과 학제적 능력이 요구되며, 글쓰기 교육에서도 이와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연구는 학부대학, 교양학부, 기초교육원, 의사소통센터 등을 설치해 의사소통교육 및 글쓰기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몇몇 대학들에게 새로운 글쓰기 교육 및 다양한 글쓰기 모형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님.
-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글쓰기 교육

모형을 개발하지 못한 지역 대학들에 모형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전 대학에 걸쳐 글쓰기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의사소통교육을 선도하는 대학과 후발 대학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고 글쓰기 교육 모형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투자비용을 최소화하여 교육적 자원을 다른 기초교양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를 통해 융복합적인 사유 능력과 수사학적인 표현 전략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인지적, 교육적 토대를 형성하고자 함.

*** 지식 중점 모형 (읽기-쓰기 모형)**

-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식 중점 모형(읽기-쓰기 모형)은 자료 텍스트를 이용하여 지식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기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식 중점 모형이 배양하고자 하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개발 항목	주요내용
자료 텍스트 접근력	정보 검색 및 접근 능력 향상, 정보 정리 능력
텍스트 해석 능력	텍스트 이해, 분석, 해석 능력, 과제와 지식 융합
텍스트 구성 능력	텍스트 논점 세우기, 추론 및 근거, 텍스트 구성
과제해결 및 표현능력	수사학적 전략, 지식과 배경에 근거한 텍스트 작성

- 지식 중점 모형은 현재 한국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현장에 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됨.
- 현재 한국 대학의 글쓰기 강좌의 교수 모델은 크게 보면 <글쓰기 중심 모형>과 <사고력 지향 모형>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뚜렷한 교수 모델을 채택한 대학은 아직 소수에 불과함.
- 나머지 다수 대학은 아직 교수 모델이 분명하지 않아서, 앞의 두 모델을 절충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읽고 이에 대해 글을 쓰는 읽기-쓰기 모형의 초보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특히 고교 성적을 기준으로 위계화 되어 있는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는 대학에서는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적인 읽기 및 쓰기 능력 배양이 절실히 요구되어 실질적인 읽기-쓰기 모형을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수요에 부응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식 중점 모형을 <읽기-쓰기 프로그램>과 <읽기 중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실을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지식 중점 모형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해 <워크샵 중심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 지식 중점 모형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채택 가능한 하나의 범용성 높은 모델이기는 하나 글쓰기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에 정리한 다른 모델들에 대한 개발을 후속 작업으로 염두에 두고 읽기-쓰기 모델에 대한 수요에 집중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는 것 또한 이 연구의 목적임.

*** 융복합 프로그램 전체 계획**

- 본 연구팀이 1차년도에 개발한 지식 중점 모형의 세 프로그램은 교육현장에서 범용성을 가지지만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모델 및 융복합 글쓰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모형들이 추가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1. 표현적 글쓰기 모형

▪ 개발 목적:

- 표현적 글쓰기에서는 글쓰기를 자기감정과 자기정신의 발현체로 생각함.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해 정서와 생각, 감성과 지식을 융합하고, 텍스트의 다양한 표현성을 학습하게 됨. 학습 대상은 학술적인 칼럼, 자기 반성적 글쓰기, 치료적 글쓰기, 등 자유로운 표현 양식의 텍스트임.

▪ 개발 내용:

개발 항목	주요내용
표현력 배양	기본 문장 능력, 수사적 문체 학습, 표현 전략 학습
쓰기 목적 및 수사학	글의 목적 확립, 독자 분석, 표현적인 수사적 전략
독자 반응 및 자기 반성적 쓰기	독자 반응 분석, 독자입장의 글쓰기, 필자입장의 글쓰기 자기 회고적 글쓰기
정서표현의 글쓰기	비평문, 감상문 쓰기, 일기 쓰기, 자기 반성적 글쓰기

2. 논증적 글쓰기 모형

▪ 개발 목적:

- 논증적 글쓰기는 학술적 글쓰기의 기초능력에 해당하는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텍스트 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구성능력을 기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임.

▪ 개발 내용:

개발 항목	주요내용
사고력 배양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융합적 사고
문제 추론 능력 배양	과제 이해, 쟁점 분석, 과정 추론, 문제 해결
과제 해결 능력 배양	과제 논점 세우기, 내용 추론 및 전개, 주장과 근거, 반론 분석
융합적 사고력 배양	분석적 이해, 비판적 평가, 창의적 적용의 단계화

3. 융복합형 글쓰기 모형

▪ 개발 목적:

- 현재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는 **표현과 논증을 융합한 모형이 부재함**. 글쓰기 교육에는 이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두 요소를 융합한 모형은 존재하지 않음. 다원화된 정보사회에서 수준 높은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표현과 논증을 융합한 글쓰기 모형의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개발 내용:

개발 항목	주요내용
표현 능력 및 수사학	수사적 문체 학습, 표현 전략 학습, 독자 반응 분석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논리 및 비판적 사고, 과제 추론, 문제해결 능력
텍스트 해석 및 추론	텍스트 이해, 분석, 해석 능력, 논점 분석 및 과정 추론
텍스트 구성 및 작성	통합적 텍스트 작성 능력(표현, 논증, 수사학)

I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팀은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중 1차년도(2011. 7. 1.~ 2012. 6. 30.)의 연구 주제는 <지식 중점 모형(읽기-쓰기 모형)의 개발>이다.

그런데 읽기와 쓰기는 목적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팀에서는 ‘읽기를 통한 쓰기’ 혹은 ‘쓰기를 위한 읽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읽기-쓰기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이 본 연구팀의 목표이며, 이 장에서는 그 전제가 되는 이론을 제시한다. 이는 한국의 연구 경향을 설명하되, 아직 국내의 읽기-쓰기 연구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모색 과정과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서술될 것이다.

1. 한국 대학의 읽기-쓰기 연구 현황

한국의 글쓰기 교육은 역사가 매우 짧다. 그래서 글쓰기 이론과 교육 방법론이 세밀하고 정교하게 개발되어 있는 미국에서 이론적, 방법론적 자원을 끌어들이며 한국의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상호 관계에서부터 양자의 통합 방식 및 교수 방법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 점에서 글쓰기 교육을 실시한 지 오래 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이론과 방법론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연구자들이 다양한 논쟁을 거쳐 축적해 놓은 이론과 교수학습 방법론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한국 연구자들 간에 읽기-쓰기 관계나 교육 방법 등을 둘러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쟁이 이루어진 예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읽기-쓰기를 통합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관점은 널리 퍼져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집단적인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이론과 방법론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교수자들이 읽기-쓰기 통합적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를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의 수업 경험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심화된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주체와, 이들의 연구 결과를 교육 현장에 바로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대학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연구 집단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이러한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 머지않아 체계적인 교수 학습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이 수립되고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은 개별 교수자들에게 거의 모든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읽기-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수자들의 수고와 고민을 덜면서 수업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기초교양교육강화사업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연구 지원을 받고 있는 본 프로그램 개발팀은 우리의 글쓰기 교육 현실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읽기-쓰기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고자 한다.

- ㄱ. 각 대학의 글쓰기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읽기-쓰기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의 대학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글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ㄴ. 읽기-쓰기 프로그램이 없는 후발 대학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교육을 선도하는 대학과 후발 대학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고 읽기-쓰기 교육 모형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데 드는 투자비용을 최소화하여 교육적 자원을 다른 기초교양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미국에서 축적되어 있는 연구 성과를 이론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수용

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 적합하게 응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미국에서 개발된 읽기-쓰기 교육 이론과 방법론 검토 및 수용

랑거와 플리한은 미국의 작문 연구자들이 읽기와 쓰기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사적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그들에 의하면, 미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쓰기와 읽기는 오랫동안 별개의 연구 영역으로 취급되었으며 1980년대에 와서 비로소 읽기-쓰기가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¹⁾ 이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학습의 인지 모형(cognitive model of learning)'이 등장하면서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읽기와 쓰기 과정이 모두 텍스트의 의미를 활발히 구성하는 과정이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²⁾

현재 미국의 작문계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사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경향을 띤다. 즉 특정한 맥락에서 읽기와 쓰기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읽기가 쓰기를 간섭하고(interfere) 쓰기가 읽기를 간섭하는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즉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쳐 진행된 연구는 읽기와 쓰기가 함께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상승효과에 주목하였지만, 그러한 연구는 텍스트 읽기-쓰기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놓여 있는 사회 구조와 그들에게 제공되는 문식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맥락에 맞게 읽기-쓰기 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랑거와 플리한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읽기-쓰기의 상호 관계에 대한 초기의 (인지적) 관심은 수그러들었고, 이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안에 놓여 있는 읽기와 쓰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이는 읽기와 쓰기 행위의 주체를 개인에 한정했던 그간의 이론적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기도 하다.

저명한 구성주의적 작문 교육 이론가인 N. N. 스피비가 쓴 『구성주의와 읽기쓰기』³⁾도 이러한 경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크게 보자면, 현재의 구성주의자들은 구성의 주체를 개인으로 보는 관점(인지구성주의)과 집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양분된다(사회구성주의). 행위의 주체를 집단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소집단에 초점을 두기도 하며, 다른 연구자들은 큰 사회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사회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인지구성주의자들은 독자가 텍스트의 단서를 이용해 조직하기, 재조직하기, 선택하기, 추론하기, 정교화하기 등을 하면서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별 행위자들의 의미 구성 과정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집단을 의미 구성의 주체로 보는 사회구성주의자들 중에서 소집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자들은 비고츠키의 비계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지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연구를 강화시켰다. 이들보다 거시적인 추상적 집단을 의미 구성의 주체로 보는 사회구성주의자들은 담화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개인에 갖고 있는 담화 지식이 집단에 속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참고로 여기서의 담화공동체는 담화를

1) J. A. Langer & S. Flihan, "Writing and reading relationship: Constructive tasks. In Indrisano", R. & Squire. J. R. (Ed.), *Perspectives on writing* Newark: IRA., 2000.

2) B. Musthafa, "Reading-to-write connection: Shifts in research foci and instructional practices", 1996.

3) N. N. Spivey, 신현재 외 옮김,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박이정, 1997.

위한 공동의 주제와 담화 실천을 위한 공동의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논의를 전개할 때 그에 적합한 내용과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은 집단 자체에 의해 규정된다고 가정하며 그 점에서 공동의 지식, 혹은 지식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물론 지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구성 과정은 역동적이며, 개인은 하나 이상의 담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고 공동체에 속한다 해도 텍스트 이해는 달라진다고 본다.

구성주의자들의 읽기-쓰기 이론은 미국 작문계의 연구와 이론 개발을 주도하였다. 이것이 어떠한 교수-학습법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서술의 편의상 읽기와 쓰기를 구분하여 정리해보겠다. 구성주의자들의 읽기 수업 방법들은 공동체에서 합의된 담화 지식의 습득과 텍스트의 구조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지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령 설명적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정의, 비교, 인과 분석 같은 설명적 담화 관습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된 텍스트에 대한 구조 전략을 갖추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추론 과정에 자신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서 내용 조직하기, 선택하기, 변형하기 등을 하여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는 학생-독자들이 능동적인 읽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이에 더하여 협력학습 등을 통해 의사소통의 방법과 가치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며, 나아가 텍스트가 생산, 분배, 수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한편, 구성주의자들은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도 구성의 과정으로 본다. 쓰기 과정은 사회적, 인지적 측면에서 구성의 중요한 양상을 포함하며, 그 과정에는 읽기와 공유하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쓰기 과정은 저자와 독자의 측면, 상호텍스트적 측면, 협동적 구성의 측면이라는 사회적 행위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사회적 측면은 인지적 측면과 융합된다. 즉 쓰기 전-쓰기-수정으로 이루어지는 텍스트 구성 과정은 인지적이면서, 그 과정에서 저자와 독자, 저자와 협력 집단 간의 상호작용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 예컨대 독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저자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독자를 고려하면서 내용을 생성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회적 측면에는 저자가 사회적 지식에 해당하는 담화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읽기와 쓰기 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의 역할과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의미를 생성하는 저자의 역할이 쓰기와 읽기의 과정에 혼합되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읽기의 영역과 쓰기의 영역이 명료하게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수-학습 역시 순차적,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자기 자신이 쓴 글을 읽는 것(자기 텍스트 읽기)은 쓰기의 구성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 점에서 구성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읽기를 통한 쓰기의 교수-학습 전략은 학생들이 읽기 과정과 쓰기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지 않다. 이들의 읽기-쓰기 전략은 학생들에게 읽기-쓰기 통합 과제를 제시하고, 자신의 텍스트를 구성하기(쓰기) 위해 다른 텍스트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읽기)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생들은 읽기 과정에서 텍스트를 조직, 선택,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형시키며, 이를 쓰기에 활용한다. 읽기는 쓰기 과정에서 조직 방식, 선택 기준, 추론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읽기 텍스트를 조직하고 선택하여 연결하는 과정에서 많이

선택되는 전략은 요약하기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내용을 줄이는 것(동형 구조 요약)이 아니라 추론을 통한 생성이 포함된다. 목적, 상황, 맥락, 독자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요약이 존재하며, 특히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요약에는 화제들의 관련성을 추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성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약에는 텍스트 비평도 뒤따르게 된다. 요컨대 독자가 자신의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쓴 텍스트를 참고하는 저자가 될 때, 이러한 혼합된 행위(읽기와 쓰기)에서 저자는 특정한 상황 맥락에 적합한 의미를 구성해야 하므로 보통의 읽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변형을 하게 된다. 때로는 이러한 변형이 텍스트에 의해 단서화된 것들과 유사한 포괄적인 패턴 내에서 재배열되고 재조합됨으로써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유형의 조직 패턴을 생성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독자가 저자가 될 때, 자신이 구성하는 새로운 텍스트와 관련지어 상호텍스트적인 관련성과 균형성에 기초하여 정보를 선택하거나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추론을 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론은 읽기-쓰기 통합적이다.

대표적인 인지주의적 작문학자로 평가 받았던 린다 플라워 또한 1990년대 전후하여 인지와 사회를 결합시키는 쪽으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한 바 있다.⁴⁾ 이때 그녀는 읽기 행위의 목적에 따라 읽기 과정이 달라진다는 전제 하에, 쓰기를 위한 읽기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는 읽기를 통한 쓰기를 의미 있는 인지적,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 아래 진행되었다. 교수-학습 방법론과 관련하여 이 연구가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읽기를 통한 쓰기 수업이 학생들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만 했을 뿐(혹은 자기 글에 적당하게 짜깁기만 했을 뿐),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면서 정보를 변형시키고 재구성하도록 인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 따르면 전통적인 대학의 글쓰기 형식을 연습시키는 것은 비평적 문식성을 기르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학생들이 여전히 짜깁기식 인용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평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곧 학생들이 능동적인 독자와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평적 문식성을 발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질문하고 평가하기: 자기 자신의 전제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질문을 제기하고 응답하기 & 텍스트를 쓰는 저자로서 자기 자신의 전제와 주장 내세우기 2. 변형시키기: 정보 이해하기 & 새로운 목적을 위해 변형시키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읽기를 통한 쓰기가 비평적 문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이자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목표 달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고 전략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표준적인 전략에는 분석하고 비평하기, 조정하기(monitoring), 정교화하기(생각을 다듬으며 읽기elaborating), 정보를 구조화하기(정보 통합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쓰기 계획하기, 수정하기 등이 있다. (좀 더 세부적인 읽기 쓰기 전략은 V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가령 정교화하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하기, 비판적 시각 발전시키기, 원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아이디어 발전시키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이디어 조직하기는 아이디어 선택하기, 연결하기, 체계화하기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의 상호연결성을 교수-학습법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구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며, V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인 렌즈 접근법, 독해를 위한 다섯 가지 접근법, 워크숍형 접근법은 그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고안된 교수-학습법이라 하겠다. 가령 스피비나

4) Linda Flower, "Introduction: Studying Cognition in Context," *Reading to Write: Exploring a Cognitive & Social Process*, Oxford Univ. Press, 1990.

플라워의 저서에서 사용된 방법론은 텍스트에 반응하고 논평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중시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텍스트에 접근해서 반응하고, 논평하며 평가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정교한 교수-학습법의 개발에 목표를 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5장에서는 그러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한국 대학에 적합한 읽기-쓰기 교수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렌즈 접근법, 독해를 위한 다섯 가지 접근법, 워크숍형 접근법을 모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업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IV. 국내외 대학의 <읽기-쓰기> 교육 현황

1. 한국 대학별 읽기-쓰기 강좌의 현황 조사

가. 대학 글쓰기 수업 현황표

대학명	과목명	학점 및 시수	구분	비고
고려대	사고와 표현 I	2학점 3시간	필수	계열별
	사고와 표현 II	2학점 3시간	필수	계열별
서울대	대학 국어	3학점 4시간	필수	계열별
	인문학 글쓰기	3학점 3시간	필수	계열별
	사회과학 글쓰기			계열별
	과학과 기술 글쓰기			계열별
서강대	읽기와 쓰기	2학점 2시간	필수	계열별
	인문 계열 글쓰기	2학점 2시간	필수	계열별
	경영·경제 글쓰기			계열별
	이공 계열 글쓰기			계열별
성균관대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2학점 3시간	필수 (택2)	계열별
	학술적 글쓰기	2학점 3시간		계열별
	스피치와 토론	2학점 3시간		계열별
	과학기술문서작성 및 발표	2학점 3시간		계열별
숙명여대	글쓰기와 읽기	2학점 2시간	필수	계열별 권유 /선택
	발표와 토론	2학점 2시간	필수	계열별 권유

				/선택
	언어와 논리	2학점 2시간	선택	PSAT 시험 대비
	자료 해석	2학점 2시간	선택	
연세대	글쓰기	3학점 4시간	필수	계열별/ 수준별
	실용 글쓰기	3학점 3시간	선택	선택
한성대	사고와 표현 I	2학점 2시간	필수	계열별
	사고와 표현 II	2학점 2시간	필수	계열별

나. 각 대학의 작문 교과목명

(허재영, 2009)

독서 영역과 연계	독서와 사고, 독서와 구술, 독서와 논술, 읽기와 쓰기, 책읽기와 글쓰기, 독서와 작문 등
작문 기초 관련	문장과 표현, 글쓰기 이론과 실제, 한자와 글쓰기, 논술, 문장의 이해와 실제, 우리말과 글쓰기, 한글맞춤법, 언어의 예절, 어문 규정과 바른 글쓰기, 실용작문법 등
학문 분야별	인문학 읽기, 인문학 쓰기, 학술적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자연과 학 글쓰기, 공학적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논문작성법, 과학기 술 문서작성 등
수준 고려	글쓰기 기초, 전공 글쓰기, 글쓰기 심화, 맞춤형 글쓰기 등
사고력 중심의 교과목명	사고력과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창조적 사고와 표현, 비판적 사고 와 토론 등
특수 분야의 맥락에 따른 교과목	청각장애 작문, 경찰작문, 미디어와 글쓰기, 법문장 쓰기 등

다. 각 대학의 글쓰기 교육 시스템

구분	특성	대학명
기초글쓰기	언어규범, 문장교육, 쓰기과정학습, 장르 글쓰기	고려대학교1 서강대학교1
복합적인 문식 능력 중심	쓰기, 읽기, 말하기(토론): 능숙한 전문인 양성, 실용주의적 입장	서울대학교 교양국어
사고력 교육 중심	논리적, 비판적 사고 강조	가톨릭 대학교 CAP

	사고 규칙 및 문제해결 능력 강조 나를 위한 글쓰기 체험적 글쓰기 글쓰기를 통한 자기 발견 치유의 글쓰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표현주의		
전공 영역별 교육	인문, 사회, 자연 영역별 글쓰기: 전공별 문식성, 전공 기초 능력 배양, 실용적 입장	고려대학교2 서강대학교2
학술적 글쓰기	텍스트 요약 분석 쟁점, 주장과 논거 논증, 학술자료 학술적 논평 학술에세이 학술논문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라. 교육과정 현황

연세대학교	글쓰기(심화+일반 +외국인 글쓰기)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기초글쓰기+ 계열글쓰기
성균관대학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택2) -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 학술적 글쓰기 - 스피치와 토론 - 과학기술문서작성 및 발표
숙명여자대학교	글쓰기와 읽기 발표와 토론 + 인문학독서토론 (1학년) (2학년)
서울대학교	대학국어 +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2~4학년)
하버드대학교	기초 글쓰기(EX10) 글쓰기(EX20) 심화 글쓰기 (EX52)
MIT	커뮤니케이션 글쓰기(CI-H) 커뮤니케이션 글쓰기(CI-H) +전공글쓰기(CI-M) (3~4학년)

마. 각 대학의 수업 구성

대학	수업 구성 방식
연세대학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기초학습 글쓰기 과정 학술적 글쓰기 요소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주제별 학습 학술 및 사회 쟁점 주제 (읽기, 해석, 토론, 쓰기) </div> </div>
성균관대학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요약 문제, 결론, 근거, 개념, 정보, 목적, 관점, 함축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논평 명료성, 수용가능성, 적절성, 논리성 독창성, 심층성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학술 에세이 </div> </div>
숙명여자대학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요약하고 읽고 쓰기 개괄적 이해단계 줄거리 주제, 목적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분석하며 읽고 쓰기 텍스트 구조 분석 단계 개념어 주장과 논거 논증, 서술전략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비평하며 읽고 쓰기 가치판단단계 외부 맥락 연결 텍스트 의미 생산 </div> </div>
MIT	텍스트 읽기 → proposal 쓰기 → 초고 → 워크숍 → 수정고 2번 반복

바. 대학 글쓰기 기초 교수 항목

글쓰기 과정	글의 목적, 독자, 주제, 자료탐색, 구성하기, 초고작성, 고쳐쓰기
문장과 단락	어법, 어휘, 바른 문장, 단문과 복문, 단락,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통일성과 연결성, 일관성
글의 진술 방식	묘사, 서사, 논증, 설명, 과정, 예시, 비교, 대조, 분류, 인과
학술적 글쓰기	발표 및 토론, 자료요약, 자료종합, 논점과 논거, 쟁점 및 반론 분석, 논문·보고서 쓰기, 인용과 주석 표절 방지
읽기와 쓰기	읽기 자료, 관련된 학습 문항, 연관된 쓰기 문항, 관련 자료 찾기, 발표와 토론, 관련된 협력학습 방법
장르별 글쓰기	자기소개서, 서평, 문화비평문, 학술에세이, 인터넷 글쓰기
주제 학습	대학문화, 현대사회와 지식인, 사이버 공간 문제 등등

사. 각 대학의 교육과정 분석

1) 서울대 대학국어(2012)

주	주제	강의 및 실습 내용	비고
1	강의소개	· 교과목 성격과 강의의 구성, 성적산출 방법, 강의내용 설명	
2	제1부 대학생활과 글쓰기	· 글쓰기의 중요성과 다양한 글쓰기 목표 · 대학에서의 윤리적 글쓰기, 인용법, 주석과 참고문헌 작성법 예) 인문사회계열 연구논문의 실제 · 글쓰기의 필요성 및 학문의 윤리에 대한 토론 · 자기소개서쓰기(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기)	
3	발표 지도 (1)	· 발표 또는 소논문 주제 선정 방법 및 발표 방식 강의와 점검 · 연구계획서 작성	
4	제2부 글쓰기의 과정과 방법	· 정확한 문장쓰기와 논리적인 단락구성 · 정의, 분류를 이용한 글쓰기 예) 창의적 글쓰기를 위한 정의의 방법 나만의 용어 정의 만들기	과제1 과제2
5		· 비교, 대조를 이용한 글쓰기 예) 새로운 시각에 바탕을 둔 글을 쓰기 위한 대상과 기준을 설정하고 글쓰기	
6		· 서사, 묘사를 이용한 글쓰기 예) 기사와 평전의 형식을 서로 바꾸어 써보기 · 글쓰기를 통한 효과적인 논증의 방법	
7	발표 지도 (2)	· 소논문 주제와 개요 검토 · 자료 조사 방법 및 자료의 정리와 활용	
8	글쓰기 상담 (1)	· 발표 또는 소논문 주제 초고 점검 · 과제 점검 및 첨삭	과제3
9	제3부 글쓰기의 실제	· <이해와 요약> 필요성 및 방법 예) 자료 정리 노트(카드) 작성 및 활용법 인용 및 주석을 위한 독서노트 작성법	과제4 과제5
10		· <보고와 제안> 형식과 활용 예) 학술토론회 또는 강연회 참관기 작성 · <주장과 설득> 예문 읽기와 실습 예) 인문사회계열 관련 주제의 주장과 설득의 전략과 구성요소 분석 및 이해 · <감상과 비평> 의 이론과 실제 예) 다양한 감상평 및 비평문의 이해와 분석 예술작품 감상평 쓰기	
11	한자어시험	·교재 하단의 한자어를 활용한 한자어휘 읽기능력 평가	
	글쓰기 상담 (2)	·발표 또는 소논문 과제 상담	
12	발표와 토론	·소논문 발표 및 토론과 첨삭 지도	

13			
14	글쓰기 상담 (3)	·발표과제, 소논문 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종합상담	
15	기말고사	학기말 종합시험 (6월 9일 토요일 오전 10~12시 장소 추후 별도 공지)	

2) 서울대 사회과학 글쓰기(2012)

교과목 번호	강좌번호	교과목명	학 점	개설학과	담당교수
010.066	001-04	사회과학글쓰기	3	기초교육원	
교재	<사회과학글쓰기의 이해와 연습>교재; 영상자료; 학생글 사례자료				
강의 일정					
강의 차수	강의 주제	강의 진행 및 학생 활동	과제		
1주	오리엔테이션: 나와 너를 알고 협력하기	-강의진행 및 과제 소개 -조 만들기과 조이름 짓기, 구호 만들고 소개하기 -조별로 자기소개 글에 대해 피드 백하기(대표글 선정과 발표)	-eTL에 SMS 등록 -eTL게시판에 자기를 소개는 글 남기기 (좌우명, 좋아하는 것, 싫어 하는 것, 특기, 취미, 10년 후 자기 모습) -교재, 「올바른 문장」 독학		
2주	사회과학 글쓰기의 이해와 요건	- 사회과학 글쓰기의 요건 - 논증적 글쓰기의 이해와 연습	-교재, 「논문이란?」 독학하기, 체 험 에세이 준비하기		
3주	사회문제와 성찰(사회과학적 사유 연습)	- 영상물 감상 - 조별 토론(조장 브리핑 후 주제 에 대해 토론)	-감상글을 이티엘 조별 게시판에 쓰고 상호 댓글 달기 -체험에세이(팀플레이)제출, 상호 논평하기(전체게시판)		
4주	1) 시사평론 쓰는 방법 익히기 2)체험에세이 발표와 토론	- 시사평론 쓰는 방법 강의와 좋은 사례 글 분석 - 체험에세이 발표와 토론PPT, UCC, 연극, 팸트 등의 자유 형식으 로 발표	-교재, 「논설문과 비평문」 독학하 기 - 시사평론 사례 읽기 - 시사평론 쓰기		
5주	1)사회과학 논문의 의미와 특성 2)시사평론 발표와 토론	-논문의 특성과 연구 주제 선정방 법 강의 -시사평론 발표와 토론	- 연구주제 모색 - 시사평론 제출, 조별 상호논평		

6주	1)시사평론 발표와 토론 2)연구주제 선정하기	- 시사평론 발표와 토론 -연구 주제 선정과 상호 토론하기 (조별 활동)	-연구 주제 정하기 -참고문헌 검색
7주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읽기	-신평독 독서 방법(강의) -신평독 독서에 의거한 사회과학 적 글쓰기 방법과 사례	- 논문 비평을 위한 텍스트 읽기
8주	자료 검색. 기존연구검토	자료 수집 및 기존 연구 검토	-기존 연구 정리 및 검토
9주	논문작성 1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 작성법(강의)	-조별 상호논평 -연구계획서 사례 읽기
10주	논문작성 2	- 논지와 논제 구분하기 - 논문 구조와 작성 원리	-교재, 「논문 사례」에서 논지와 논제 찾기
11주	논문작성 3 연구계획서 발표와 토론	- 사회과학 방법론(자원하는 학생의 발표와 토론) - 연구계획서 발표(자원자에 한해 발표, 1인 발표자에 2인 지정논평자)	-연구계획서 제출, 조별 상호 논평 -교재, 「사회과학 방법론」 부분 독학
12주	글쓰기 윤리와 올바른 표기 방법	표절을 피하는 인용법과 출전표기 방법	- 교재, 「글쓰기 윤리」 부분 독학 하기 - 교재, 「인용법과 출전표기 방법」 독학하기
13주 ~15 주	논문 초고 발표와 종합 토론	- 발표자는 자신의 논문 초고에 대한 학생들의 논평에 답한다. - 지정토론자는 준비한 논평을 발표한다. - 전체 토론을 한다.	논문 초고 제출, 이티엘 전체게시판에 모든 학생의 논문을 읽고 논평 쓰기

수강자 참고사항

- 수강자들은 기본 과제에 충실하고, 강의 중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수강자들은 이티엘에 조별 논평(감상글, 시사평론, 연구계획서)과 전체 논평(체험에세이, 논문 초고)을 적어도 토론 수업 이틀 전까지 반드시 작성한다.
- 제출한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수정 글(체험에세이, 시사평론, 최종논문)을 과제방에 제출한다.
- 모든 과제는 이티엘 과제방과 조별게시판(시사평론, 서평, 연구계획서)이나 전체게시판(체험에세이, 논문초고)에 두 번씩 올린다.
- 상호 논평은 최소한 3줄 이상 올바른 문장으로 작성한다.
- 최종 수정논문은 수정부분은 밑줄 글로 편집하고 수정 항목을 논문 맨 뒷장에 서술한다.

평가 방법: 조별 체험에세이(글 10점, 발표 5점), 시사평론(10), 연구계획서(10), 논문초고(20),

<p>최종논문(20), 발표·토론(가산점), 이티엘논평(10), 과제(감상글, 수정 글, 독학 과제 5), 출석(10)</p> <p>- 약속한 발표 혹은 토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엔 감점</p> <p>- 글쓰기 윤리 위반 시 F학점 처리</p>
<p>과제 글</p> <p>1) 시사평론(A4 1매 이내)</p> <p>2) 조별 체험에세이 (A4 5매 이내): 팀플레이</p> <p>- 조별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직접 체험하거나 조사한 후 이에 대한 공동의 성찰과 문제의식을 담아낸다. (리포형식, 다큐멘터리, 뉴스 기사, 에세이, 일기 형식, 보고서 형식, 홍보문건 등 자유 형식)</p> <p>- 발표는 PPT, UCC, 만화, 영상물, 연극, 콩트 등의 형식으로 한다.</p> <p>- 논문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과정</p> <p>- 조별로 체험에세이를 1편씩 공동으로 작성한다.</p> <p>3) 연구계획서(A4 5-6매): 문제제기, 이론적배경(선행연구 검토)과 접근방법(분석틀), 연구문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참고문헌 포함</p> <p>4) 논문 초고 작성 (A4 10-15매)</p> <p>5) 최종 수정 논문 ((A4 10-15매)</p> <p>6) 기타과제: 수정 시사평론, 수정 체험에세이</p>

3) 연세대 글쓰기(2012)

차수	강의 내용	활동	과제
1주	강의 내용 소개 및 좋은 글 보기 교재 1장 : 왜 글을 쓰는가.	강의	
2주	[도입학습]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좋은 글 찾기) 교재 2장 : '나가 있는 글, '나가 없는 글	발표, 토론	좋은 글 찾기
3주	[도입학습] 진단 평가 및 발상 연습 단락 만들기1 (글의 테마, 주제, 주제 문장) 글의 테마 뽑기, 주제 찾기, 자료 이용법, 자료를 이용한 구성법	발표, 토론	단락 쓰기1
4주	[초고 작성 및 과정 학습] 발상 연습 및 협동학습과 글 만들어가기 1 협동학습 읽기-쓰기 모형, 발상 과정 학습 1. 어떤 주제를 뽑을까? 2. 어떤 자료를 찾을까? 3.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조별 토론	
5주	[초고 작성 및 과정 학습] 협동학습과 글 만들어가기 2 * 주제에 대한 자료와 정리 * 자료를 이용한 구성 * 작성과 자체 평가 및 수정	조별 실습	
6주	[초고 수정 및 과정학습] 협동학습과 글 만들어가기 3	전체 학습	

	* 평가회 (강평 및 전체 평가) 튜터 * 조별 초고 수정		
7주	[초고 수정 및 과정학습] 협동학습과 글 만들어가기 4 및 글의 구성과정 * 협동학습 마무리, <글쓰기의 전략> 4~7장 * 구성의 의미, 구성의 여러 경우, 구성 작성 방법	전체 학습	
8주	중간고사		
9주	[초고 작성 연습] 교재 17 장: 일상 속의 '권력' 1 교재 읽기,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자료 읽고 토론하기 영화 감상, 영화 평론 검토, 주제 뽑기, 자료 찾기, 내용생성, 구성하기	조별 토론	
10주	[초고 작성 연습] 일상 속의 '권력' 2 초고 조별 검토, 초고 자체 수정	조별 토론	
11주	[초고 작성 연습] 일상 속의 '권력' 3 전체 강평	개별 학습	
12주	[완성글 작성 및 집단 강평] 워크숍 1 워크숍 주제 정하기, 내용생성하기, 조별 및 종합 토론	조별 토론	
13주	[완성글 작성 및 집단 강평] 워크숍 2 전체 강평, 자기 글에 대한 분석, 반성 - 새롭게 작성해 보기	조별 강평	
14주	[완성글 작성 및 집단 강평] 워크숍 3	전체 강평	
15주	총괄 정리 및 토의(예비 주)		
16주	기말고사		
<참고> * 수업 사정(공휴일, 학교 행사)에 따라 강의 계획을 순연 혹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는 해당 일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게 내는 학생은 사이버 강의실을 이용한다.			
<기말 과제> 공식 매체 글쓰기 - 학교 내외 언론 매체, 일간지, 잡지, 인터넷 토론방 등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한 글을 제출한다. (6/15일까지)			
<워크숍 주제> 1. 궁극적 진리(최종적으로 완전한 진리)는 가능한가? 2. 미래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도덕이 과학 속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4.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인가? 5. '과학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고 있다'란 말에 대한 견해는? 6.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7. 역사가 인간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역사를 만드는 것인가?			

8. 예술 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는가?
 9. 예술이 인간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10. 현실이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가?
 11. 유토피아는 실현가능한 것인가, 한낱 꿈일 뿐인가?
 12. 종교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성을 포기하는 것인가?
 13.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가, 개인을 억압하는가?
 14. 나의 생각이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15. 인간은 물질적 존재인가, 정신적 존재인가?
- * 이 외 다른 주제로 선택하고 싶으면 교수의 허락을 받을 것.

4) 숙명여대 글쓰기(2012)

<p>◆ 과목명: 글쓰기와읽기(15분반) ◆ 시간: 수6-7(1:00-2:50, 명신관 211호)</p> <p>◆ 강의특성 : 1. 과정 중심의 글쓰기(수정과 피드백 활용) 2. 활동 중심의 글쓰기(협력학습 체제 활용) 3. 기능 중심의 글쓰기(요약-분석-비평-소논문의 연계 원칙)</p> <p>◆ 평가방법 : 출석(20), 수업 및 실습(10), 중간시험(20), 과제(50)</p> <p>◆ 강의방법 및 기타사항 : *교양필수/상대평가</p> <p>(1) 강의와 실습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발표를 병행함. (2) 과제--개인과제(4종) *과제물 요강 참조 (3) 교재--숙명여대 의사소통센터,『글쓰기와 읽기』,경문사, 2011 (4) 기타--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상담--순현관 10층 1102호 상담실 *화, 목 오전</p>	
차수	강의 내용
1주	<p>강의소개 및 오리엔테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대학 글쓰기 교육의 이념과 현실/교양의 개념 - 강의소개(A): 강의계획서(목표, 특성, 방법) - 강의소개(B): 강의설계를 위한 집담회/조편성
2주	<p>‘나’에 대한 글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글쓰기는 □다/창의성 6요소 - 강의(A): 에세이란?/성찰과 표현-나에 대한 글쓰기 - 실습(B): 아이디어 생성 연습(자유연상,마인드맵핑,프리라이팅)
3주	<p>요약하며 읽고 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글읽기는 □다/요약의 4요소 - 강의(A): 요약 방법/바꿔쓰기 - 실습(B): 요약의 실제/피드백
4주	<p>분석하며 읽고 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텍스트라는 우주/상황 및 맥락 - 강의(A): 분석의 방법/축차적,구조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B): 분석의 실제/피드백
5주	비평하며 읽고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텍스트의 수용에서 생산으로 - 강의(A): 비평의 방법/내재적,외재적 비평 - 실습(B): 비평의 실제/피드백
6주	영어주간 & 탐방활동 *휴강-총선일, 4.9 보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조별 활동 권장 - 실습(A): - 실습(B):
7주	대학 글쓰기 특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보고서라는 양식/보고서의 문장 - 강의(A): 문장의 정교화/단락의 구조화 - 실습(B): 비문 고치기 연습/올바른 문장 사례
8주	중간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및 일시(추후 공지) - 서술형 단답식(A): - 서술형 논술식(B):
9주	소논문 쓰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주제 설정 및 개요 작성 - 강의(A): 개요란?/위계화,예비고찰/자료 수집 및 분석 - 실습(B): 주제 설정/개요표 실제/피드백
10주	대학 글쓰기 특강2 *5.12 보강 예정(추후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보고서의 양식/보고서의 문장 - 강의(A): 형식화-표지,목차,인용,주석 - 실습(B): 주제 탐색/우수 보고서 사례
11주	개인 면담 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및 일시(추후 공지) - 면담(A): 전반기 과제 - 면담(B): 개요표
12주	소논문 쓰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인용하기, 주석달기, 참고문헌 활용 - 강의(A): 인용과 주석의 방법/학문별 사례 - 강의(B): 실제/피드백
13주	소논문 쓰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수정의 개념과 전략/수정과 작문의 질 - 강의(A): 고쳐쓰기/수정의 4요소 - 실습(B): 협력학습/피드백
14주	예비 및 총정리(현충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학술 독서/대학 이후 글쓰기 - 강의(A): 학습포트폴리오란?/포트폴리오의 효과와 사례 - 강의(B): 평가란?/다면평가의 효과와 사례

15 주	기말시험 *포트폴리오 제출로 대체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전에 교재 및 지정도서를 읽어올 것. - 수업 시간 외의 면담은 사전에 연락할 것. - 과제는물은 '출력본'으로 제출하되, 해당자의 경우 학기말에는 '파일'도 반드시 제출해야함. - 과제는 '한글' 혹은 'MS워드'로 작성하고, 규격은 A4로 통일할 것. - 과제에 대한 '표절'이 확인될 경우, e-class에서 소명 후, 원칙적으로 'F' 처리함. -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제물 요강'을 참조할 것. 마감 후 제출 과제에 대해서는 감점. - 기타 강의관련 공지사항은 e-class를 참조할 것. 	
<p><참고도서: 글쓰기 관련></p> <p>강준만, 『대학생 글쓰기 특강』, 인물과사상사, 2005. 정희모·이재성, 『글쓰기의 전략』, 들녘, 2005. 정희창, 『현대문자생활백서-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Linda Flower, 원진숙 옮김,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동문선, 1998. 유임하 외, 『교양인의 화법과 대학 글쓰기』, 도서출판 역락, 2011.</p>	
<p><과제물 요강-공통></p> <p>개인과제1: 에세이-나에 대한 글쓰기(10점, A4 2-3장 내외) 개인과제2: 요약 및 분석글-교재 안팎의 읽기자료(10점, A4 2-3장 내외) 개인과제3: 비평글-교재 안팎의 읽기자료(10점, A4 3-4장 내외) 개인과제4: 개요표 및 소논문(20점, 5-10장 내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논문은 <표지-목차-국문요약(키워드)-본문-참고문헌>으로 구성됨. * '포트폴리오'는 개인과제 최종본을 모두 묶어 제출하는 형태임. 	

2. 해외 대학 읽기-쓰기 강좌의 현황 조사

가. MIT의 읽기-쓰기 강좌

1) MIT :

MIT는 의사소통 필수과정(Communication Requirement- 아래 항목)을 통해 주제별로 20~30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 이 중 대다수가 읽기-쓰기 강좌 형태를 띠고 있음.

- FEE (Freshman Essay Evaluation)
- CI-H (Communication Intensive in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 CI-M (CI in the Major)

※ MIT OPEMCOURSEWARE 교육 프로그램 자료에 나오는 강좌들을 참고할 것.

2) MIT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

<p>▶빈곤(Poverty)</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노동 : 불법으로 볼 것인가? 2. 노숙자 : 또 다른 접근들 3. 최저임금제 : 이 제도가 빈곤을 완화하는가? 4. 90년대의 복지개혁 : 빈곤 완화 과정의 득과 실
<p>▶성(Gender)/성생활(Sexuality)/가족(Family) 이슈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중절권 : 찬반양론 2. 입양 : 폐쇄적 혹은 개방적 입양? 3. 중매결혼(arranged marriage) : 문화적 억압인가 대안적 결혼 전략인가? 4. 이혼 : 이혼법이 보다 개방적이어야 하는가? 5. 동성연애결혼권 : 찬반양론 6. 성교육 : 공교육에서 그 입지가 있는가? 7. 남/여성교육(single sex education) : 대안적인 교육적 전략인가 성차별인가? 8. 십대임신 : 십대임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9. 트랜스젠더 : 또 다른 접근들 10. 일하는 엄마들과 일터에서의 평등권을 위한 접근들 11. Women and Workplace Equity in China-Different Strategies
<p>▶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o Child Left Behind Act : 찬반양론 2. SAT와 대학입학 : SAT는 폐기되어야 하는가? 3. High-Stakes Education Testing : 찬반양론 4.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 의무적이어야 하는가? 5. 홈스쿨링 : 찬반양론 6. 고등교육과 MIT 주제들 : 정신건강 지원, 신입생 학사 구조, 봉사활동 요건, ROTC 7. 장애인들과의 통합교육 : 긍정적인 전략인가 부정적인 전략인가?
<p>▶인종/민족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수집단 우대정책 : 찬반양론 2. 이민정책개혁 : 또 다른 접근들 3. 캠퍼스에서의 인종평등 : Is Racial Self-Segregation is a Problem?
<p>▶건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락사 : 자살을 돕는 것이 옳은가? 2. 의료개혁 : 다른 시각들 3. 의무적 예방접종 : 공공 건강의 필요인가 시민권의 폭력인가? 4.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법제화 : 찬반양론 5. 인구위기/인구제한 정책 : 정부는 피임을 장려해야하는가? 6. 장기매매 : 법으로 정해져야하는가? 7. 담배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지는가?
<p>▶과학과 기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자조작음식(GM foods) : 득과 실 2. 지구 온난화 : 다른 이론들 3. 줄기세포연구 : 찬반양론 4. 생식공학에 대한 윤리적 토론 5. 오일을 넘어서 : 대체 에너지 6. 보스턴에서 생물안전도4 연구를 위한 부지마련 : 찬반양론
<p>▶정보공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의 공유인가 불법적 다운로드인가?
<p>▶헌법적 권리와 개인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raft의 합법성 2. 캠퍼스에서 자유 발언과 “편파적(혐오) 발언” 3. 총기 규제 : 찬반양론 4. 정신질환자들의 권리 5. 포르노그래피 : 자유 발언인가 혐오 발언인가? 6. 최소 음주연령을 18세 이하로 할 것인가 21세로 할 것인가?
<p>▶범죄/응용 범죄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체 처벌 : 찬반양론 2. 금전적 처벌 : 찬반양론 3. 감옥의 철학 : 처벌인가 재활치료인가?
<p>▶미디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디오 게임 : 어린이들과 십대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중립적인가, 긍정적인가? 2. 페이스북과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 : 다른 관점들
<p>▶외교정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라크전쟁과 파키스탄전쟁 : 찬반양론 2. 관타나모만(Guantanamo Bay) 시설은 철수해야하는가?

나. 콜롬비아 대학의 읽기-쓰기 강좌

1) 학습 목표

<다양한 자료에 접근하면서>

1. 연구 대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2.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글을 수사학적이고 형식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과 능동적으로 독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다양한 형태의 에세이에 익숙해지도록 만든다.
4. 생각을 발전시키고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5. 자료를 요약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인용하고 주석을 다는 방법을 익힌다.

6.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시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자료와 나 자신의 생각을 구분하는 인용 전략과 방법을 익힌다.

<논증을 구상하고 수정하면서>

7. 논증을 구상하고 관련된 지적 실천적 문제를 규정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 방법을 따르는 방법을 익힌다.

8. 다양한 독자들의 기대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9. 논증을 수정하는 방법을 익히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0. 문법과 어법에 어긋나지 않게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른다.

<글쓰기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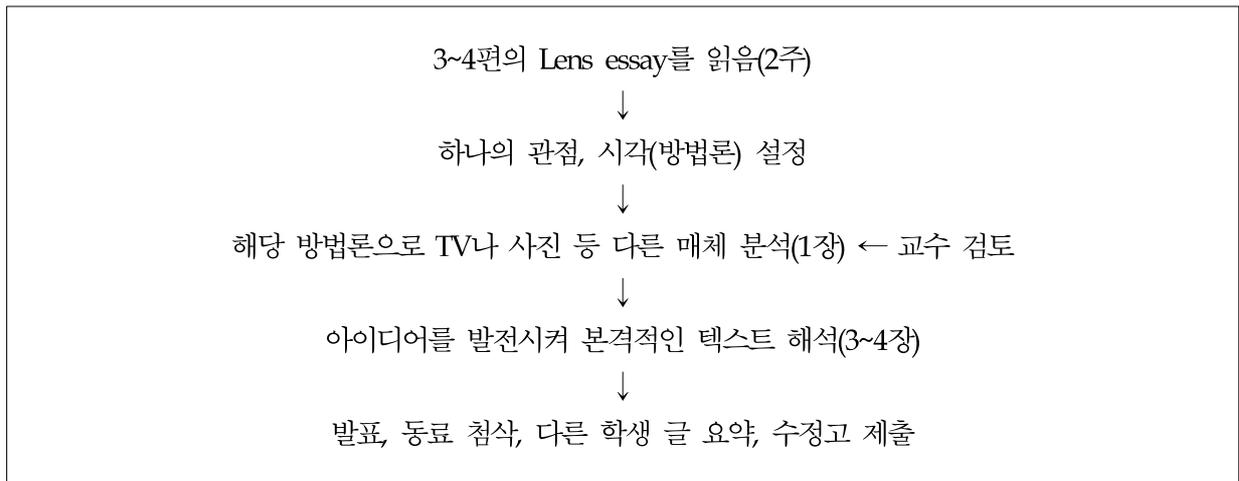
11. 동료에게 글과 말로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 글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익힌다.

12. 동료의 학습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듣고 토론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운다.

2) 수업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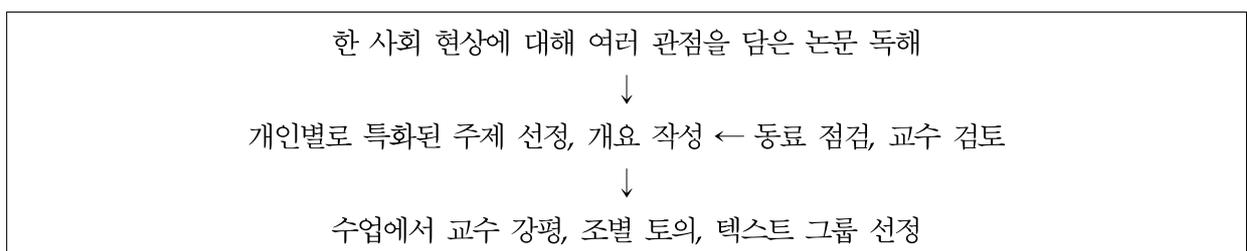
가) 1단계: Lens essay

-어떤 현상, 사물을 판단할 시각, 관점을 세워 다른 현상에 적용하기



나) 2단계: Conversational Essay

- 관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텍스트를 놓고 학생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



(seed text를 정하고 참고문헌이나 관련 분야로 옮겨가는 방식



아입장에 대한 찬반의 글을 작성, 점검, 수정고

다) 3단계: Collaborative Class Project – The Research Essay

- 협력학습 프로젝트는 조별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구상하고 계획하여 필요한 연구 조사를 하고 자기 설계 하에 글을 쓰는 것이다.
- 교재에 실린 20편 중 한 편의 에세이를 읽고 각기 다른 사회 문제에 주목해 참고문헌을 조사하고 각자의 글을 써 나간다.
-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형적인 '주제 중심' 접근과 기본적으로 다른 조사, 탐구의 '관계망'식 접근법을 배워 대학의 학술 담론 전통을 학습하게 된다.

❖ 유사한 주제별로 그룹을 만들어 텍스트 조사, 자료 조사, 조별 토론

→ 개인 에세이 작성

- 개인 에세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2500~3000 단어로 써야 한다.

·프로젝트 설명: 이 에세이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바가 무엇인가?

· 동기: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BEAM: B 무슨 자료에서 정보를 얻을 것인가?

E 무엇을 보여주고 검토할 것인가?

A 어떤 논쟁을 준비하는가?

M 어떤 분석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준비된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것인가?

라) 4단계: Retrospective Essay

-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돌아보고 종합하면서 그것들을 다른 상황과 맥락으로 어떻게 전환시킬지를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과정이다.
- 자서전 형식, 동료가 필자로서 발전해나가는 과정의 프로파일, 편지 등 형식의 제한이 없다.
- 수업에 대한 평가이자 필자로서의 발전을 보여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자신과 자신이 쓴 에세이에 대해 쓰면서 그 동안 배운 기술과 전략을 이용한다.

4) 글쓰기 연습

가) 총 4 유형의 에세이를 작성한다.

비판적

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글(1500-1800 단어)

에세이	
대화적 에세이	다른 사상가나 이론가들의 주장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정리한 글 (1900-2400 단어)
조사연구 에세이	앞의 두 과제를 종합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주제와 관련하여 더 지속적인 조사 연구와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글 (2100-2700 단어)
반성적 에세이 혹은 사설	학기 전체의 진행 과정을 반성하는 에세이 혹은 앞의 에세이 중 하나를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사실의 형태로 재구성한 글(1000-1300 단어)

* 이전에 시행되었던 렌즈 에세이, 대화적 에세이, 협동학습을 통한 조사연구 에세이, 반성적 에세이의 구성이 학생들과 교수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 현재 체제로 바뀜.

나) 위 유형의 에세이 작성 과정에서 다음 4 종류의 과제들이 주어진다.

연습 과제	최종 에세이를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배양하도록 기획된 연습 과제가 거의 매 시간 주어진다. 150-900 단어의 분량이다.
의견 제시	학기 중 3회 이상 동료 학생이 쓴 초고에 대해 300-500단어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쓴다.
초고 수정	각 에세이에 대한 최종 초고를 마련하기 전에 동료 및 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고를 두 번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 에세이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4 유형의 최종 에세이를 완성한다.

* 우수한 에세이는 매년 선정하여 <The Morningside Review>라는 전자 저널에 실어서 학내 전 구성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각 대학의 강좌에 대한 평가

1) 한국 대학별 읽기-쓰기 강좌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강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별도의 강좌로 개설하고 있으며, 기타 대학에서는 글쓰기 수업에서 읽기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읽기-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이중 최근에 읽기-쓰기 강좌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제시한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수업이 요약적 읽기, 분석적 읽기, 비판적 읽기의 세 측면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의 읽기-쓰기 수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방법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다른 대학의 글쓰기 관련 강좌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수업 방법론이 채택되고 있으나 동 대학교는 이를 하나의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의 학술적 글쓰기 강좌에서는 요약하며 읽기 → 논평하기 → 에세이 쓰기를 하나의 수업 모듈로 설정하여 강의를 진행하

고 있다. 그 점에서 요약과 분석, 평가가 읽기 수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약과 분석, 평가는 읽기-쓰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만, 정교한 교수-학습 방법론은 아직 한국의 대학에서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읽기와 쓰기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론이 더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3) 미국의 MIT는 MIT OPEMCOURSEWARE를 통해 다양한 읽기-쓰기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읽기-쓰기를 위한 주제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읽기-쓰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관된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읽기-쓰기 수업을 모듈화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팀에는 세부적으로만 도움이 된다. 이와 달리 콜롬비아대학에서는 체계적인 수업을 위해 읽기-수업이 모듈화되어 있어 참조할 만하다. 한국의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요약과 분석, 평가가 포함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정교하기 때문이다.

4) <지식 중점 모형(읽기-쓰기 모형)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팀에서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읽기-수업 모듈을 구체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VI. 강의 프로그램 구성'에서 제공할 것이다.

V. <읽기-쓰기> 강좌의 구성 요소

1. 과정 중심 요소(쓰기 과정 요소): 계획, 자료, 개요, 집필, 수정

가. 쓰기 과정 학습의 문제

1) 글쓰기 교육 과정에서 과정 학습을 중시하느냐, 결과물인 텍스트를 중시하느냐는 학습자의 수준,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글쓰기 기초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정 학습을 많이 반영하며, 주제나 내용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소략하게 반영한다.

2) 쓰기 과정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계획하기	논제 이해와 분석, 화제 설정, 주제 설정, 장르 설정, 독자 분석
내용생성하기	자료 찾기, 내용 정리, 주장 세우기, 근거 찾기
내용조직하기	개요 짜기, 단락 주제 설정
내용표현하기	문장 쓰기, 서론 쓰기, 결론 쓰기
수정하기	문장 교정, 내용 교정

3) 쓰기 과정은 개별 이론 학습과 주제를 통해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 이론 학습은 쓰기

과정의 부분들을 원리와 전략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쓰기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의 전략(주제 정하기, 독자설정 및 분석하기, 다발짓기, 생각그물 만들기 등)을 설명하고 이를 실습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다. 주제를 통한 학습은 특정한 주제의 글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과정 요소를 학습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글을 쓰면 이에 대한 주제를 찾으면서 주제찾기의 전략을 학습하는 것이다.

개별 이론 학습 : 부분 → 전체
 주제를 통한 학습 : 전체 → 부분

4) 중등 교육 과정에서 글쓰기 교육이 활발한 미국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는 쓰기 과정에 관한 이론적 학습은 매우 소략하게 다룬다. 이에 반해 한국 대학의 글쓰기 교재는 상대적으로 쓰기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5) 대학 차원의 과정 학습은 맥락과 인지를 포함한 전체 학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의 글을 작성하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쓰기 과정 요소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를 통해 부분을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 쓰기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범교과적 글쓰기(WAC)의 이론가인 Miles도 “주제를 배우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를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좋은 주제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쓰기 과정을 잘 익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글을 작성하는 도중 특정한 단계의 쓰기 과정의 이론(개요 작성 방법, 내용 생성 전략 등)을 학습하게 할 수 있다.

↙ 수정하기 전략 학습
 한 편의 글쓰기 : 계획하기 → 집필하기 → 수정하기 → 초고 완성
 ↘ 주제 찾기 전략 학습

6) 쓰기 과정을 구성할 때 과정 학습 분량의 조정 문제는 담당 교수자들이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과정 중심의 학습을 한다고 모든 과정을 반복할 수 없다. ‘계획하기’만 하더라도 문제 분석, 주제 설정, 자료 탐색, 내용 생성, 구성 짜기, 독자 분석 등 다양한 하위 과정들이 있다. 한 학기 수업에 그치는 대학 교육 과정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학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크지 않다. 사실 대학생의 경우 이런 세부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세부학습이 전체학습으로 전이(轉移)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대학에서 쓰기 과정을 구성할 때는 학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선택이 필요하다.

나. 쓰기 과정의 전략

1) 계획하기 단계

가) 문제 확인 및 분석 훈련

- * 문제의 대상은 무엇인가?
- *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 * 문제의 쟁점은 무엇인가?
- * 이에 관해 어떤 정보를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인가?
- * 정보 습득 후 가능한 추론은 무엇인가? :

나) 읽기 자료를 통한 문제 파악

- * 필자의 주장은 무엇인가? 혹은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어떤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가? 부분적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 *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자.
- * 필자가 자신의 주장에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필자의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이나 사례는 없는가?
- * 필자의 주장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에 대한 근거는 있는가?
- * 필자의 주장이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았는가?
- * 이 글을 통해 자신이 내세울 주장은 무엇인가?
- * 자신의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는가?
- * 필자의 주장이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일상적 사례를 찾아보자.

다) 쟁점과 주장 파악하기

- * 쟁점 :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대상
- * 주장 : 글이나 말을 통해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내세우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의 중심
- * 근거 : 어떤 주장이나 의견의 바탕이 되는 이유, 까닭.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까닭

<예문>
<p>모든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 권리는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도 포함된다. 상속 내지 유증이란 이러한 권리의 한 가지 행사 방법이 된다. 따라서 과중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일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이므로 정부가 과중한 상속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p>

- * 쟁점 : 과중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가?
- * 주장 :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과중한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 * 근거 : 모든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 * 반증 : 상속세의 제한은 빈부의 차이를 세습하는 것이다.
지나친 빈부의 차이는 소유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라) 발상과정과 테마 설정 (Academy Writing)

- * 자료 정리(writing journal) -binder
- * 창의적 발상(invention technique)
 - 자유롭게 쓰기(free writing) : 브레인스토밍
 - 분류하여 서술하기(listing)
 - 6하 원칙(wh-questions) : who, what, when, where, why, how
 - 다발짓기(clusters or branches)
 - 문장고리 잇기(looping) : 브레인스토밍 → 문장 → 브레인스토밍 → 문장
- * 아이디어 분석하기(cubing)
 - 아이디어를 묘사해 보라.
 - 아이디어를 다른 것과 비교해 보라.(유사성, 차이성)
 - 아이디어를 분석해 보라.(요소, 부분, 기능)
 - 다른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라.(관련성)
 - 아이디어를 적용하라.(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반대 입장을 생각하라.
- * 요점 정리(outlining)
 - 미국의 미, 그리스의 미 - 특징, 역사, 색채, 균형

마) 독자 분석

- * 독자에 따른 전달 방식의 차이 : 장르 선택, 설명 방식, 구성, 문투
- * 샘플 제시(2개) : 아래 두 글의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
 - 표현방식, 구성, 문투의 차이는 어떠한가?
 - 대상에 따라 글의 목적과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 자기 진단 : 이전까지 썼던 글쓰기 하나를 전제로 하고, 그 글을 다시 읽어 보라. 읽으면서 독자와 관련하여 메모를 하라. 이 글이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는 누구인가? 글의 목적은 무엇인가? 글의 주제와 구성이 대상 독자와 관련이 있는가?
- * 샘플 글 분석 - 주어진 글의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에 따른 글의 목적, 구성, 문장 분석하기, 글의 대상을 바꾸어 고쳐 글을 다시 작성해 보자.
- * 독자들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던지는 전형적인 코멘트 (Academy Writing)

	cf. 획일적 문화론이 갖는 문제점 나열 → 다양한 문화론의 이점
질문 하기	주어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함으로써 주제를 구체화하는 방법 1) 문제 확인하기 2) 문제 원인 파악하기 3) 결과 예측하기 4) 관련 사례 제시하기 5) 논리적 오류 파악하기 6) 문제 해결방안 제시하기 7) 감정 인식하기
관계 짓기	얼핏 보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장점과 단점 등을 생각하여 주제를 정하는 방법 예) '후세인과 부시', '광고와 욕망', '자본주의와 공동체 주의', '민족과 파시즘'

2) 내용 생성 단계

가) 자료 수집 및 검토

- ① 주제에 대한 자료 찾아오기 (인터넷 자료, 책, 배경지식 정리노트)
- ② 자료 분석하기 - 자료 내용 정리하기
 - 글 묶음표 작성
 - 주장과 근거 분리하기
- ③ 자료 평가하기 (자료 공유하기)
- ④ 자료 정리 및 축적하기

나) 자료 비교하기 및 통합하기

<p>두 자료를 읽고 내용에 있어 유사한 점을 찾아보라. 두 자료를 읽고 내용에 있어 상이한 점을 찾아보라. 두 자료의 주장을 서술해 보라. 두 자료의 주장에 어떤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는가? 두 자료의 주장을 하나로 통합해 보라. 통합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세워보라.</p>
--

다) 내용 생성하기(글감 찾기)

- * 브레인스토밍
- * 다발 짓기(mapping)
- * 글 묶기

3) 내용 조직 단계

가) 구성 짜기(개요 작성)

- * 글의 논리적 흐름: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 주제 구현
- * 몇 가지 구성의 패턴 소개
- * 본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요 작성 연습
- * 잘못된 개요 예시 후 바르게 고쳐보기
- * 개요 제시 후 서론 부분 작성하기 연습

4) 내용 표현 단계

- * 문장, 단락, 맥락, 연결성, 통일성
 - ① 기존의 방식(틀린 문장을 수정하시오)을 벗어날 것.
 - ② 문장원리가 내포된 교육(주술, 조사, 부사어, 수식어 관계 등등)
 - ③ 재미있고 유익한 방법
 - ex) 컬럼 글 — 단어 및 문장 집어넣기
 - 개별 문장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 유명한 번역 책에서 틀린 문장 제시 → 고치기
 - 신문기사 - 1문장 정도 공란 - 문맥에 맞게 채워 넣기
 - 유명 스타의 글 - 결론 부분 바꾸어 쓰기
 - 영화 평론 글 - 논리적 오류 - 다시 쓰기
 - ④ 상황 제시의 글
 - ex) 불합격 통보의 글, 불량제품 신고에 대한 답변의 글, 광고 문안, 자기 장점과 단점이 적절히 나타난 소개서, 사원 공모의 글, 대통령 대국민사과문, 학교 당국에 보내는 청원서, 제안서
 - ⑤ 문장 콘테스트(인터넷 사이트)
 - ⑥ 통일성, 연결성, 일관성에 관한 설명과 문제

5) 수정하기 단계 - 점검과 교정, 평가

가) 고쳐쓰기의 기본 과정

- ① 첨가
 - 설명이 부족하여 주제가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부분
 - 근거가 부족하여 논리적 비약이 있는 부분
- ② 삭제

- 설명이 반복되는 부분
- 주제에서 벗어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부분
- 표현이 모호하거나 거친 부분

③ 대체

- 더 나은 내용이나 표현이 필요한 부분
- 정확하거나 새로운 정보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④ 재배열

- 논리 전개 순서가 바뀐 부분
- 글의 흐름이 끊어진 부분
- 단락이나 문장이 뒤엉킨 부분

나) 고쳐쓰기에서 유의할 점

① 글의 주제 및 내용

- 주제문과 관련이 없는 설명이나 내용이 있는가.
- 주제문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가.

② 구성

- 단락과 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가.

③ 단락

- 단락에서 소주제문을 찾을 수 있는가.
- 뒷받침문장 중에서 소주제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장은 없는가.

④ 문장

-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는가.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가.
- 문장이 중의적이어서 모호하지 않은가.
- 외국어 번역투는 없는가.

⑤ 어휘 표현

- 지시어(예: 이러한, 이와 같이 ...)의 지시 대상이 없거나 불명확하지 않은가.
- 접속어(예: 그러므로, 그러나 ...)의 논리적 관계는 정확한가.
- 표현이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는 없는가.
-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쓴 전문어나 지나치게 현학적인 표현, 적절치 않은 수사는 없는가.

다) 수정의 방법

- 조별로 나누어 돌려 읽고 평가하기
- 조별로 토론하여 수정하기
- 평가된 글 수정하여 제출하기
- 점검표 제시

라) 동료 점검표 사례

① 동료 첨삭 및 평가 양식 샘플

A 평가자	1. 바른 문장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3. 글의 구성에 짜임새가 부족합니다.	
	4.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실질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5. 주장이 일관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하나의 주제로 집약하는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7.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8. 맞춤법, 띄어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9. 적절한 예시나 인용이 부족합니다.	
	10. 문장이 너무 길거나 복잡합니다.	
기타		총 점
B 평가자	1. 바른 문장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3. 글의 구성에 짜임새가 부족합니다.	
	4.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실질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5. 주장이 일관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하나의 주제로 집약하는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7.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8. 맞춤법, 띄어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9. 적절한 예시나 인용이 부족합니다.	
	10. 문장이 너무 길거나 복잡합니다.	
기타		총 점
C 평가자	1. 바른 문장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3. 글의 구성에 짜임새가 부족합니다.	
	4.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실질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5. 주장이 일관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하나의 주제로 집약하는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7.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8. 맞춤법, 띄어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9. 적절한 예시나 인용이 부족합니다.	
	10. 문장이 너무 길거나 복잡합니다.	
기타		총 점

② 동료 첨삭 및 평가 양식 샘플

[글쓰기] 첨삭 조언표

이름 : _____

점검 항목 및 세부 내용	기타
1. 주제의 명료성과 일관성 1) 글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나'의 생각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2) 주제가 참신하지 않고, 독창적이지도 않다. 3) 주제에 학술적인 깊이, 의미가 부족하다. 4) 주제가 너무 평이하고, 일반적이어서 글의 매력이 떨어진다. 5) 주제가 보편적인 통념과 동떨어져 인정받기가 어렵다.	
2. 내용(근거)의 충분성과 타당성 1)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논거)이 부족하다. 2) 주제 전달을 위해 다양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이 점이 부족하다. 3)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동원한 내용(논거)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 4) 주제 전달을 위한 예시와 인용의 사용이 부족하다. 5) 주제 전달을 위해 사용한 예시와 인용이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	
3. 구성의 적합성과 완결성 1) 글 전체의 구성(흐름)이 논리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다. 2) 글의 흐름이 주제와 결합되어 전개되고 있지 않다. 3) 글이 주제와 어긋나게 다른 곳으로 진행되었다. 4) 논지 전개에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다. 5) 서두 전개가 매우 미숙하고 어색하다. 6) 서두에서 논술답안식의 느낌이 난다. 7) 글의 마무리가 미숙하다.	
4.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 1) 문장과 문장의 연결에 어색한 부분이 많다. 2) 문장이 간결하지 않고, 너무 길다. 3) 문장에 비문이 있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다. 4) 문장에 유행어나 비속어, 어색한 번역투 표현이 있다. 5) 문장에 관형절, 수동태 등 영어식 표현이 있다.	

6) 무난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매끄럽지 못하다.	
5. 사유의 독창성과 깊이 1) 대상에 대한 독창적인 사유가 부족하다. 2) 대상에 대해 사유적으로 깊이 있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대상에 대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유를 하지 못한 면이 있다.	
6.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부분 1) 독서 2) 글을 많이 써보기 3) 문장 연습 4) 유사한 텍스트 읽기 5) 글을 많이 보여주기 6) 글을 많이 발표하기 7) 좋은 글 모방하기 기타	

③ 동료 첨삭 및 평가 양식 샘플

< 돌려 읽기 평가 항목 >

반: 글쓴이:
점검 대상자 성명 :

* 문장이나 띄어쓰기, 어휘 오류는 초고에 직접 표시해 주세요.

* 이 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자세하게 제시하시오.

*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제점을 수정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 돌려 읽기 평가 항목 >

반: 글쓴이:
점검 대상자 성명 :

* 문장이나 띄어쓰기, 어휘 오류는 초고에 직접 표시해 주세요.

* 이 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자세하게 제시하시오.

*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제점을 수정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④ 자기 진단 및 처방 양식 샘플

<p><자기 진단 및 평가></p>		
	반:	조: 이름:
<p>1. 글이 만족스럽게 작성되었다고 여깁니까?</p>		
<p>2.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십시오.</p>		
<p>3. 이 글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십시오. (없으면 공란으로)</p>		
<p>4. 수정을 위해 사용할 전략이 있으면 말해보시오.</p>		

2. 읽기 과정 중심 요소

가. 읽기 중심 요소 제시를 위한 이론적 전제

- 1) 읽기와 쓰기는 양자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진 단	처 방
주제		
구성		
내용		
문장		

- 2) 교실이 변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의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맥 안에서 문식성을 가진 참여자로 성장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 3) 과정 중심의 읽기-쓰기 전략에 기초한다. 특히 메타인지 전략에 기초한 교수법 (Metacognitive Strategy Instruction)을 활용한다. 이 모델의 중요 가정 중 하나는 읽기와 쓰기와 서로 연결된 상호작용적인 과정이라는 데 있다. 이 모델에 대한 또 다른 가정은 읽기와 쓰기가 세 가지 회귀적인 단계를 수반한다는 것이다(계획하기, 기초 세우기, 응답하기).
- 4) 협동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5) 읽기 자료는 모델이 아니라 비판적 협상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읽기 중심 요소를 제시한다.

나. 읽기 과정 학습의 문제

- 1) 한국 대학의 글쓰기 교재는 쓰기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읽기 과정은 소홀히 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쓰기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다.
- 2) 대학 차원의 읽기 과정 학습은 맥락과 인지를 포함하는 전체 학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는 쓰기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통합적 읽기(능숙한 필자) ◁

읽기: 텍스트 읽기 (맥락적 읽기, 분석적 읽기, 비판적 읽기)

→ 텍스트 변형시키기(선택, 연결, 조직하기) → 쓰기와 연계하기

- 3) 읽기 과정을 구성할 때 담당 교수자는 한 학기 수업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학생들과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읽기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읽기 수업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 읽기 - 쓰기 과정의 전략

- 1) 텍스트 이해를 위한 읽기 전략

가) 텍스트 읽기

- ① 중심 내용을 선택하면서 읽기
- ② 중심 내용과 하위 내용 연결하고 조직하기 → 한 편의 요약글 만들기

나) 맥락 읽기

- ① 텍스트 읽기의 기초 단계
 - * 필자의 의도 파악하기
 - * 소통 맥락 읽기: 글의 종류(장르)와 효용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기
글이 탄생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기
저자와 독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공통 상식과 변화된 생각 반영하며 읽기

② 의미를 구성하는 단락과 표현

- * 글의 기본 구성 파악하기: 문제 제기-해결형 구조, 원인-결과 구조, 비교/대조 구조 등 어떤 구조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 *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어휘의 선택에서 드러나는 특징 파악하기
어조의 특징 파악하기
문장 길이가 글의 표현에서 차지하는 의미 파악하기
묘사와 서술 등의 수사적 선택을 통해 텍스트의 논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③ 텍스트를 읽는 다층적 독자

- * 텍스트에 나타나는 저자의 예상 독자 파악하기
- * 저자가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갖는 의미 생각하기
- * 내가 쓴 글의 독자가 되어 독자의 시선으로 읽어 보기

다) 분석적 읽기

① 핵심어와 소주제문 찾기

- * 핵심어 찾기
- * 단락별 소주제문 찾아 글의 논리적 흐름 파악하기(분석표 활용)

<분석표 샘플>

단락별 핵심어	단락별 소주제문	단락별 세부내용	단락별 전개 방식 (인과, 분석, 상술 등)

--	--	--	--

* 핵심어와 소주제문을 중심으로 읽기 텍스트 재구성하기(요약하기)

② 설득의 전략과 수사적 효과: 텍스트의 의사소통 전략 파악하기

* 글의 논리적 전략 파악하고 효과 분석하기: 객관적 현상, 잘 알려진 사실이나 사건, 통계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인터뷰나 시각 자료, 권위 있는 글의 인용 등을 통해 어떻게 설득력을 강화하는지 파악하기

* 공감의 전략 파악하고 효과 분석하기:

- 텍스트에서 저자가 제시한 가치와 독자인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말해 보기
- 텍스트에서 저자가 제시한 가치 중 공감하기 어려운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말해 보기

라) 비판적 읽기

① 논리적 타당성 분석하기

-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 * 기본 전제/가설과 주장 파악하기
- *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② 문장의 가치판단에 대한 비판적 읽기

- * 저자가 선택한 어휘와 문장 중 특정한 가치판단이 드러나는 어휘/문장 체크하기
- * 은유적 표현이 갖는 힘과 함정 읽기(사실과 은유의 거리 비판적으로 파악하기)

③ 주제와 근거에 대한 내 의견 내놓기

-----<비판적 읽기를 위한 질문 항목>-----

◆ 주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글쓴이는 누구인가
저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주장이 처음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인가
새로운 화제인가 혹은 진부한 화제인가

◆ 주장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화제나 쟁점은 무엇인가
글쓴이의 전체 주장은 무엇인가
글쓴이는 어떤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는가
글쓴이는 독자들이 무엇을 알거나 믿고 있다고 전제하는가

◆ 글쓴이를 신뢰할 수 있는가

글쓴이는 이 주제를 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글쓴이의 입장에서부터 편견이나 편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제시된 사실들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혹은 타당한가
글쓴이는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 혹은 제시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글쓴이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시각이나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자료도 인정하고 있는가(다른 시각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가)

◆ 주장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주장의 내용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끝맺는가 혹은 독자는 결론에서 어떤 인상을 받는가
글쓴이가 제공한 논거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고 있는가
글쓴이의 글쓰기 스타일의 특징은 무엇인가
글쓴이가 사용한 언어를 자세히 설명해보자
사진, 판형, 그래픽이 사용되었다면 명료하게 텍스트에 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마) 텍스트의 오류 찾기

논리적 오류들	감정과 언어의 오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정하기 - 잘못된 비유 - 성급한 일반화 - 불합리한 추론 - 인과설정의 오류 	

2) 쓰기를 위한 읽기 전략

가) 읽기 자료 활용하면서 글쓰기

① 읽기 자료 속에서 생각 찾기

- * 내가 쓰고 싶은 글의 소재/주제와 읽기 자료 연결시키기
- *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주체를 구체화하기

② 자료 탐색을 통한 쓰기

- *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활용하기
- * 여러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내 글에 활용하기

라. 읽기-쓰기 통합 수업을 위한 세 가지 모델

1) 종합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읽기 : 다섯 가지 관점으로 텍스트에 접근하기

가) 특징 ① 기존의 요약식 읽기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판적 문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 피터가 고안한 읽기 중심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모형은 정서적 관점, 윤리적 관점, 수사학적 관점, 논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라는 다섯 가지 관점에 따라 텍스트 읽기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동적인 읽기를 체득할 수 있게 한다.

②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각 접근법을 익힐 수 있는 텍스트를 읽기 자료로 선정해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에 대한 샘플은 ‘VI. 강의 프로그램 구성 1) 읽기-쓰기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다.

③ 다섯 가지 관점에 따라 텍스트 읽기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은 능동적인 읽기를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각 관점에 맞는 질문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교수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에 제시된 각 표의 하단에는 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질문들을 샘플로 제공하였다.

* 참고로, 각 접근법에 있는 질문 중 ‘기타(내가 만든 질문)’은 학생들이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나) 다섯 가지 관점의 특징과 질문법

정서적 관점 (emotional perspectiv	특징	- 대다수의 텍스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독자의 감정에 호소한다. 따라서 이 점에 집중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해석의 한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단어와 문장 특별한 선택), 텍스트의 분위기와 필자의 서술 태도, 독자에 대한 필자의 태도 등은 감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	----	---

es)		<p>다. 정서적 관점에서는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p>
	<p>질문법: 정서적 관점에 따른 질문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어떤 단어와 문장을 선택했습니까? 이를 통해 어떤 감정이 환기됩니까? - 저자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인물들을 어떤 단어와 문장들을 사용하여 묘사하였습니까? 이러한 감정적 갈등을 만들면서 저자는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나는 그 방식에 공감합니까? - 저자가 만들어낸 감정적 갈등은 텍스트에서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습니까? 해결이나 미해결은 모두 저자의 글쓰기 전략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 전략에 찬성합니까? - 위에서 우리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단어와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와 문장들을 통해 만들어진 텍스트의 분위기는 무엇인지 추론해 봅시다(예: 적대감, 공감, 엄숙함, 애석함 등). 여기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서술 태도는 성공적입니까? 독자에게 필자가 환기하는 감정은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 기타(내가 만든 질문):
윤리적 관점 (ethical perspectives)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관점은 텍스트의 바탕이 된 이상과 신념을 탐색하는 일이다. 학생들은 텍스트가 특히 인간 행동을 다룰 경우 도덕적 가치에 대한 질문 또는 텍스트의 윤리를 대한 고찰을 해야 한다. - 주의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떤 기본 원칙을 존중하면서 도덕적 가치에 질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학생(독자)은 저자의 윤리적 관점을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선입견 없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② 수많은 윤리적 신념은 이타성, 자기중심성, 정치성이라는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타성은 헌신을 강조하며, 자기중심성은 개인의 자아실현이 최고선이라는 신념을 내세우고, 정치성은 공공체의 복지에 큰 관심을 둔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철학이 포함되는 정치성은 이상 달성을 위해 혼자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 신념과는 다르다.
	<p>질문법: 윤리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질문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많은 윤리적 신념은 이타성, 자기중심성, 정치성이라는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타성은 헌신을 강조하며, 자기중심성은 개인의 자아실현이 최고선이라는 신념을 내세우고, 정치성은 공공체의 복지에 큰 관심을 둡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철학이 포함되는 정치성은 이상 달성을 위해 혼자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 신념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떤 윤리적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타성, 자기중심성, 정치성이라는 세 범주 중 어디에 포함됩니까? - 저자의 윤리적 신념에 대해 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내가 만든 질문):

수사학적 관점 (rhetorical perspectives)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학적 관점의 초점은 글의 형식과 스타일에 맞추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텍스트에 제시된 쟁점들이 텍스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은 특히 쓰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질문법: 수사학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질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자료는 어떤 장르에 속합니까? - 글의 조직 방식은 어떻습니까(묘사, 서사, 정의, 비교/대조, 분류, 예시, 요약, 설득 등)? 글의 조직 방식은 그 글의 장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 글의 문체적 특징은 무엇입니까(격식적, 비격식적, 일상적, 비일상적 등등)? 글의 저자는 자기 글에 적합한 문체를 채택했다고 생각합니까? - 모든 언어는 잠재적으로 모호성(의미의 불확실성 혹은 함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자가 잘못 사용해서 생긴 모호성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선택한 모호성은 좋은 글을 쓰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 글에는 저자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호성을 부여한 주요 단어들이 있습니까? 있는지 찾아보고 글의 장르에 알맞게 선택된 단어인지 아닌지 평가하십시오. - 기타(내가 만든 질문):
논리적 관점 (logical perspectives)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저자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추론이다. 이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생들은 텍스트의 논리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저자가 다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추론을 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결론을 살펴본다. - 쟁점과 결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 다음에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저자가 택한 추론을 분석한다. 추론에는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있으며, 전자는 보편적 원리에 의거해, 후자는 사실 관찰이나 자료(data)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 학생들은 추론을 위해 필자가 어떤 가설이나 전제를 세웠는지를 조사하고 가설이나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들을 선택했는지를 분석한다. 저자가 추론을 위해 다른 관점을 끌어들이 비판하고 있다면 논점 회피, 성급한 일반화, 유형화의 오류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질문법: 논리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질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가 다루고 있는 쟁점은 무엇입니까? - 쟁점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저자는 어떤 추론을 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결론을 살펴봅시다. 저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 저자는 자신의 결론을 위해 어떤 가설이나 전제를 세웠습니까? - 저자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추론 방법은 무엇입니까? (추론에는 크게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있으며, 전자는 보편적 원리에 의거해, 후자는 사실 관찰이나 자료(data)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 저자가 가설이나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들을 선택했는지를 분석하십시오. - 저자는 추론을 위해 다른 관점을 끌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논점 회피, 성급한 일반화, 유형화의 오류 등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 기타(내가 만든 질문):
사회적 관점 (social perspectives)	특징	<p>- 사회적 관점에서는 텍스트를 사회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텍스트 세상을 관련지어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p> <p>- 사회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문제나 갈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모든 글은 대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무엇이 사회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제시된 대조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읽기 텍스트에서 사회적 대조는 가족간의 긴장이나 교실에서 일어나는 갈등, 세대차나 경쟁, 심지어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읽기 텍스트에서 대조가 제시되는 방식과 내용을 탐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p> <p>- 사회와의 관련성을 알아내는 다른 방법은 텍스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가령 과학 교재는 사회적 관련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활용되는가를 살필 때 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p>
	질문법: 사회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질문들	<p>- 텍스트에 제시된 사회적 갈등(사회적 문제)은 무엇입니까?</p> <p>- 텍스트에서는 갈등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p> <p>- 텍스트에 제시된 사회적 갈등은 어떤 입장(비판적, 수용적, 절충적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습니까?</p> <p>- 텍스트에서 제시된 사회적 갈등은 특수한 사회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까?</p> <p>- 텍스트에 드러난 인간관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입니까? 달라졌다면 사회적 갈등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p> <p>- 텍스트에서 제시한 사회적 쟁점(갈등)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21세기의 한국사회와 관련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미래의 한국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p> <p>- 텍스트에 드러난 사회적 갈등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 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p> <p>- 기타(내가 만든 질문):</p>

2) 렌즈 에세이 중심의 읽기-쓰기 모형 요소 (콜롬비아 대학)

가) 특징: ① 이 읽기-쓰기 통합 모델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1단계: 렌즈 에세이(Lens Essay)
- 2단계: 대화적 에세이(Conversational Essay)
- 3단계: 협력학습 프로젝트(Collaborative Class Project – The Research Essay)
- 4단계: 반성적 에세이(Retrospective Essay)

② 4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해석하

고, 통합하면서 한 편의 글로 구성해 내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교수자 평가, 동료 평가, 협력 학습과 토론 등이 수업 방법으로 채택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 과정을 되돌아보는 글쓰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한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남겨진 과제 등을 확인한다.

나) 단계별 수업 진행 방법과 주의사항

① 1단계: 렌즈 에세이(Lens Essay)

- 특징: 1단계는 어떤 현상, 사물을 판단할 시각, 관점을 세워 다른 현상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과정임.
- 방법: 수업시간에 읽은 에세이에 있는 아이디어나 개념, 이론을 취하여 에세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대상을 설명하여 분석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 렌즈에세이는 렌즈와 렌즈로 분석한 대상을 예시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 렌즈는 1) 채택한 분석 대상의 이해를 돕고
 - 2) 분석 대상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다.

단계	수업 진행 방법과 참고사항
1단계: 렌즈 에세이 (Lens Essay)	<p>- 수업 진행 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3~4편의 Lens essay 읽기(2주)</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의 관점, 시각(방법론) 설정 (에세이의 주제 중 하나를 뽑아 자신의 관점으로 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 교수 검토</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방법론으로 TV나 사진 등 다른 매체 분석 (A4 1장 분량으로 분석해서 글쓰기: 렌즈 에세이의 시각을 얼마나 자기화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글쓰기임. & 교수자가 검토할 때는 다루는 주제 안의 논제가 얼마나 명확한지에 주목하여 수정 규범을 제시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본격적인 텍스트 해석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3~4장으로 늘임.)</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발표, 동료 첨삭, 다른 학생 글 요약, 수정고 제출 (동료 학생들끼리 서로 바꿔보고, 남의 글을 요약해 발표해 봄. 이를 통해 남의 글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기술 향상시킴.)</p> <p>- 참고사항</p> <p>① e-journal에 선정된 글이나 도서관 읽기 자료 리스트에 있는 글, 또는 지난 학기 학생</p>

	<p>들의 글 가운데 잘 쓴 글을 같이 읽으면서 렌즈 에세이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좋음.</p> <p>② 그러나 도구로서의 렌즈와 분석 대상으로서의 현상을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읽기 자료로부터 추출한 렌즈를 읽기 텍스트가 아닌 경험이나 시각적 대상, 또는 렌즈를 추출한 읽기 자료와 다른 텍스트 장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p>
--	---

② 2단계: 대화적 에세이(Conversational Essay)

- 특징: 관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텍스트를 놓고 학생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렌즈 에세이를 익히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선하는 논리들을 형성하게 된 학생은 대화적 에세이를 구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찬반 견해를 어떻게 피력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단계	수업 진행 방법과 참고사항
2단계: 대화적 에세이 (Conversational Essay)	<p>한 사회 현상에 대해 여러 관점을 담은 논문 독해(2편 이상)</p> <p>↓</p> <p>개인별로 특화된 주제 선정, 개요 작성 ← 동료 점검, 교수자 검토 (교수자와 조원들에게 메일로 발송)</p> <p>↓</p> <p>교수 강평, 조별 토의, 텍스트 그룹 선정 (텍스트 그룹: 공통 화제나 상호 관련이 있는 읽기 자료를 텍스트 그룹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공통 주제를 가지지 않아도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텍스트 그룹을 만들 수 있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seed text를 정하고 그 텍스트의 참고문헌이나 그 텍스트가 영향을 끼친 분야로 옮겨가는 방식임)</p> <p>↓</p> <p>입장에 대한 찬반 글 작성, 점검, 수정</p>

③ 3단계: 협력학습 프로젝트(Collaborative Class Project: The Research Essay)

- 특징: 협력학습 프로젝트는 조별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구상하고 계획하여 필요한 연구 조사를 하고 자기 설계 하에 글을 쓰는 것이다.

- 교재에 실린 여러 편의 에세이 중 한 편의 에세이를 읽고 각기 다른 사회 문제에 주목해 참고문헌을 조사하고 각자의 글을 써 나간다.

ex1) 수잔 손탁이 뉴욕에 대해 쓴 에세이(뉴욕의 범죄율, 뉴욕에 대한 비판 등을 다룬)를 읽고 몇 가지 에세이를 더 읽으면서 research를 많이 해서 자기 주장을 전개한다.

ex2) 3~4명으로 조직된 한 조는 논문의 흥미 있는 부분에 인용된 각주에 대해 더 면밀히 조

사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날의 수업을 이끌어간다. 샌프란시스코의 생성 역사, 건축, 동성애, 피임약의 변화 등을 다룬 하나의 지정된 글을 읽고 나서 두 개 정도 다른 글을 더 읽은 후 자기만의 글을 쓰도록 한다.) ‘

-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형적인 ‘주제 중심’ 접근과 기본적으로 다른 조사, 탐구의 ‘관계망식 접근법을 배워 대학의 학술 담론 전통을 학습하게 된다.

단계	수업 진행 방법과 참고사항
<p>3단계: 협력학습 프로젝트 (Collaborative Class Project: The Research Essay)</p>	<p>- 수업 진행 방법:</p> <p>한 편의 씨앗 텍스트 같이 읽기 → 그룹별 과제 정하기 (과제들 중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소그룹 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p> <p>씨앗 텍스트 중심으로 공동 자료 조사, 개인 에세이 구상 (조원들은 씨앗 텍스트의 배경, 다루고 있는 참고문헌, 저자의 다른 글들, 씨앗 텍스트를 참고하여 쓰여진 글, 씨앗 텍스트를 적용해 볼 때 의미가 분명해지는, 씨앗 텍스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분야 등을 공동 조사함.)</p> <p>& 동료와 함께 씨앗 텍스트에 삽입된 ‘대화’를 탐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각자 개인의 에세이를 구상하고 준비함.5))</p> <p style="text-align: center;">↓</p> <p>발표, 토론, 에세이 쓰기 (구성원은 발표 내용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내 동료 지도를 받음. 수업에서는 씨앗 텍스트와 관련 자료를 연관 지은 과정이 합당했는지 토론함. 조별 발표와 토론을 거치면서 학생들 각자는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하고 동료의 질문 내용을 반영하면서 자신의 에세이를 씀. 이 때 참고자료는 BEAM⁶⁾의 원칙에 의해, 수보다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p> <p>- 참고사항</p> <p>개인 에세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2500~3000 단어로 써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설명: 이 에세이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바가 무엇인가? · 동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BEAM: B 무슨 자료에서 정보를 얻을 것인가? E 무엇을 보여주고 검토할 것인가? A 어떤 논쟁을 준비하는가? M 어떤 분석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 준비된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것인가?

5) 한 수업의 인원이 12~13명이므로 한 그룹당 3~4명씩 전체 3~4개 그룹을 형성하여 각 그룹당 조사 내용을 30~40분간 발표

④ 4단계: 반성적 에세이(Retrospective Essay)

- 특징: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돌아보고 종합하면서 그것들을 다른 상황과 맥락으로 어떻게 전 환시킬지를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과정이다.

단계	수업 진행 방법과 참고할 점
4단계: 반성적 에세이 (Retrospective Ess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 형식, 동료가 필자로서 발전해나가는 과정의 프로파일, 편지 등 형식의 제 한이 없다. - 수업에 대한 평가이자 필자로서의 발전을 보여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자신과 자신 이 쓴 에세이에 대해 쓰면서 그 동안 배운 기술과 전략을 이용한다. - 학기 전체의 진행 과정을 반성하는 에세이를 A4 1장 내외로 쓴다.

3. 워크숍 중심 요소

• 워크숍형 읽기-쓰기 프로그램의 중심 요소

가. 왜 워크숍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 미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서 워크숍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중요한 교수 모델이 되고 있음

예> 미국 대학의 작문 교수법에 대해 20년의 간격을 두고 출간된 두 권의 책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남. 아래 두 책은 초보 교수자들에게 작문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대안적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주제로 삼음.

책1- 1980년에 NCTE에서 출간한 *Eight Approaches to Teaching Composition*(eds. Tim Donovan and Ben McClelland)

책2: 2001년에 출간된 문헌자료 논문인 *A Guide to Composition Pedagogies*(eds. Gary Tate, Amy Ruper, and Kurt Schick)이다.

두 권의 차례를 살펴보면 작문 교육은 보다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의 책에 8개의 접근 방식에서 2001년도에 12개의 접근 방식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각각의 책에 있는 장별 목차이다.

한다.

- 6) Background, Exhibits, Argument, Method가 될 만한 4개 이상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고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참 고자료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글쓰기 교수법의 8가지 접근
(1980)』

1. 과정으로서 글쓰기
2. 신문 모델 접근
3. 경험주의적 접근
4. 수사학적 접근
5. 인식적 접근
6. 기본 글쓰기 접근
7. 글쓰기 협의 접근
8. 종합적 커리큘럼으로서의 글쓰기

『글쓰기 교육에 대한 안내(2001)』

1. 과정 교수법
2. 표현적 교수법
3. 수사학적 교수법
4. 협력적 교수법
5. 문화연구와 글쓰기 교수법
6. 비판적 교수법
7. 페미니즘 교수법
8. 사회봉사 교수법
9. 범교과글쓰기 교수법
10. 글쓰기센터 교수법
11. 학술적 배경: 기본글쓰기 교수법
12. 기술과 글쓰기 교수법

- 중요한 사실은 작문 교육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을 통한 협력 학습을 중시하는 교수법은 중요한 모델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1980년 책에서는 ‘글쓰기 협의 접근(The Writing Conference)’이라고 불렀던 것이 2001년에는 ‘협력적 교수법(Collaborate Pedagogy)’으로 이름만 약간 바뀌었을 뿐임.)

- 워크숍 모델이 글쓰기 교육의 주요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독자로서나 필자로서 다음과 같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Rebecca Rule(1993)).

1)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로서의 학생들이 얻는 교육적 효과

- ① 글(전문 저자 & 동료 학생)을 읽으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와 글쓰기 기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음. 특히 학생 글이 다른 학생에게 영감을 주게 되는데, 이는 수준이 유사해서 바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기량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워크숍에서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글이 검토되면 점점 더 이런 배움의 폭이 넓어지게 됨.
- ② 워크숍을 통해 글 쓰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상승함. 글쓰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통이 필요함을 알게 됨.
- ③ 독자인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글쓰기와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함. 다른 사람의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내 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어 그 글이 나보다 어떤 점에서 낮고 어떤 점에서 모자라는지 확인하게 됨. 다른 사람 글을 평가하면서 획득한 객관성은 곧바로 내 글에도 적용되어 내 글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함.

④ 워크숍을 통해 좋은 글이 어떤 것인지 표준을 확립하게 됨. 워크숍에서 다양한 글을 읽고 검토하면서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를 점차 깨닫게 되기 때문에 좋은 글의 표준이 형성되는 것임. 좋은 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학생들은 이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위한 팁을 찾을 수 있음.

2)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저자로서의 학생들이 얻는 교육적 효과

①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독자를 의식하게 됨. 수강자 전원이 내 글을 집중해서 읽고 평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 독자를 의식해서 글을 쓰는 마인드가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됨.

② 의견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증대함. 저자인 학생이 자기 글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특히 단점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자인 학생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에 대해 말하게 하고 독자인 학생들에게도 그 글의 장점을 지적하도록 하면 워크숍의 교육 효과는 더 커짐.

③ 자기 글에 대한 객관적 거리가 확보됨.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다보면 저자인 학생과 글 사이에 적절한 간격이 확보됨. 즉 객관적으로 자기 글을 보게 됨으로써 고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 글을 보고 평가하여 개선할 가능성이 생김.

나. 워크숍 프로그램의 기본 전략 : 글의 장점 극대화

1) 글쓰기 강좌의 목표

이론 이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글쓰기 실천 연습을 통해 비판적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글을 통해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 목표임.

2) 워크숍 프로그램의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피드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렇지만 과다한 수강생 수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피드백의 빈도를 높일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는 수업 과정 중에 실제적인 피드백 효과를 얻는 데 적절한 현실적 프로그램임.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게 됨. 워크숍은 결국 서로가 독자로서 저자의 장점을 격려하고 글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제안도 함으로써 서로의 글쓰기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저자로서의 학생은 자기 글을 완성하기 전에 글을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이런 독자들의 의견을 활용하여 더 나은 글을 작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음.

3) 워크숍 프로그램의 기본 전략

학생 글의 좋은 점을 알려줘서 저자로서 발전하도록 하는 데 있음. 이때 중요한 것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글을 쓰고 싶은 동기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임. 물론 학생들이 자기 글의 어느 부

분이 문제인지 워크숍을 통해 알 필요가 있으나 가치 없는 비판을 통해 글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님.

4) 주의 사항

- ① 저자이며 독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글 읽기 및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② 워크숍을 글 하나 하나를 완벽한 글로 개선하기 위한 모임이라 생각하는 것은 단견임.
- ③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워크숍은 읽기와 쓰기에 대해 서로 배우는 모임이 되어야 함.
- ④ 이런 관점에 서면 워크숍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자기 글이 나름대로 가치 있다는 믿음을 학생이 갖게 되어, 글을 또 쓰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임. 그래서 워크숍 프로그램의 목표는 저자인 학생 본인도 자기 글에서 좋은 점인지 발견하게 하고, 또 독자인 학생들도 이 글의 어느 부분이 왜 좋은지 논의하게 하는 것임. 실망하게 하는 것은 쉽지만 격려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함.

다. 모듈 선택 1 : 규모에 따른 분류 -반 전체 / 모듈별

- ◆ 워크숍은 규모에 따라 반 전체 워크숍과 모듈별 워크숍으로 나눌 수 있음. 교육 목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접근해야 함.

1) 반 전체 워크숍

① 특징과 주의사항

전체 워크숍의 가장 큰 약점은 모든 학생이 매번 다 발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임. 특히 학기 초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발언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분위기가 경직될 수 있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이상적으로는 학기 말까지는 가장 소극적인 학생까지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누가 몇 번 발언했는지를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② 반 전체 글쓰기 워크숍 진행을 위한 준비 과정

- 최소한 워크숍 3일 전까지 발표할 글이 제출되어야 함.
- 참여 학생들은 이 발표문에 각자 표시를 해야 함. 잘 쓴 곳, 문제가 되는 부분,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표시하고 여백에 이와 관련된 자신의 평가를 메모함.
- 발표자는 워크숍에서 글을 읽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지며 반 학생들은 대답함.
- 교수자는 워크숍 참여자 중 단지 한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함. 먼저 발언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하고, 발언의 횟수나 양도 워크숍의 다른 학생 구성원보다 많아서는 안 됨. 워크숍이 잘 진행 되면 교수자는 아예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음.

③ 교수자가 워크숍에 참여하는 세 가지 방식

- 발표자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너의 질문이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통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환기시킴.
- 학생이 자기 글을 발표할 때 자기 글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지적할 수 있도록 환기시킴. 또한 특정 부분의 접근이나 기량을 강조하면서 왜 이 글이 좋은 글인지 설명하게 함.
- “여러분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식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종합함.
- ⇒ 이처럼 교수자는 워크숍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자이긴 하지만 지배하는 참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 워크숍의 목표와는 맞지 않게 발표된 글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 일색으로 진행되거나 글 전체를 새로 구성하라는 제안들이 나올 때에는 이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발표자는 이런 제안에는 마음을 열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제안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모듈 별 워크숍

① 특징과 주의사항

- 반 전체 워크숍에 비해 모듈별 워크숍은 학생들이 서로 밀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잘못 운영되면 논의의 진전 없이 느슨하게 시간만 때우거나, 한두 명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소극적 방관자나 무임 승차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교수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짧은 발언을 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나, 모듈별 워크숍에서는 관리도 포기해야 함. 모든 모듈을 혼자서 다 관리할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특정 모듈에만 참여하면 그 모듈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정 모듈에 교수자가 참여하면 그 모듈 구성원들은 교수자를 의식하여 자유롭게 논의하지 못하거나 교수자의 발언에 신경을 쓰면서 말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모듈에서 필요할 경우 교수자를 잠시 초대할 수 있다는 정도만 조건을 달고, 초대하지 않을 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음.

② 교수자가 모듈을 만들 때 고려할 사항

- 한 모듈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가?
- 학기 내내 같은 구성원으로 모듈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 중간 새로 모듈을 만들 것인가?
- 교수자가 모듈을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 만들게 할 것인가?
- 교수자가 만들 경우, 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한 모듈에 포함시켜서 모듈들 사이에는 능력 차가 있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모듈들끼리 능력이 비슷하도록 구성원을 안배할 것인가?
- 한 글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세히 다루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듈 구성원 모두의 글을 다루기 위해 글 하나를 다루는 시간은 줄일 것인가?
- 모듈에서 부르면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자율적으로 놓아둘 것인가?
- ⇒ 이런 사항들에 대해 교수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면서 학생 각자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게 만드는 것이다.

③ 모듈별 글쓰기 워크숍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

- 글 쓴 학생(발표자)이 먼저 발언함. 발표자에게 우선권이 있음.
-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함. 내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 해서 그 생각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일단 다른 학생의 발언을 다 들으면서 기록한 다음 정리해보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발언함.
- 정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제시해야 함. 비판하기 전에 내가 하는 지적이 발표한 학생의 글이 더 나아지는 데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함.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적해야 함.
- 글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함. 글 쓴 학생의 설명을 들은 다음, 그 학생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을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함.

④ 모듈별 글쓰기 워크숍에서 피해야 할 사항

-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
- 나쁜 점을 지적하는 부정적 비판만 하는 것
- 글쓴이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혹은 글쓴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잘 썼다”, “완벽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 저자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 글을 다 읽지 않고 평가하는 것

3) 반 전체 워크숍과 모듈별 워크숍 배치 방법

- 교수자가 어떤 모델의 워크숍을 택하느냐에 따라 배치는 다양해짐.
 - 강의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교수자가 면밀히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
- 예> 전체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글을 평가하는지 배우고 이를 조별 워크숍에 적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경우, 전체 워크숍을 학기 초에 먼저하고 나중에 조별 워크숍을 배치함.

라. 모듈 선택 2 : 목적에 따른 분류 - 읽기 중심/쓰기 중심/ 쟁점 토론

◆ 워크숍은 목적에 따라서 읽기 중심/쓰기 중심/ 쟁점 토론의 세 모델로 나눌 수 있다.

1) 읽기 중심 워크숍

가) 특징과 주의사항

- ① 유능한 필자되기: “쓰기는 쓰기를 통해 드러난다(Writing emerges from writing)”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쓰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되새겨봄으로써 유능한 필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쓰기에 대한 잦은 연습과 함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고무시키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도록 해준다.
- ② 읽기의 중요성: 읽기 중심 워크숍은 주로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으며, 필요할 경우 주체적인 독해를 위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해하고 평가한 내용을 글로 써보는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는 텍스트 중심이기 때문에 ‘읽기 중심’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나) 읽기 중심 워크숍의 세 유형

- ① 분석적 이해 중심
- ② 요약문 작성
- ③ 비판적 평가 중심

다) 유형 1: 분석적 이해 중심 워크숍

- ① 목표: 정해진 텍스트를 읽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주된 목표임.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로 읽게 되는 이론적 텍스트의 경우 분석적 이해는 보통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짐.
- ② 특징: 분석적 이해 중심 워크숍은 3단계에 속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을 단계적으로 던져주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논의를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함.

단계	목표와 특징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텍스트 전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 특징: 핵심 내용이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사적 글(소설) → 세밀한 부분보다는 전체 줄거리를 잘 잡아내어야 함. · 논증적 글에서는 논증의 뼈대를 잘 골라내야 함. - 논증적 글의 논리적 뼈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자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② 그 문제에 대해 저자가 주장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③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p>* 문제부터 찾아야 그에 대한 결론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이 다루는 문제를 찾는 것이 첫 순서임.</p>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글의 내용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 특징: 내용 파악을 위해 ‘개념’ 요소와 ‘정보’ 요소가 유용하게 활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주요 개념이 무엇이며 그 개념들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제 작업임. 사용되는 개념이 달라지거나 혹은 같은 개념을 쓰더라도 의미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글로 변화하게 됨. ·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다음, 어떤 사실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글의 구체적 내용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음.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심층적 이해 능력 획득하기 - 특징: 이때 ‘목적’, ‘관점’, ‘함축’ 같은 요소가 의미 있게 작동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자의 목적 확인: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저자의 목적을 확인해야 함. ② 저자가 전제하는 관점 분석의 필요성: 대체로 저자는 자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텍스트 내용 안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글을 씀. 그래서 저자의 관점은 글의 숨은 전제로 작용함. ③ 함축에 대한 이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야 함. 함축이란 숨은 결론, 드러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주장, 글의 속 뜻을 말함. ④ 목적, 관점, 함축의 비명시성과 맥락 파악의 중요성: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목적, 관점, 함축을 확인하려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p>* 문제에서 함축에 이르는 요소들이, 드러나 있건 숨어 있건 텍스트 안에 있는 요소라면, 함축은 텍스트 밖에 있는 요소임. 글의 저자, 집필 상황, 염두에 두었던 독자 등이 바로 맥락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임.</p>

라) 유형 2: 요약문 작성 워크숍

- ① 목표: 분석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요약문을 작성해 보는 훈련을 통해 요약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임. 요약문 작성 워크숍은 개인별로 요약문을 작성한 다음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요약문 작성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
- ② 특징: 요약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잘 골라내는 것임. 글을 제대로 이해하여 핵심 내용만 간추릴 능력을 길러야 함. 물론 핵심 내용은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대학에서 주로 보게 되는 이론적인 책의 경우에는 글의 논리적 뼈대를 잘 골라내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분석적 이해의 1단계, 즉 <문제-결론-근거>를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함. 실제 요약문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굳이 밝힐 필요 없이 결론과 근거만 보여줄 수도 있음. 그러나 문제부터 찾아야 그에 대한 결론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이 다루는 문제를 찾는 것이 먼저임.

마) 유형 3: 비판적 평가 중심 워크숍

- ① 목표: 텍스트를 이해에서 더 나아가 비판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평가자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함. 그러나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서 있건 꼭 적용해 보아야 할 필수적인 평가 기준들도 있음.
- ② 특징: 비판적 평가 중심 워크숍은 아래에 제시된 기준들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의 주장과 구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해 봄으로써 비판적 평가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③ 텍스트 자체 문제점에 대한 평가의 필수적 3단계

단계	목표와 특징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기 - 특징: ‘분명함’과 ‘명료함’은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틀려도 명료한 주장이 불명료한 주장보다는 나음. 틀린 주장이라도 명료하다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겠지만 애매하거나 모호하다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애매함은 다의성을 말함. 이것 아니면 저것인데 어느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명함의 반대에 해당함. 반면 모호함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서 명료함의 반대에 해당함.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주장 내용의 ‘정확성’ 따져 보기 - 특징: 주장 내용의 ‘정확성’을 따져 보는 것은, 주장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 보는 일임. 무슨 뜻인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내용이 거짓일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 참, 거짓을 가리기 힘들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볼 수도 있음.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적절성’을 따지며 평가하기 - 특징: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은, 뜻도 잘 전달되고 내용도 참이지만 맥락에 맞지 않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보는 것임. <p>예1>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 삼는 상황에서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면 적절한 결론이라 할 수 없음.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임.</p> <p>예2> 외계인이 과연 존재하는지 따지는데 사람들이 모두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적절한 주장이 될 수 없음. 사람들의 믿음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이처럼 주어진 논증에서 결론이나 근거가 적절한지 따지는 것은 비판적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임.</p>

④ 세밀한 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타 기준들

중요성부터 공정성까지의 기준들은 문제없이 제대로 된 논증적 글을 쓰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특성들임. 달리 말해 이 기준들은 항상 만족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준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시켰다고 해서 좋은 글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힘들고 단지 잘못된 글은 아니라는 평가만 받게 됨. 반면에 이 기준을 어긴 경우가 있다면 잘못된 글로 비판 받게 될 것임. 이와 달리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평가 기준	특징
중요성	‘중요성’ 따지기: 아무리 적절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내용만 담고 있다면 비판 받아야 한다.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충분성	‘충분성’ 따지기: 논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다 고려되었는지, 필요한 근거가 다 제시되었는지 평가함.
논리성 (일관성)	‘논리성(일관성)’ 따지기: 앞 뒤 흐트러짐 없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글은 비판 받아야 함. 앞 뒤 모순된 내용이 있다든지, 혹은 글을 전개하면서 논지가 달라진다면 하게 되면 논증적 글의 기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됨.
공정성 (객관성)	‘공정성(객관성)’ 따지기: 자신에게만 유리한 주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함. 반대 입장을 가진 독자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낸다면 공정성은 충분히 만족될 수 있음.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	필수적인 강제 조건은 아니지만 만족했을 경우 좋은 글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들임.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훌륭한 글로 평가받게 됨.

2.) 쓰기 중심 워크숍

- 쓰기 중심 워크숍은 글쓰기 워크숍의 대표적인 형태임.
- 앞서 논의한 규모에 따른 분류도 모두 쓰기 중심 워크숍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 것임.
- 쓰기 중심 워크숍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위 모듈을 구성할 수 있으나 글쓰기 과정의 적용 범위 따라 나누는 것이 유용함.

가) 글쓰기 과정의 적용 범위에 따른 유형

쓰기 중심 워크숍은 워크숍이 글쓰기 과정의 어떤 단계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글쓰기 과정 중에서 계획하기, 구성 짜기, 검토하기, 교정하기는 워크숍에서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는 과정들이다.

(1) 계획하기

- ① 협력 학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숍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부분임.
- ② 계획하기 단계는 글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의 수합이 필요함. 이 때문에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동료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료의 잘못된 부분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계획하기 단계에서 협력학습은 글의 테마 정하기, 주제 정하기, 다양한 자료 모으기, 내용 생성하기 모두 가능함.
- ③ 글의 테마나 주제 정하기는 특히 워크숍 모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4~5명의 동료가 한 팀이 되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각자 자신이 쓸 글의 테마와 주제를 결정함. 학생들은 자신이 찾은 자료나 대상 항목을 내놓고 동료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음. 전체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면서 테마와 주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음. 다양한 자료 모으기나 내용 생성은 자료를 그룹 구성원이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가능함.

(2) 구성 짜기

- ① 한 편의 글을 작성하기 위해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구성 짜기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생략할 수는 없음.
- ②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구성 짜기는 개요 작성과 함께 진행됨. 머릿속으로 혹은 메모를 통해 글의 논리적 흐름을 잡아 보는 것이 구성 짜기임. 개요는 간략한 구성표에 내용을 덧붙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③ 워크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글쓰기의 경우 그룹 내의 동료들이 서로 협의하여 하나의 개요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의 구성 흐름을 서로 상의하고 따져보는 모형이 가장 좋음. 모둠 내 동료들이 자신의 동료가 제시하는 구성에 관해 의무적으로 평가와 조언을 해주는 것을 규정으로 삼는다면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3) 검토하기

- ① 검토하기는 완성된 초고를 서로 나누어 검토해 주는 과정임.
- ② 초고의 검토는 주제, 구성, 내용, 형식, 문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대체로 주제나 구성 같은 큰 항목부터 먼저 검토하고 형식이나 문장과 같은 항목은 나중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 ③ 검토하기는 초고 상태에서 글의 전반적인 측면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저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음. 따라서 검토하기 워크숍은 시간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폭넓게 검토자와 저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함.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저자의 몫임.

(4) 교정하기

- ① 교정하기는 글을 제출하기 마지막 단계에 하는 작업임.
- ② 잘 아는 동료와 짝을 이루어 글의 형식과 문장, 어법 등을 서로 교정해 줌, 교정하기는 주로 서로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로 짝이 지워진 동료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나) 읽고 쓰기 워크숍

읽기 중심 워크숍과 쓰기 중심 워크숍을 연계시켜 읽고 쓰기 워크숍을 시행함.

① 사례 1 : 칼럼 읽고 쓰기

방법	신문의 칼럼 2~3편 읽고 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에 접근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는 훈련을 거친 후 글쓰기를 하게 한 다음 그 글을 워크숍에서 다룸.
효과	아이디어가 없어 글을 못 쓰는 학생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문학적 사유를 훈련시키는 출발점으로써의 효과가 있음.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고유의 생각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방법의 효과임.
예시 칼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범, 「임범의 노천카페-아바타를 보다」, 『한겨레신문』, 2010.1.8. - 방귀희, 「영화 <아바타>의 두 가지 의문점」, 『한겨레신문』, 2010.1.10. - 류동민,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것」, 『한겨레신문』, 2010.1.20.
수업 진행 방법	위의 글 세 편을 읽고 이 글들을 발상의 토대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개선하는 글 한 편을 씀. 위의 글들에 대한 분석, 비판, 혹은 다른 제3의 주제를 선정해도 좋음.

② 사례2 : 책 한 권 읽고 쓰기

효과	대학에서는 책 한 권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음. 학생들은 책을 읽은 뒤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관점에 근거해 글쓰기를 하는 방식을 익히게 함.	
예시 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재승·진중권, 『크로스』, 웅진 지식하우스, 2009. - 고미숙,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그린비, 2007. - 고병권 외, 『리영희 프리즘』, 사계절, 2010. - 강상중, 이경덕 역, 『고민하는 힘』, 사계절, 2009. 	
수업 진행 방법	과제 제시하기	예상 독자 결정하기
	예시 서적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자신이	구체적인 대상(필자, 담당교수, 고등학

	어떻게 읽었는지, 저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히는 글을 써 보라는 과제를 제시한 후, 워크숍을 통해 피드백을 해줌. 피드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본(A4 2쪽)을 쓰게 함.	교 선생님, 친구 00)을 설정하여 편지글 형식으로 쓰는 것도 허용), 특히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 권함. 편지글로 먼저 쓰게 한 후, 학술적인 방식의 글로 바꿔 쓰기를 연습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임.
주의 사항		
· 책의 내용만 요약하거나, 자신의 생각에만 근거해 쓰는 것을 ‘읽고 쓰기’라 할 수는 없음. 두 가지가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함. 저자가 쓴 어떤 내용에 대해 연상되는 바(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 영화에서 본 내용, 다른 강의 시간에 들은 내용, 내가 겪은 일 등)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여 쓰는 방식을 훈련시킴. 연관시켜서 쓰는 능력은 종합적 사유를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됨.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수자의 조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책을 읽다가 인용할 부분을 3군데 정도 찾아 두게 함. 각각의 인용마다 인용의 이유를 덧붙여 설명해야 인용이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②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 책을 읽으며 새로이 알게 된 것,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씀. ③ 내가 느끼고 있는 주변의 상황(최근 신문 보도와 관련되는 일, 최근 내 사고의 변화 과정)과 연관시켜서 서술함. ④ 책의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비판함. 		

3) 쟁점 토론 워크숍

글쓰기 강의 중에도 지식 중점 모형을 택했을 경우, 읽은 책을 바탕으로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 쟁점 토론 워크숍을 배치하는 두 가지 방식

- ① 읽기와 쓰기 중간에 배치하기 : 텍스트를 읽은 다음 글을 쓰기 전에 자기 입장을 형성하거나 검토하기 위해 시행함.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토론이 산만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토론 과정 중에 자신의 생각이 정립되기 때문에 쓰기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는 긍정적 기능을 함.
- ② 읽고 쓴 다음에 배치하기 : 읽은 후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정립하여 글을 쓴 다음 시행함. 토론자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이에 대한 근거로 충분히 마련한 뒤이므로 논쟁적 토론이 가능함.

나) 쟁점 토론 워크숍의 유형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고 특정한 형식이 정해진 토론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특정한 형식을 정할 경우 가능한 전형적인 유형은 버즈토론식 워크숍, 패널식 워크숍, 포럼식 워크숍, 심포지엄식 워크숍 등이 있음. 이 유형들을 참고하되 워크숍 진행 순서나 시간 배정은 각 수업에 맞게 변형함.

다) 유형 1 : 버즈토론식 워크숍

① 특성

- ㄱ. 대체로 3~6명으로 구성되는 소집단 토론 방식으로, 한 주제에 대하여 6명씩으로 구성된 각 그룹이 6분 정도 토론한다는 뜻으로 ‘6·6법’이라고도 함. 이 방법은 토론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침체되었거나 수업이 너무 단조로운 경우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단으로 나누어 토론하는 방법임. 대체로 예비토론, 토론 제목의 설정, 학습방법의 설정, 학생 의사 수렴 등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음.
- ㄴ. 버즈토론은 짝과의 토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다른 구성원들과 확대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
- ㄷ. 집단생활 방법을 터득하면서 타인을 이해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가치가 있음.

② 장점 및 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조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발표 시 심리적 긴장감이 적음. ㄴ. 수업 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므로 학습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다른 유형의 토론에 비해 소집단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음. ㄴ. 토론 주제에 벗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우며 학생들이 이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함.

③ 버즈토론 진행 형식

진행 순서	내용	시간
1	소집단 형성	5분
2	토론 주제와 기록자 선출	5분
3	문제 해결 방안 모색	25분
4	소집단에서 합의된 내용 전체 발표	25분
5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10분
6	종합 의견 도출	10분

④ 유의 사항

- ㄱ. 토론의 소재를 설정한 후 교수자나 진행자가 버즈 토론 학습의 특징과 그 의의를 설명함.
- ㄴ. 6명씩 조를 짜서 6분 안에 단기간 토론을 마쳐야 하므로 신속하게 조 편성을 해야 함. 가장 빠른 방법은 좌석별로 편성하는 방법임.
- ㄷ. 각조마다 구성원들이 초면인 경우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바로 기록자와 사회자를 정함.
- ㄹ.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의견 교환 발표를 한 후 기록자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함.
- ㅁ. 각조의 사회자 기록자는 기록한 내용을 전체 진행자에게 보고함.
- ㅂ. 전체 진행자는 보고 받은 내용을 정리하여 전체에게 발표하거나 일반토론으로 유도할 수 있다.

⑤ 참가자의 역할

- ㄱ. 소집단 기록자: 집단 구성원들이 제시한 견해를 기록하고 토론이 끝난 후에 소집단의 견해를 전체에게 알리도록 준비함.
- ㄴ. 소집단의 의장: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함.
- ㄷ. 전체 집단의 진행자: 제한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상태로 다시 모여 합의된 의견을 한 가지씩 발표함.

라) 유형 2: 패널식 워크숍

- ① 특성: 배심토론이라고도 하며 어느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그 입장을 표명하는 대표로서 토론하는 형태임. 8~2명 정도의 배심원을 두고 사회자가 진행하는데 청중들은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상정함.

② 패널식 토론 진행 방식

발언 순서	내용	시간
1	사회자: 주제, 토론자, 진행 소개	3분

2	찬성측 기초 발표	7분
3	반대측 기초 발표	7분
4	찬성측 주도 반대측 질의-응답	10분
5	반대측 주도 찬성측에 대한 질의-응답	10분
6	찬성측에 대한 청중 질의	5분
7	반대측에 대한 청중 질의	5분
8	양측 입장 정리	5분
9	반대측 마무리 발언	5분
10	찬성측 마무리 발언	5분
11	토론 평가 및 정리	10분

③ 참가자의 역할

- ㄱ. 사회자: 미리 논제의 성격, 범위, 방향 등의 윤곽을 알고 있어야 하며 발표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되 공격적이지 않도록 하고 간결·명확해야 하며 청중의 질문을 끝까지 잘 듣고 조리 있게 응답해야 함.
- ㄴ. 청중: 토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 질문함. 손을 들어 사회자의 지명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논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요점만 간추려 질문함.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하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을 허용함.

④ 유의 사항

- ㄱ. 집단 구성원이 많아서 각 학생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기가 곤란할 때 사용함.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한 후 특정 문제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 다음 학급 전체가 토론을 벌이도록 함.
- ㄴ. 토론이 끝난 후 교수자는 의견을 조정하기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음.
예> 역할 놀이 형식의 토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제로 토론을 하면, 가상의 강주변의 주민 대표, 환경 단체, 정부 관계자로 패널을 선정하여 역할 놀이 형식으로 토론할 수 있음.
- ㄷ. 패널 토론은 청중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토론이 진행 중일 때나 정리할 때에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이 개진되어야 함. 이 때 청중은 학생이므로 일반 학생이 토론에 참여하게 됨.

마) 유형3: 포럼식 워크숍

① 특성

- ㄱ. 포럼은 로마 시대의 재판이나 공공 문제에 대하여 공개 토론을 했던 광장의 의미에서 유래함.

- ㄴ. 포럼 토론은 대표자에 의한 토론 또는 강의가 끝난 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형태이며,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음. 서로 상충되는 입장에서 논의가 시작되며 청중과 토론자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의 한 형태임.
- ㄷ. 1-3인 정도의 전문가나 자원인사가 10~20분간 공개적인 연설을 한 다음 이를 중심으로 청중과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함.
- ㄹ.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청중이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 발표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받으면서 토론이 진행된다는 점임. 수업에서는 몇 명이 주제 발표를 한 다음, 발표 학생과 나머지 학생들 사이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교수자는 토론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함.
- ㅁ. 패널과 다른 점은 형식과 각자의 발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포럼 토론의 장점임.

② 포럼 토론 진행 방식

진행 순서	내용	시간
1	의제 소개	5분
2	발표자 1 발표	10분
3	발표자 2 발표	10분
4	발표자 3 발표	10분
5	청중과 토론자의 질의응답	25분
6	종합 의견 도출	10분

③ 참가자의 역할

- ㄱ. 토론자: 문제의 핵심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발표하고,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청중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함.
- ㄴ. 사회자: 발표 내용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하며 토론 내용을 잘 듣고 요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요약해주어야 함.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도록 이끌고 시간 조절도 잘 해야 함. 침예한 대립 양상이 심화되거나 의견 대립이 심각할 때는 서면 질의를 유도할 수도 있음.
- ㄷ. 청중: 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 하며 질문은 길게 하거나 질문이 또 하나의 다른 발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④ 유의 사항

- ㄱ. 주로 시사성이 있는 내용을 소재로 하며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때 이 방식을 택함.
- ㄴ. 서로 상반된 견해를 하나로 통일시키거나 승패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함. 즉 찬반이 가능한 주제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함.

바) 유형4: 심포지엄식 워크숍

① 특성

- ㄱ. 심포지엄이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에 기원을 둔 담화 또는 좌담 형식의 토론으로서 어떤 주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교양인의 모임이라는 뜻을 지님.
- ㄴ. 토론 주제에 대한 권위 있는 전문가 몇 명이 각기 다른 의견을 공식 발표한 후, 이를 중심으로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임.
- ㄷ. 심포지엄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한 전문가와 사회자, 청중 모두가 특정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인문사회 계열 수업의 경우, 특정 전문 지식에 적용할 수 있는 토론임.

② 수업에의 적용

- ㄱ. 발표자: 예를 들어 ‘한·중·일 화폐 통합’에 대해 토론을 한다면, 여러 명의 발표자가 논제에 대해 각기 다른 발표를 한 후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데, 발표자는 발표 주제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를 해야 하며 강연식으로 발표하면서 청중을 설득해야 함.
- ㄴ. 교수자: 교수자는 4~5명의 조를 편성한 후 조별로 공동 연구하고 각조에서 대표가 발표하도록 함. 연구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주고, 조에서 나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함.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청중의 성의 있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함으로써 집단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함.

③ 심포지엄 토론 진행 방식

진행 순서	내용	시간
1	의제 및 발표자 소개	5분
2	발표자 1 발표	10분
3	발표자 2, 3 의 질문	5분
4	발표자 2 발표	10분
5	발표자 1, 3의 질문	5분
6	발표자 3 발표	10분
7	발표자 1, 2의 질문	5분
8	사회자 발표내용 요약 및 정리	5분
9	청중과 토론자의 질의응답	15분
10	종합 의견 도출	10분

④ 참가자의 역할

- ㄱ. 사회자: 논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발표자를 선정해야 함. 청중에게 발표 내용과 발표자를

미리 소개하고 참고 서적까지 알려줌. 발표가 끝날 때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이전의 발표 내용과의 관계점도 정리해 줌.

- ㄴ. 청중: 질문이나 발언은 짧게 함.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듣고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을 질문함.

사. 토론: 토론 수업으로서의 워크숍

- 모든 워크숍 활동은 기본적으로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토론 수업의 특징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 수업의 특징과 진행 단계를 정리해 보겠다.

1) 토론 수업의 특징

가) 교수자의 질문

(1) 주의 사항

- ① 토론 수업에서는 교수자는 토론을 주도하거나 학생들의 진술이나 발언에 대한 판단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토론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② 학생들을 토론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발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발문에만 의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교수자가 수업 토론을 질의-응답식으로 하려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수업으로 진행되어 재치형 답변이 나오는 수업으로 변질되기 쉽다. 이런 교수자의 질문은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지도 못하고 참여를 촉진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학생들의 생각을 침체시킬 수 있다.
- ③ 교수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질문을 윤색하고 교정해주며 학생들 상호간에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이 방향이 크게 어긋났을 때만 개입해야 하며 교수의 개입은 학생들 상호간의 작용을 촉진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참여를 권장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2) 토론 수업에서 교수가 활용할 수 있는 진술 형태

① 선언적 진술

- 특징: 발언자가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생각난 것을 진술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발언자가 “A의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후, 자신은 B의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B

의 경우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때 진술은 발언자가 말한 것을 반드시 반대하는 것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보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성격의 진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발언자의 내용과 관련하여 내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이런 발언은 질문이 말로 정확히 구성되기 전에 떠오르는 질문 전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② 반영적 진술

- 특징: 발언자가 지금 말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짚막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진술하는 방식이다. 반영적 진술 방식은 발언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과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중요한 점을 특화하는 방식이 있다. 반영적 재진술은 발언자나 다른 토론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발언자에게는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다는 확신을 주며, 발언자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결과적으로 토론 참여를 북돋우고 추상적 의미가 아닌 실제적 의미의 토론을 촉진한다.

③ 심리상태에 대한 진술

- 특징: 발언자가 방금 말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진술 방식이다. 만약 자신이 다른 생각을 했다가 멍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와 같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진술하게 나타내는 발언이다. 그러면 발언자는 상대의 진정한 마음에 대해 반응하고 토론은 진지하게 전개된다.

④ 흥미 유도 진술

- 특징: 발언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 무엇이든지 더 듣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의 그러한 관점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라든가 “제 생각에 당신을 계속해서 A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며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⑤ 다른 발언자와 연관 짓기

- 특징: 한 발언자와 다른 발언자의 내용을 연관지어면서 그들이 말한 내용의 관계를 진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A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발언자 1은 A가 있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경우지요?”라고 하면 두 발언자는 혹시 어떤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보기 위해 자신의 발언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그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이다.

⑥ 자기 보고

- 특징: 주어진 논제에 관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느낌을 표현하는 식으로 견해를 설명하는 진술 방법이다. 자기 보고라 해서 은밀한 문제에 대한 사적 노출일 필요가 없으며 토론 중에 있는 학술적인 것이나 다른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관한 것을 진술하면 된다.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진술은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이라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진한다.

⑦ 기타 토론 수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법들

- 발표한 내용을 잘 다듬도록 권유한다. 토론 중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흔히 그러한 제안에 의해 고무된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자신이 제안한 발표내용에 대해 지지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학습 구성원들간의 질문을 권장한다. 또한 학생들이 교수자를 상대로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 학생들을 토론에 참여시킨다. 교수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예를 들면, “OOO 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보다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참여의식이 낮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 침묵을 지키는 시간을 주도록 배려한다. 침묵은 학습자들에게 교과 내용에 대해 숙고하도록 해준다. 토론 수업 중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침묵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종종 필요하다.
- 어렵고 난처한 점을 지적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렵고 곤란한 점을 알려주면, 학습자들은 종종 여러 가지 제안과 해결점을 제시하도록 고무된다.

나) 학습자의 질문

토론 수업 목표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자문자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고무시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교과 내용에서 예외적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하고 제기된 다른 관점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자문자답은 학습자들의 독자적인 학습을 촉진한다. 각각의 질문은 대답을 낳으며, 각각의 답은 새로운 의문을 야기한다. 끈기 있게 눈에 보이지 않은 자문자답을 추구하는 능력의 배양이야말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1) 발언자의 질문

발언자로 하여금 지금 말한 내용이나,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해보도록 한다.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말하려고 하는 발언자는 마음 속에서 혼동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질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2) 다른 참여자들의 질문

다른 참여자가 발언자의 발언이나 토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언자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한 후 발언자 혹은 교수자는 잠시 시간을 주면서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유도한다. 또한 발언자의 발언 이전에 특정인을 지정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3) 집단 질문

토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집단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이다. 한 발언자가 결론적으로 “A의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거나, 몇몇 발언자가 A나 B, 혹은 C가 있다고 결론지었다면 이 시점에서 교수자는 토론을 위한 질문을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검증해야 할 문제는 A의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다. 흥미로운 관점이다”라고 말하며 질문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수자는 질문을 확인하고 형성하며, 질문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함께 숙고하면서 어떤 것이 학생들이 토론해야 할 쟁점인지 결정하도록 돕는다.

2) 토론 수업의 단계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다른 주제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토론해야 하는지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

가) 1단계

- ◆ 토론을 위한 사전 토론 활동으로 토론 참가자들과 함께 한다.
 - 토론의 목적을 정한다.
 - 토론의 범위나 절차를 계획한다.
 - 좌석 배치 등 물리적 환경을 점검한다.
 - 필요한 토론 사항을 정리한다.
 - 참여자들에게 토론 절차와 방법을 알려준다.
 - 사전 토론에서 얻은 결론을 토론 절차에 넣는다.
 - 관찰해야 할 기본 규칙과 사안을 세운다.

-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다.

나) 2단계

- ◆ 토론이 시작되는 도입 단계로서 성공적인 토론으로 이끄는 역할이 중요하다.
 - 토론의 논제를 명확히 제시한다.
 - 토론의 목적을 설명한다.
 - 관찰해야 할 기본 규칙과 사안을 제시한다.
 - 토론해야 할 사항들을 고지한다.
 - 참여자들로 하여금 토론 주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자극한다.
 - 세부적인 절차와 형식에 따라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
 - 질문 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 토론을 잘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알려준다.
 - 토론 과정에서 거론된 중요한 사항을 기록해 둔다.

다) 3단계

- ◆ 토론이 종결되는 단계로서 토론과정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는 단계이다.
 - 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을 요약한다.
 - 가능하면 거론된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타당성 있다고 여겨지는 결론을 도출한다.
 - 계획했던 토론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한다.
 - 다음 단계에서 할 일들을 계획한다.
 - 필요한 경우, 주어진 목적, 결론 등 이미 다루어 온 내용들을 기록해 둔다.

라) 4단계

- ◆ 토론 후 활동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토론 수업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이다.
 - 참가자들의 토론 결과를 요약한 후 정리하여 배포한다.
 - 발표자들에게 토론 활동에 대한 느낌을 말 할 기회를 준다.
 - 참여자들이 시간 관계 상 못 다한 이야기를 인터넷 게시판 통해 글로 작성하도록 한다.
 - 토론 참여자들에게 A4 용지 1~2장 이내로 토론 후기를 제출하도록 한다.

VI. 강의 프로그램 구성

1. 읽기 중심 모형

가. 수업 개요

1) 수업 계획

가) 강의 개요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읽고 이를 쓰기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학생들은 설명적 텍스트에서 논리적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텍스트에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분석적, 비판적 읽기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혼자서 읽기, 협동해서 읽기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쓰기와 연결시킴으로써 읽기를 통한 쓰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힐 것이다. 교수자는 이 과정에서 읽기를 통한 쓰기라는 강좌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개입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 강의 목적

이 수업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읽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수업에서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읽기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의 읽기 쓰기 능력은 모든 학문 영역의 학습과 연구 수행에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에 본 교과목은 읽기와 쓰기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습 및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로 진출한 이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강 자격

대학교 1학년생 및 글쓰기 미이수자

라) 읽기 자료

- ① 축구에 대해 설명한 백과사전 자료 2편
- ② 김용석 「회전문의 기만」, 『일상의 발견』, 푸른숲, 2002.
- ③ 에밀 졸라의 선언문(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유기환 옮김, 책세상, 2005.)
- ④ 남경태, 「가상현실」, 『개념어사전』개정판, 휴머니스트, 2012.
- ⑤ 우석훈, 「공간을 다루는 법 : 걷고 싶은 거리? 굽고 싶은 거리」, 『나와 너의 사회 과학』, 김영사, 2011.
- ⑥ 한운형·최태섭·김정근, 「박카스 권하는 사회」,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2011.
- ⑦ 고미숙, 「돈은 '내 운명' :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 그린비, 2010.
- ⑧ 마이클 센델, 안기순 옮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2012.

마) 주요 과제

① 읽기를 통한 쓰기 1-설명적 글쓰기(10%)

- 과제의 목표: 읽기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연결, 조직, 재구성하면서 설명글을 쓴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읽기를 통한 쓰기 2-분석적 글쓰기(15%)

- 과제의 목표: 텍스트 독해를 위한 다섯 가지 접근법을 활용해서 분석적 읽기-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③ 읽기를 통한 쓰기 3-비판적 글쓰기(20%)

- 과제의 목표: 향상된 분석적 읽기-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정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④ 한 학기를 정리하는 성찰적 글쓰기(5%:)

- 과제의 목표: 전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성취한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 또한 읽기-쓰기 통합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더 익힐 것인지 생각해 본다.

바) 텍스트 작성법

① 초고와 다시 쓰기

② 글쓰기 평가 기준

ㄱ. 문장, 표현의 정확성

ㄴ. 구성의 적합성, 완결성

ㄷ. 내용(근거)의 타당성과 풍부성

ㄹ. 주제의 일관성

ㅁ. 사유의 독창성

(⇒ 각 글의 특성에 따라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평가 기준이 선택됨)

사) 평가 방법

* 성적 평가: 글쓰기(50%) 출석(10%) 중간시험(20%), 평소학습(10%: 상호평가 및 조언, 토론학습 참여 등), 요약과제(10%)

* 글쓰기 점수 배분 기준(50%)

① 읽기를 통한 쓰기 1-설명적 글쓰기(10%) ② 읽기를 통한 쓰기 2-분석적 글쓰기(15%)

③ 읽기를 통한 쓰기 3-비판적 글쓰기(20%) ④ 한 학기를 정리하는 성찰적 글쓰기(5%)

아) 수업 진행 방법

- ① 텍스트에 대한 읽기 능력을 기름으로써 쓰기 능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한다.
- ② 문제 상황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석적,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씀으로써 대학에서 요구되는 글쓰기 능력을 기른다.
- ③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와 참고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연구 과정을 거친 글을 쓰는 것을 수업의 최종 목표로 삼는다.
- ④ 이를 위해 강의, 교재 강독, 실습, 글쓰기, 발표 및 토론, 개별 강평, 전체 강평, 상호 평가 등을 병행한다.

자) 주의 사항

- 지각, 결석은 성적에 반영한다.
- 과제 제출 기한을 지킨다.
- 표절 시 0점 처리한다.

2) 읽기-쓰기 수업 일정표

가) 참고 사항

- ① 여기서는 비판적 문식력을 기를 수 있는 다섯 가지 텍스트 접근법을 제안한 존 피터의 읽기 중심 모형을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이 모형은 정서적 관점, 윤리적 관점, 수사학적 관점, 논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라는 다섯 가지 관점에 따라 텍스트 읽기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동적인 읽기를 체득할 수 있게 한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 강좌의 구성 요소 2) 읽기 중심 요소'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 다섯 가지 관점에 따라 텍스트 읽기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은 능동적인 읽기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② 이 읽기 중심 모형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법을 활용한다. 질문법은 수업 계획서 아래에 수업 자료로 첨부되어 있으므로 교수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이 읽기 중심 모형은 읽기를 통한 쓰기 수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요약을 통한 설명적 글쓰기, 다섯 가지 접근법을 활용한 분석적 글쓰기, 다섯 가지 접근법을 활용한 비판적 글쓰기의 순서로 수업이 진행된다.

나. 수업 일정표

주	교시	수업내용	과제	비고
1주	1	1. 강의 소개-읽기를 통한 쓰기 수업의 의미와 가치 & 수업 진행 방식 안내	[과제1]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중 가장 좋은 책 한 편을 정해보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 적어오기(분량	

			1,000자 이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연계 활동 - 모둠별로 과제 돌려 읽기 - 모둠별로 가장 좋은 글 한 편씩 정해서 발표하기 <p><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1-설명적 글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어진 2편의 읽기 자료 독해하기 (축구에 대한 읽기 자료) (* 자료 1 별첨) 2. 설명 대상 선택하기 3. 초고의 개요 준비하기 		
2주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초고 개요 쓰기와 초고 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 듣기 5. 초고의 개요 짜기 6. 모둠별로 초고의 개요에 대한 의견 나누기 7. 의견 반영해서 초고의 개요 수정하기 8. 읽기 자료를 참조하면서 초고 쓰기 	[과제2] 초고 완성해 오기	*제출: 완성한 초고- 2주 2차시수업에 가져오기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모둠별로 초고에 대한 의견 나누기 10. 초고에 대한 교수자의 조언 받기 	[과제3] 재고 완성해 오기	*제출: 완성한 재고 - 3주1차시수업 에 가져오기
3주	1	<p style="text-align: center;"><기초적인 읽기 활동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읽기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자료: 칼럼(김용석, 「회전문의 기만」, 『일상의 발견』, 푸른숲, 2002.) - 제목을 통해 내용과 주제 짐작하기 - 모둠별 의견 나누기 2. 읽는 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내용에 밑줄 그으며 읽기 - 내가 짐작한 내용과의 유사점/차이점 표시하면서 읽기 3. 읽은 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읽는 중 활동의 결과 나누기 - 칼럼에 대한 소감/의견 적기 		
	2	<p><능동적인 읽기를 위 다섯 가지 접근법 익히기></p> <p style="text-align: center;">(* 활동지 배포: 자료2 별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통해 정서적 접근 방법 익히기 - 정서적 관점으로 칼럼 「회전문의 기만」 분석하기 - 모둠별로 활동 결과 나누기 &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내 관점 확장하기 <p>2.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통해 윤리적 접근 방법 익히기 - 윤리적 관점으로 칼럼 「회전문의 기만」 분석하기 - 모둠별로 활동 결과 나누기 &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내 관점 확장하기 		
4주	1	<p>3. 수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통해 수사학적 접근 방법 익히기 - 수사학적 관점으로 칼럼 「회전문의 기만」 분석하기 - 모둠별로 활동 결과 나누기 &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내 관점 확장하기 <p>4. 논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통해 논리적 접근 방법 익히기 - 논리적 관점으로 칼럼 「회전문의 기만」 분석하기 - 모둠별로 활동 결과 나누기 &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내 관점 확장하기 		
	2	<p>5.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통해 사회적 접근 방법 익히기 - 사회적 관점으로 칼럼 「회전문의 기만」 분석하기 - 모둠별로 활동 결과 나누기 &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내 관점 확장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 다섯 가지 관점 적용 훈련과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분석적 글쓰기 ></p> <p>1. 각 관점 적용해보기</p>	<p>[과제4] 다섯 가지 관점 중 칼럼 「회전문의 기만」에 접근하는데 적합한 관점을 선택, 통합하여 칼럼에 대한 평가글쓰기(초고 쓰기)</p>	<p>*제출: 완성한 초고- 5주 1차시 수업에 가져오기</p>

		2. 관점 2, 3개 선택해서 통합적으로 적용해보기		
5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연계 활동 - 과제로 해 온 평가글과 3주 1차시 수업에서 한 '칼럼에 대한 소감/의견 적기' 활동에서 적은 내용과 비교해 보고 향상된 점 표시하기 - 모둠별 우수 글 추천 & 발표 <p><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분석적 글쓰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글에 대한 조언 받기 2. 재고 쓰기(과제) 	[과제5] 재고 쓰기	*제출: 완성한 재고- 5주 2차시 수업에 가져오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연계 활동 - 재고 제출 -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 경험에 대한 소감과 의견 나누기 <p><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분석적 글쓰기를 위한 요약식 인용 익히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용 및 주석, 참고문헌 작성법 배우기 2. 요약 방법 익히기 <p>* 요약 자료: 우석훈, 「공간을 다루는 법: 걷고 싶은 거리? 굽고 싶은 거리」(『나와 너의 사회 과학』, 김영사, 2011.)</p>		
6주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요약식 인용법(& 각주 달기) 실습 4. 인용과 표절의 차이 알기 <p><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분석적 글쓰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가지 접근법을 활용해 읽기 자료 분석적으로 읽기 - 다섯 가지 접근법 이용해서 「공간을 다루는 법: 걷고 싶은 거리? 굽고 싶은 거리」 분석하기(개인 활동) → 5인 1모둠으로 모여 분석 내용 나누기(모둠 활동) - 모둠원들의 분석을 염두에 두고, 관점을 통합해서 읽기 자료에 재접근함으로써 자료 분석 능력 강화하기(개인 활동) - 모둠별로 다시 모여 서로 나누기 → 나아진 점 찾아서 서로 칭찬하기 		
	2	<p><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 분석적 글쓰기-공간분석 ></p>	[과제6] 자신의 주제에 맞는	* 제출: 참고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약 자료를 통해 내 글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얻기 2. 아이디어에 대한 모둠별 평가활동하기 3. 주제 확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주제 좁히는 방법 활용하기 - 주제에 대한 교수자의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p>참고 자료 목록 만들고 주요 참고 자료 2편 가져오기</p>	<p>목록- 7주 1차시 수업에 가져오기</p>
7주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져온 참고 자료 읽으면서 정보 분석하고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자료 검토해서 주제에 맞는 자료를 구분해 내는 방법 익히기 - 참고 자료에서 인용할 만한 대목 찾아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기 2. 개요 작성해서 교수자에게 상담받기 	<p>[과제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요 완성해 오기 2. 초고에 인용할 내용 2개 확정해서 출전 적어오기 제시 (초고에 인용이 반드시 2개 이상 들어가야 함) 	<p>* 제출: 과제1, 2 - 7주 2차시 수업에 가져오기</p>
	2	<p><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분석적 글쓰기-공간분석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고 쓰기: 분석적 글쓰기-공간분석 	<p>[과제8] 초고 쓰기</p>	<p>* 제출: 완성한 초고- 9주 1차시 수업에 가져오기</p>
8주		중간시험		
9주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초고 상호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기준 정하기 - 상호평가하기 3. 내 글에서 수정할 점 결정하기 4. 내 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추가하기 (과제) 	<p>[과제9]</p> <p>내 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추가해 오기</p>	<p>* 제출: 완성한 자료 목록- 9주 2차시 수업에 가져오기</p>
	2	<p><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분석적 글쓰기-공간분석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 다시 쓰기 2. 모둠별 우수 글 추천 & 발표 3. 참고 문헌 활용(자료 읽기)하며 글을 써 본 소감 나누기 <p><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3: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읽기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을 통해 내용과 주제 짐작하기 - 모듈별 의견 나누기 <p>* 읽기 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윤희·최태섭·김정근, 「박카스 원하는 사회」,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2011. 2) 고미숙, 「돈은 '내 운명' :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의 달인, 호모 코뮌타스』, 그린비, 2010. 		
10주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읽는 중 활동: 텍스트의 의미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을 더 알고 싶은 핵심 용어와 문장을 제공된 활동지에 적으면서 읽기 <p>(* 활동지 배포: 자료 3 별첨)</p>	[과제10] 활동지에 적은 핵심 용어와 문장의 뜻 알아 오기	* 제출: 완성한 활동지- 10주 2차시 수업에 가져오기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읽은 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로 알아온 핵심 용어와 문장의 뜻 나누기 - 교수자-학생간의 전체 토론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 명확하게 이해하기 4. 읽기-쓰기 연계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 열정, 노동'을 핵심어로 삼아 모듈별 브레인스토밍하기 -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 평가하기 - 내 주제 정하기 (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주제 좁히는 방법 활용하기) - 주제에 대한 교수자의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11주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논거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거에 대해 학습하기 	[과제11] 초고에 필요한 참고자료 검토해서 주제에 맞는 자료 확정해오기	* 제출: 완성한 자료 목록- 11주 2차시 수업에 가져오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가지 접근법 활용하여 읽기 자료의 논거 제시 방법 분석하기 - 내 글에 필요한 논거 결정하기 		
12주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인용 내용 정하기 	[과제12]	*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자료에서 인용할 만한 대목 찾아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기 <p>4) 한국 사회 비판적 글쓰기-개요 쓰기</p> <p>① 열정과 노동에 대한 비판글 쓰기를 위한 개요 작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짜기 - 교수자의 조언 받기 <p>② 개요 수정하기</p>	<p>1. 개요 완성해 오기</p> <p>2. 초고에 인용할 내용 2개 확정해서 출전 적어오기</p> <p>제시(초고에 인용이 반드시 2개 이상 들어가야 함)</p>	<p>완성한 과제1, 2-</p> <p>12주 1차시 수업에 가져오기</p>
	2	5) 한국 사회 비판적 글쓰기-초고 쓰기		
13주	1	<p>6) 초고 쓰기 후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평가하기 - 교수자의 조언 받기 - 내 글에서 수정할 점 결정하기 	<p>[과제13]</p> <p>1. 참고 자료 추가하기</p> <p>2. 추가한 참고자료에서 인용할 만한 대목 찾아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기</p>	<p>*제출:</p> <p>과제1,2-</p> <p>13주 2차시 수업에 가져오기</p>
	2	7) 재고 쓰기: 글 다시 쓰기		
14주	1	<p>8) 조원이 쓴 글 읽고 평가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우수 글 1편 추천 & 발표 - 다섯 가지 접근법을 바탕으로 모듬원의 글 2편 평가하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가지 접근법을 바탕으로 모듬원의 글 2편 평가한 내용을 내 글과 비교하면서 글쓰기 <p>9) 읽기-쓰기 통합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와 쓰기가 연계되는 방식을 알게 된 후 자기가 변화된 점 말하기(읽기 방식/태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쓰기 태도/내용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등) 		
15주	1	읽기를 통한 쓰기 중심의 수업에 참여한 소감을 자기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정리하기(성찰		

	적 글쓰기) → 제출하기		
2	수업 마무리		

1) 1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1주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1-설명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수업 계획에서는 2편의 읽기 자료를 제공하였다(* 자료 1 별첨). 읽기 자료는 백과사전에 실린 축구에 대한 설명글들인데 이 글들을 선택한 이유는 백과사전의 특징상 글이 일관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특징별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글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그 점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짜깁기식으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읽기 자료에서 자신의 주제의식과 글쓰기 목표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자신의 글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나) 그 점에서 ‘1. 주어진 2편의 읽기 자료 독해하기(축구에 대한 읽기 자료)’를 할 때 학생들은 나열되어 있는 여러 항목 중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독자의 관심사를 잘 고려하여 축구에 대한 자신의 설명글에 사용한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설명 대상 선택하기’는 자신의 주제의식과 글쓰기 목표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자신의 글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무엇을 왜 쓰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나의 주제 의식은 무엇인가), 글쓰기 목표가 무엇인지 확정한 뒤(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도록 지도한다.

다) ‘3. 초고의 개요 준비하기’에서는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이 선택한 내용을 조직적으로 배열하여 글의 논리적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여러 내용을 나열하는 단순 조직을 피하고, 자신의 주제의식에 맞는 조직을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2) 2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2주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의 개요를 짠 뒤, 그에 맞게 초고를 써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요 짜는 방법과 초고를 서술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한 교수자의 강의가 필요하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1주 수업에 이어 ‘4. 초고 개요 쓰기와 초고 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 듣기’를 하고 나서, ‘5. 초고의 개요 짜기’를 실시한다. 초고 개요를 짰 다음에는 모둠별로 의견을 나눈 뒤 의견을 반영하면서 초고 개요를 수정한다. ‘6. 모둠별로 초고의 개요에 대한 의견 나누기’와 ‘7. 의견 반영해서 초고의 개요 수정하기’ 활동이 그에 해당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백과사전에서 뽑은 읽기 자료를 참조하면서 초고를 쓴다(‘8. 읽기 자료를 참조하면서 초고 쓰기’).

나) 2차시 수업에서는 모듈별로 초고를 돌려 읽고 의견을 주고받는 ‘9. 모듈별로 초고에 대한 의견 나누기’ 활동을 하며, 이때 교수자는 반을 돌아다니며 모듈별로 초고를 읽고 조언을 해 준다(‘10. 초고에 대한 교수자의 조언 받기’). 수강생이 많은 반일 때에는 초고 한두 편을 선택하여 반 전체 앞에서 전체 강평을 해줌으로써 자기 글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3) 3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3주 수업의 첫 번째 달성 목표는 <기초적인 읽기 활동하기>이다. 이는 ‘1. 읽기 전 활동, 2. 읽는 중 활동, 3. 읽은 후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며 읽는 방법을 학습하기 전에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선택된 읽기 자료는 칼럼 「회전문의 기만」으로 짧고 구성이 정교하며 주제의식이 흥미롭다는 점에서 수업용 읽기 자료에 적합하다.

나) 3주 수업의 두 번째 달성 목표는 <능동적인 읽기를 위 다섯 가지 접근법 익히기>(* **활동지 배포: 자료 2 별첨**)를 하는 것이다. 3주에는 ‘1. 정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와 ‘2.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방법을 익힌다. <자료2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는 읽기 텍스트와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접근 방법은 질문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질문법에 들어 있는 다양한 질문을 읽기 텍스트를 적용하면서 각 접근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른 텍스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끈다.

다) 읽기 텍스트는 출전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수자는 미리 읽기 자료를 준비해 오거나, 학생들이 수업 전까지 자료를 읽고 오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정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를 익힌 학생들은 ‘정서적 관점으로 칼럼 「회전문의 기만」 분석하기’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모듈별로 활동 결과 나누기’를 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내 관점 확장하기’를 한다.

라) ‘2.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4) 4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3. 수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기’와 ‘4. 논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5.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역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읽기 자료를 다른 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은 글이 짧으면서 각 관점을 적용하기가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이제 다섯 가지 접근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행할 것은 ‘<다섯 가지 관점 적용 훈련과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분석적 글쓰기>’이다. 분석용 읽기 텍스트는 칼럼 「회전문의 기만」이다. 학생들은 여기에 다시 한 번 각 관점을 적용해

본 뒤('1. 각 관점 적용해보기') 칼럼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2, 3개 선택해서 통합적으로 적용해본다('2. 관점 2, 3개 선택해서 통합적으로 적용해보기'). 실제로 글을 분석할 때는 하나의 관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해 보고 그 결과물을 글로 적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5) 5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 가) 학생들이 해 온 과제를 받기만 하는 것은 과제 수행 동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수업에서 <과제 연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수자는 과제로 해 온 평가글과 3주 1차시 수업에서 한 칼럼에 대한 소감/의견을 비교해 보고 향상된 점을 표시하는 활동을 하도록 학생들을 이끌고, '모둠별 우수 글 추천 &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과제 수행 동기를 높이며 우수 글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글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나) 교수자는 학생들이 써 온 평가들에 조언(다섯 가지 접근법 중 학생들이 선택한 2, 3가지 접근법이 분석에 잘 활용되었는지 조언함)을 해주고, 재고 쓰기를 과제로 내준다('1. 평가글에 대한 조언 받기', '2. 재고 쓰기(과제)'). 수업 시간에 글을 다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과제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다) 재고를 과제로 써왔으면 반드시 <과제 연계 활동>를 실시한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완성해 온 재고를 제출하게 하고, 이어서 모둠별로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 경험(다섯 가지 접근법으로 초고, 재고 쓰기)에 대한 소감과 의견 나누기'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 라) 5주 2차시 수업에서는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 2: 분석적 글쓰기를 위한 요약식 인용 익히기>를 시작한다. 먼저 학습시킬 것은 '1. 인용 및 주석, 참고문헌 작성법 배우기'와 '2. 요약 방법 익히기'이다.
- 마) 요약 자료로는 우석훈이 쓴 「공간을 다루는 법: 걷고 싶은 거리? 굽고 싶은 거리」(『나와 너의 사회 과학』, 김영사, 2011.)를 선택하였다. 이 글은 내용이 길지 않고 표현이 쉬우면서 생각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 교육용 읽기 자료로 적합하다.

6) 6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 가) 6주에는 본격적으로 '3. 요약식 인용법(& 각주 달기) 실습'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4. 인용과 표절의 차이'를 알도록 하기 위해 양자의 차이를 설명해준다. 요약식 인용법은 읽기 자료를 자기 글에 적합하도록 인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즉 읽기 자료의 핵심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줄이되, 내용을 변형시켜 의미를 왜곡하지 않은 요약이 인용에 필요한 요약이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요약을 제대로 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어떤 요약이 바람직한 요약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내 글에 반영할 때 각주를 다는 등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된다는 점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나) 6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활동은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분석적 글쓰기>를 위해 ‘다섯 가지 접근법을 활용해 읽기 자료 분석적으로 읽기’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다섯 가지 접근법 이용해서 「공간을 다루는 법: 걷고 싶은 거리? 굽고 싶은 거리」를 분석한다(개인 활동). 개인 활동이 끝나면 5인 1모둠으로 모여 분석 내용을 나눈다(모둠 활동).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 내용이 공유될 것이다. 그 다음 학생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모둠원들의 분석을 옆두에 두고, ‘두세 가지 관점을 선택, 통합해서 읽기 자료에 재접근’함으로써 자료 분석 능력을 강화한다.
- 모둠별로 다시 모여 새로 분석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 분석 중 나아진 점을 찾아서 서로 칭찬해주는 활동을 한다.

- 다) 6주 2차시 수업에서는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2: 분석적 글쓰기-공간분석>를 수행하기 시작한다. 먼저 학생들은 요약 자료(읽기 자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다(‘1. 요약 자료를 통해 내 글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얻기’). 그런 뒤 모둠으로 모여 ‘2. 아이디어에 대한 모둠별 평가활동하기’를 수행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정교화한다. 그리고 정교화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3. 주제 확정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주제 좁히는 방법 활용하기’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주제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주제를 좁게 잡도록 안내한다.
- 예> 신촌공간과 소비성(큰 주제) → 신촌의 명물거리와 학생들의 소비 성향(좁힌 주제) → 명물거리와 일본 음식점 그리고 학생들의 소비성향과 대일본의식(더 좁힌 주제).
-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수자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학생들이 주제 선정에 실패할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주제에 대한 교수자의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7) 7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 가) 학생들은 과제로 가져온 ‘참고 자료를 읽으면서 정보 분석하고 선택하기’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참고자료 검토해서 주제에 맞는 자료를 구분해 내는 방법 익히기’와 ‘참고 자료에서 인용할 만한 대목 찾아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기’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의 활동은 학생들이 가져온 자료가 자신의 주제에 맞는지 판단하는 활동이며, 후자는 주제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읽으면서 내 글에 인용할 대목을 선택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제에 따라 읽기 자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 나)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글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했으면, 이제 개요를 작성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가급적 개요에 대한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개요 작성해서 교수자에게 상담받기’). 조언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잘못 쓴 개요로 초고를 작성해서 나중에 초고를 모두 고쳐야 하는 비능률적인 글쓰기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 학생들은 완성해 온 개요를 바탕으로 공간 분석 초고를 쓴다. 교수자는 초고의 분량 등 지켜야 할 사항을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예> 초고 분량: 1,500자 내외, 전문 자료 인용 2개 이상 등

8) 8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 중간시험 시간

9) 9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9주에는 학생들이 써 온 초고를 상호 평가하는 활동을 실시한다('2. 초고 상호 평가하기'). 이때 평가의 기준을 정한 뒤 상호평가를 해야 평가가 밀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기준은 교수자가 제공해 줄 수도 있으며 일부는 교수자가 제공하고 일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수도 있다. 평가 기준은 주제, 내용, 형식, 구성, 분량 등을 중심으로 공간 분석 글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선택한다. 예> 공간 분석 글은 분석과 평가(의견)가 중요하므로, 글의 내용이 적절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는지 저자(글쓴이)의 의견은 타당한지를 평가 기준으로 정한다.

나) 학생들은 평가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3. 내 글에서 수정할 점 결정하기' 활동을 하고, 과제로 '4. 내 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추가하기(과제)' 활동을 수행한다.

다) 9주 1차시에는 '1. 글 다시 쓰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2. 모둠별 우수 글 추천 & 발표'와 '3. 참고 문헌 활용(자료 읽기)하며 글을 써 본 소감 나누기'을 수행한다. 시간이 부족하면 교수자는 이를 2차시 수업 내용으로 돌리는 유연성을 발휘한다.

라) 9주 2차시 수업부터는 <읽기를 통한 쓰기 활동3: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1. 읽기 전 활동(제목을 통해 내용과 주제 짐작하기, 모둠별 의견 나누기)'을 실시한다.

마) 읽기 자료로 한운형·최태섭·김정근, 「박카스 권하는 사회」,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2011와 고미숙, 「돈은 '내 운명':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 그린비, 2010.를 채택하였다. 열정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와 열정이 노동력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되, 한편으로는 노동을 경시하면서 돈을 유일한 가치 판단의 척도로 삼는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보조자료로 마이클 센델, 안기순 옮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2012.를 읽도록 권하면 학생들이 주제 접근에 필요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0) 10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10주에 실시하는 '2. 읽는 중 활동: 텍스트의 의미 파악하기'에는 '뜻을 더 알고 싶은 핵심 용어와 문장을 제공된 활동지에 적으면서 읽기(* 활동지 배포: 자료 3 별첨)' 활동과 '3. 읽

은 후 활동: 모듈별로 알아온 핵심 용어와 문장의 뜻 나누기, 교수자-학생간의 전체 토론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 명확하게 이해하기 활동이 포함된다. 여기서 제공되는 새로운 읽기 방법은 학기 초 읽기 자료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를 읽을 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법이다. 교수자는 별첨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핵심 용어와 문장을 별도로 표시하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텍스트 이해력을 높이도록 돕는다.

나) 10주 2차시 수업에서는 '4. 읽기-쓰기 연계 활동'을 실시한다. 주제를 정하기 위해('1) 주제 정하기') 학생들은 '돈, 열정, 노동'을 핵심어로 삼아 모듈별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를 서로 평가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학생들은 자기 글의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6주에서 한 것처럼 '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주제 좁히는 방법 활용하기'와 '주제에 대한 교수자의 의견 듣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활동을 통해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를 정한다.

11) 11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비판적 글쓰기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논거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수자는 논거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먼저 알려준 뒤 자신의 글에 필요한 논거를 찾도록 유도한다. 참고로 논거 제시 방법에는 실증, 예증, 분석, 추론, 권위에 의존하기(인용하기) 등이 있다.

나) 논거에 대한 지식을 얻은 학생들은 '다섯 가지 접근법 활용하여 읽기 자료의 논거 제시 방법 분석하기' 활동을 수행한다. 이것은 논거가 글의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자는 타당하고 적절한 논거를 선택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논거가 글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내 글에 필요한 논거 결정하기' 활동을 수행한다.

12) 12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학생들은 과제로 가져온 인용 자료를 읽으면서 '3) 인용 내용 정하기' 활동을 한다. 이는 '참고 자료에서 인용할 만한 대목 찾아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기'를 하면서 이루어진다.

나) 다음으로 학생들은 '4) 한국 사회 비판적 글쓰기-개요 쓰기' 활동을 시작한다. 개요를 짰 뒤에는 교수자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조언에 따라 개요를 수정한 뒤 초고를 쓴다.

다) 12주 2차시에는 '5) 한국 사회 비판적 글쓰기-초고 쓰기' 활동을 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고를 쓸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준다. 예> 초고 분량: 1,800자 내외, 전문 자료 인용 2개 이상 등

13) 13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13주에는 ‘6) 초고 쓰기 후 활동’으로 모듈별 상호평가를 시작한다. 교수자는 모듈별로 돌아다니면서 글에 조언을 해주거나 수강생 수가 많을 경우에는 1, 2편의 글을 대표적으로 정해서 전체 강평을 해준다. 이때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글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글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교수자의 조언이 끝나면 학생들은 ‘내 글에서 수정할 점 결정하기’ 활동을 시작한다.

나) 13주 2차시에는 재고 쓰기 활동을 한다. 초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량 등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예> 재고 분량: 2,500자 내외, 전문 자료 인용 3개 이상 등

14) 14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재고를 완성해 온 학생들은 ‘8) 조언이 쓴 글 읽고 평가하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는 ‘다섯 가지 접근법을 바탕으로 모듈원의 글 2편 평가하기’와 ‘다섯 가지 접근법을 바탕으로 모듈원의 글 2편 평가한 내용을 내 글과 비교하면서 글쓰기로 이루어진다.

나) 상호 평가가 끝나면 ‘모듈별 우수 글 1편 추천 & 발표’를 한다.

다) ‘읽기-쓰기 통합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로 14주 수업을 마무리한다. 교수자는 학생들이 막연하게 소감을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읽기와 쓰기가 연계되는 방식을 알게 된 후 자기가 변화된 점(읽기 방식/태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쓰기 태도/내용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15) 15주 수업의 목표와 방법

가) 15주는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읽기를 통한 쓰기 중심의 수업에 참여한 소감을 자기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정리하기(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한다. 한 학기 수업에서 한 모든 활동을 모두 회상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글쓰기이므로 분량은 A4 2장 내외가 적당하다. 완성한 학생들은 글을 제출하게 하고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2차시 수업까지 완성해 오도록 지도한다.

나) 15주 2차시 수업에서는 한 학기 동안 실시된 읽기-쓰기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허심탄회하게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해도 좋다.

다. 수업 자료 별첨

1) 자료1 별첨

가) 수업의 목표: 이 수업은 읽기 자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택하고, 연결하여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읽기 연습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나) 수업 진행시 참고할 점

- ① 능동적인 읽기를 연습하기 위해 여기서는 두 편의 읽기자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하고, 주제의식과 글쓰기 목표에 따라 자신의 선택한 내용을 연결하면서 한 편의 글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읽기 자료의 설명 방식, 설명 방식, 글 전개 방식, 문체 등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 즉 설명 방식, 글 전개 방식, 문체 등을 자기 글의 예상 독자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상 독자가 능숙한 독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료의 표현을 읽기 쉽게 바꾸면서 설명해야 한다.
- ② 학생들은 예상 독자를 결정하여 글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을 예상 독자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 학생들은 독자의 흥미를 끌면서 쉽게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며, 그렇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 ③ 두 편의 읽기 자료는 백과사전에서 선택한 것이다. 축구에 대한 설명글을 백과사전에서 뽑은 이유는 백과사전의 특징상 글이 일관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특징별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글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그 점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짜깁기식으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읽기 자료에서 자신의 주제의식과 글쓰기 목표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자신의 글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 설명적 글쓰기를 위한 읽기 자료

<읽기자료1: 축구>
* 출처: 브리태니커백과사전
각각 11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발 또는 머리로 공을 쳐서 상대 팀 골에 넣는 경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행해지며, 관객 동원력이 높은 인기 있는 운동이다. 규칙이 단순하고,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쉽게 대중화되었으며,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세계 축구 관리기구가 행한 최근의 축구 인구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부터 프로 선수에 이르기까지 정식으로 등록된 선수가 4,000만 명에 달한다. 1984년 하계 올림픽 대회에서 축구경기는 약 150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며 관객동원 면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의 축구장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있으며 약 20만 명의 관중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기원 두 팀이 상대방 골대 방향으로 공을 차며, 앞으로 밀고나가고, 드리블을 하는 형태의 경기는 고대

부터 존재해왔으며, 공은 원형이 사용되었다. BC 206년경 이미 축구와 비슷한 경기가 중국에서 행해졌으며, 500년경에는 머리카락으로 채워진 둥근 공이 사용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축구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에피스쿠로스'(episkuros) 또는 '하르파스톤'(harpaston)이라는 경기가 행해졌으며, 그 경기는 BC 2세기경 '하르파스툼'(harpastum)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전해졌다.

하르파스툼은 공이 양 팀 사이의 공간으로 던져지면서 시작되었으며, 양 팀은 공을 상대방 골 라인 너머로 보내기 위해 공격과 수비를 펼쳤다. 로마 제국시대(43/44~410)에 로마 군인들이 영국과 유럽에 주둔하면서 각지에 축구를 소개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그 이전부터 속이 채워진 공을 사용하여 축구경기를 했다고 한다.

7세기 일본에서도 축구와 유사한 경기가 행해졌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14세기에 칼치오(calcio : '공차기'라는 뜻) 경기가 행해졌는데, 이 경기는 정기축제 기념경기로 행해졌다.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멜레(mêlée) 또는 멜라이(mellay)라는 경기가 널리 행해졌는데, 동물의 방광을 부풀려 만든 공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형태의 경기였다. 시나 행정구에서 선발된 양 팀 선수들 100여 명이 양 팀의 중앙 지점에서 경기를 시작했으며, 자기 팀의 지역 경계선을 골로 사용했다. 1389년 영국의 리처드 2세는 양궁 수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경기를 금지시켰으며, 15세기까지 군주들은 이와 유사한 금지령으로 이 경기를 제약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2세기부터 영국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오순절 화요일을 전통적인 축구의 날로 지키고 있다. 잉글랜드 체스터에서는 217년 거대한 V자 대형의 영국 군대가 로마 군대를 내쫓았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축구가 행해졌다고 전해진다. 한편 8세기 잉글랜드의 킹스턴온템스에서 데인인(북유럽인)을 쫓아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축구가 행해졌다는 설도 있다. 그후 73~91m 길이의 축구 경기장이 생겼으며, 경기장 양 끝에는 0.6~0.9m 간격으로 막대를 꽂아 골로 사용하게 되었다. 공은 동물의 방광에 바람을 넣고 가죽을 입힌 것을 사용했으며, 한 팀이 상대방 골대로 공을 몰아 넣으면 경기는 종료되었다. 학교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세기부터 영국에서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부유한 귀족가문의 자제들이 덜 폭력적인 형태의 축구경기를 했다. 학교마다 규칙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공을 가지고 뛰거나 전진 패스하는 것은 금지했다. (중략)

관중문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라이벌 팀간에 벌어지는 축구경기에서는 때때로 열광적이며 광신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폭력행위 사태가 빚어지기도 한다.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시합 전후나 진행중에 관중들의 방해와 소란 행위가 매우 드물었다. 대조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흥분한 관중이 운동장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장과 관중석 사이에 울타리를 치거나 운동장 주변에 큰 구멍들을 파놓았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면서 경기장 폭력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관중들도 감소하게 되었다. 즉 축구경기는 본의아니게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촉매작용을 하게 된 것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경기장 폭력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라이벌 팀들의 응원단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어야만 했다. 이 문제는 1985년 브뤼셀의 헤이셀 스타디움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당시 벌어졌던 유럽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영국 리버풀 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던 관중들이 이탈리아 튜린의 유벤투스 팀의 응원진을 야유하면서 앞으로 돌진해 담장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결과 39명이 죽고 4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대부분 이탈리아인이었다. 그후 영국 팀들은 유럽 선수권대회 참가가 금지되었으나 영국병으로 일컬어지는 경기장 폭력문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 번지게 되었다.

<읽기자료2: 축구>

* 출처: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축구의 역사

축구의 역사는 유럽, 그중 특히 옛날의 중세 스페인에서 펼쳐졌던 전통적인 축구 경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축구는 1863년에 잉글랜드에서 설립된 축구 협회 (FA)의 등장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런던의 몇몇 클럽이 클럽이 경기를 하는 데에 있어 서로간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인 규칙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그 당시에, 축구팀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규칙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팀과 경기를 할 때에는 경기 시작전에 규칙을 정해야만 했다. FA 규칙 제정의 즉각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축구가 아마추어 스포츠로서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자 계급의 스포츠에 참여와 더불어, 기업가들은 관중들이 스타 선수를 보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최초의 프로 클럽이 탄생하게 되었다. 일단 프로페셔널리즘이 확립되면서부터, 경기의 인기는 무척 높아졌고, 곧 영국인의 해외 이주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축구 협회

1860년대 초반, 잉글랜드의 사립학교들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구 경기를 일치시키고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케임브리지 규칙을 만들고 추진했던 J.C. 트링(John Charles Thring)은 1862년 당시에 어핑엄 스쿨의 교사였는데, 그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가장 간단한 경기"(이는 어핑엄 규칙으로 잘 알려짐) 라고 명명했다. 1863년 10월 초에 새로이 수정된 캠브리지 규칙이 해로우, 슈류즈버리, 이튼, 럭비, 말보로, 웨스트민스터의 졸업생 대표로 구성된 7명의 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혈의 법무관이었던 에베니저 콕 몰리(Ebenezer Cobb Morley)는 축구를 위한 관리기관 설립을 제안하였다. 몰리는 축구 협회의 초대 사무관(1863~1866)을 지냈으며, 2대 회장(1867~1874)을 지냈다. 그러나 특히 그에 대해 기억되는 것은 최초로 게임의 규칙이라는 저서를 통해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축구 규칙의 밑바탕을 그려놓은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축구 협회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축구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1863년 10월 26일 저녁, 몇몇 축구팀 대표자들이 런던의 코벤트 가든 구역의 룡 에이커 거리에 위치한 프리메이슨 테이번에서 모였다. 이는 축구 협회(The FA) 최초의 회의였다. 축구 협회는 세계 최초의 축구 관리기관이었으므로, 영국인들은 축구 협회 앞에 '잉글랜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런던의 채터하우스는 초대에 응해 참석한 유일한 학교였다. 첫 회의에선 각 사립학교 대표자들에게 협회에 가입하길 요청하자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트링이 재직하던 어핑엄 스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거절하였다. 186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6번의 축구 협회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J. F. 앨콕 (J. F. Alcock)은 "케임브리지 규칙은 협회가 채택하고픈 가장 탐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회의가 끝나고 규칙의 초안을 축구 협회가 출간하였다. 그러나 네 번째 회의가 시작될 때,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최근에 발간된 1863년의 케임브리지 규칙이었다. 케임브리지 규칙은 축구 협회 규칙의 초안과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있었다. 즉, 공을 가지고 뛰는 것 과 해클링 (상대방

선수의 정강이를 치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다. 논쟁이 발생한 두 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IX. 만약 선수가 정당하게 공을 잡았거나, 첫 번째 바운드에 공을 잡았으면 선수는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 공을 가지고 뛸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하게 공을 잡았을 경우에 만약 그 선수에게 수비가 있을 경우에는 달릴 수 없다.

X. 어느 선수든지 공을 가지고 상대방의 골문으로 있다면, 반대편의 어떤 선수라도 저지하고, 붙잡고, 발을 걸거나 정강이를 차거나 공을 비틀어 빼앗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붙잡고 정강이를 치는 것을 동시에 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회의에서 위의 두가지 규칙을 축구 협회 규칙에서 제외하지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였지만, 블랙히스 럭비 클럽의 대표이자 축구협회의 첫 번째 재무담당이었던 F. W. 캠벨(F. W. Campbell)만이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그는 "해클링이 진정한 축구이다"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마지막 회의에서 실행되었고, 캠벨은 그의 팀을 FA에서 탈퇴시켰다. 12월 8일의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축구 협회는 "축구의 규칙"을 발간하였다. 이는 최초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축구 규칙이었다. 축구는 또한 "Association football"을 줄인 "soccer"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는 그 당시의 공을 들고 뛰는 잉글리쉬 풋볼인 럭비 풋볼(Rugby football)과 구별하기 위함이었고, "사커"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 축구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다.

축구협회의 첫 번째 규칙이 가지고 있던 요소들은 이제 더이상 축구의 규칙은 아니지만, 다른 경기 종목(럭비 유니온, 오지 풋볼)에서는 아직도 그 규칙을 분간할 수 있다.

축구협회 회원들에게 승인된 축구의 규칙은 경기장 그라운드와 최대 너비와 폭, 킥오프의 순서, 골, 드로인, 오프사이드와 같은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다. 지나가는 공을 잡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었으며, "정당하게 또는 첫 번째 바운드 때" 잡는 공만 사용되었다. 이러한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발류의 착용, 선수의 수, 벌칙, 파울 행동이나 공의 모양 등에 관한 자세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주장과 감독은 경기전에 이러한 것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했다. (중략)

FIFA 남자 월드컵

첫 번째 축구 월드컵이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첫 대회 결승전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였는데, 양 국 모두 자신의 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당시에는 각국의 공의 규격이 통일되지 않았음) 결국 전반전엔 아르헨티나의 공을 사용하고, 후반전에는 우루과이의 공을 사용하였다. 첫 월드컵에는 많은 나라가 참가하지 못했고, 주로 아메리카 국가가 많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까지 유럽 팀들이 관심을 보이며 대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대회로 발전하였다. 이로 부터 많은 대회들이 등장하였다. —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남아메리카의 코파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OFC 네이션스컵, 아시안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북아메리카의 CONCACAF 골드컵이 각 대륙의 주요 대회가 되었다. 브라질은 월드컵 최다 우승국으로 5회 우승을 하였다. 스페인으로 가장 최근 대회인 2010년 FIFA 월드컵을 우승하였다.

FIFA 여자 월드컵

FIFA 여자 월드컵의 첫 대회는 1991년 FIFA 여자 월드컵으로 중국에서 12개의 팀이 참가하였다. 1999년 FIFA 여자 월드컵에는 650,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고 거의 10억에 가까운 시청자가 70개 국가에서 시청하였다. 2003년 대회부터 16개팀이 본선에 참가하게 되었다. 2007년 FIFA 여

자 월드컵까지 포함하여 총 다섯 번의 대회가 열렸는데, 미국과 독일이 두번, 노르웨이가 한 번 우승을 하였다. 여자 축구의 대륙별 연맹 명칭은 남자 축구의 대륙별 명칭과 동일하다.

2) 자료2 별첨

가) 다섯 가지 접근법을 위한 읽기 자료와 질문 사례

- 수업 목표: 이 수업은 읽기 자료를 다각도에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수업 진행시 참고할 점

① 다섯 가지 접근법을 위한 읽기 자료를 가급적 길이가 짧으면서, 각 접근법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에서 선정하였다. 참고로 읽기 자료의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출전만 제시하였다.

② 각 접근법에 있는 질문 중 ‘기타(내가 만든 질문)’은 학생들이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① 정서적 관점(emotional perspective)으로 접근하기

- 읽기자료를 통해 정서적 접근 방법 익히기

읽기 자료	에밀 졸라의 선언문(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유기환 옮김, 책세상, 2005.)
정서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질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밀 졸라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어떤 단어와 문장을 선택했습니까? 이를 통해 어떤 감정이 환기됩니까? - 에밀 졸라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인물들을 어떤 단어와 문장들을 사용하여 묘사하였습니까? 이러한 감정적 갈등을 만들면서 저자는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나는 그 방식에 공감합니까? - 에밀 졸라가 만들어낸 감정적 갈등은 텍스트에서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습니까? 해결이나 미해결은 모두 필자의 글쓰기 전략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 전략에 찬성합니까? - 위에서 우리는 에밀 졸라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단어와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와 문장들을 통해 만들어진 텍스트의 분위기는 무엇인지 추론해 봅시다(예: 적대감, 공감, 엄숙함, 애석함 등). 여기에서 드러나는 필자의 서술 태도는 성공적입니까? 독자에게 필자가 환기하는 감정은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 기타(내가 만든 질문):

②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 읽기 자료를 통해 윤리적 접근 방법 익히기

읽기 자료	에밀 졸라의 선언문(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유기환 옮김, 책세상, 2005)
윤리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질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많은 윤리적 신념은 이타성, 자기중심성, 정치성이라는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타성은 헌신을 강조하며, 자기중심성은 개인의 자아실현이 최고선이라는 신념을 내세우고, 정치성은 공공체의 복지에 큰 관심을 둡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철학이 포함되는 정치성은 이상 달성을 위해 혼자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 신념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에밀 졸라는 어떤 윤리적 신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타성, 자기중심성, 정치성이라는 세 범주 중 어디에 포함됩니까? - 에밀 졸라의 윤리적 신념에 대해 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타(내가 만든 질문):

③ 수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 읽기 자료를 통해 수사학적 접근 방법 익히기

: 수사학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글을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여기서는 두 편의 읽기 자료를 제공하였다.

읽기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밀 졸라의 선언문(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유기환 옮김, 책세상, 2005.) 2) 남경태, 「가상현실」, 『개념어사전』개정판, 휴머니스트, 2012.
수사학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질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읽기 자료는 각각 어떤 장르에 속합니까? - 두 글의 조직 방식은 어떻습니까(묘사, 서사, 정의, 비교/대조, 분류, 예시, 요약, 설득 등) 두 글의 조직 방식은 장르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각 글의 조직 방식은 그 글의 장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 각 글의 문체적 특징은 무엇입니까(격식적, 비격식적, 일상적, 비일상적 등) 각 글의 저자들은 자기 글에 적합한 문체를 채택했다고 생각합니까? - 모든 언어는 잠재적으로 모호성(의미의 불확실성 혹은 함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자가 잘못 사용해서 생긴 모호성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선택한 모호성은 좋은 글을 쓰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각 글에는 저자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호성을 부여한 주요 단어가 있습니까? 있는지 찾아보고 각 글의 장르에 알맞게 선택된 단어인지 아닌지 평가하십시오. - 기타(내가 만든 질문):

④ 논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 읽기 자료를 통해 논리적 접근 방법 익히기

읽기 자료	남경태, 「가상현실」, 『개념어사전』개정판, 휴머니스트, 2012.
논리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질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자가 다루고 있는 쟁점은 무엇입니까? - 쟁점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자는 어떤 추론을 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결론을 살펴봅시다. 필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 필자가 자신의 결론을 위해 어떤 가설이나 전제를 세웠습니까? - 필자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추론 방법은 무엇입니까? - 필자가 가설이나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들을 선택했는지를 분석하십시오. - 필자는 추론을 위해 다른 관점을 끌어들이며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논점회피, 성급한 일반화, 유형화의 오류 등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봅시다. - 기타(내가 만든 질문)

⑤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 읽기 자료를 통해 사회적 접근 방법 익히기

읽기 자료	남경태, 「가상현실」, 『개념어사전』개정판, 휴머니스트, 2012.
사회적 접근 방법을 익히기 위한 질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에 제시된 사회적 갈등(사회적 문제)은 무엇입니까? - 텍스트에서는 갈등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 텍스트에 제시된 사회적 갈등은 어떤 입장(비판적, 수용적, 절충적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습니까? - 텍스트에서 제시된 사회적 갈등은 특수한 사회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 텍스트에 드러난 인간관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입니까? 달라졌다면 가상현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 텍스트에서 제시한 사회적 쟁점(갈등)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21세기의 한국사회와 관련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미래의 한국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 텍스트에 드러난 사회적 갈등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 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 기타(내가 만든 질문):

3) 자료3 별첨

- 뜻을 더 알고 싶은 핵심 용어와 문장을 제공된 활동지에 적으면서 읽는 활동이다.

① 핵심 용어 이해하며 읽기

핵심 용어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싶은 지식	새로 알게 된 지식

② 중요 문장 이해하며 읽기

중요 문장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싶은 지식	새로 알게 된 지식

2. 읽기 - 쓰기 중점 모형

가. 강의 개요

이 강좌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해 현대 문화 현상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논리적인 텍스트로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학생들은 현대 문화 현상에 관한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독서를 통해 자기 관점을 설립하고, 이 관점을 문어적인 텍스트로 표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는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에 대해 사유하고, 지식을 재생산하는 인지 과정 전체를 포괄한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듣는 동안 현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자기 표현에 대한 기술과 자기 참여에 대한 인식이 늘어날 것이다. 이 강좌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 현상에 대해 독자(Reader)로서, 관찰자(Viewer)로서, 작가(Writer)로서, 발언자(Speaker)로서의 역할이다.

나. 교재

이 수업의 주된 교재는 『대학글쓰기』(삼인, 2007)이다. 이 교재를 통해 학생들은 쓰기 과정에 관한 기본 학습을 수행한다. 계획하기, 개요작성, 집필, 수정에 관한 주요 항목들을 이 교재를 통해 학습한다. 사회, 문화에 관한 일기 자료들은 『문화와 철학』(동녘, 1999)을 통해 주로 학습한다. 이밖에 필요한 책 목록도 아래에 제시한다. 학생들은 제시한 책을 읽어야 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찾아 와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글쓰기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주된 수업 자료는 아래와 같다.

주교재 : 『대학글쓰기』 (삼인, 2007.)
『문화와 철학』 (동녘, 1999.)
보조 자료 : 『문장 기술』 (배상복, MBC 씨엔아이, 2012.)
『일상 문화 공간』 (천선영, 노벨미디어, 2009.)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다. 강좌 진행 방식

이 강좌는 강의, 전체 발표 및 토의, 조별 토의로 진행된다. 수업의 많은 부분을 조별 활동이 담당한다. 담당 교수의 강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학생의 발표와 토론을 늘려 자기 주도적으로 내용을 생성하고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강좌는 전체 4 단계의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쓰기 과제는 '텍스트 읽기 → 렌즈 에세이 쓰기 → 자료탐색 글쓰기 → 공동 논문 쓰기' 순으로 부과된다. 텍스트 읽기는 짧은 과제와 문화 경험에 대한 글쓰기이며, 렌즈 에세이는 관점을 대신하는 렌즈를 통해 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글쓰기이며, 자료탐색 글쓰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seed text를 통해 자료를 확산해 가는 글쓰기이며, 공동 논문 쓰기는 조원들이 힘을 합해 한 편의 논문을 쓰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전체 강좌는 이 네 단계의 글쓰기를 차례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 읽기 → 렌즈 에세이 쓰기 → 자료탐색 글쓰기 → 공동 논문 쓰기

라. 과제(Assignment)

이 수업은 학생들이 지적인 필자와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읽기 과제와 쓰기 과제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읽기와 쓰기의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수업의 주된 과제는 4가지이다. 학생들은 이 과제를 강의계획표에 있는 시간표에 의해 수행해야 한다. 모든 과제는 초고와 수정고를 제출한다. 초고는 20%의 성적을 반영하고, 수정고는 80%의 성적을 반영한다. 초고와 수정고는 주어진 분량에 따라 완결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과제 1 : 읽기 과제 (A4 1장 내외, 문항에 따라 200~500자)

우리 주위의 문화 현상의 문제나 우리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충격이나 깨달음을 주는 개인적 경험이 있는지를 숙고해 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는 글을 작성하기.

조건 : 아래 4가지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서술할 것.

영상 문화, 성적 평등, 환경 위기, 정보화 사회

과제 2 : 렌즈(lens) 에세이 쓰기 (A4 2매, 2000자)

여기서 렌즈는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대변하는 말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렌즈(ex, 맑시즘, 페미니즘, 동물애호, 채식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등)를 결정한 후, 이를 4가지 주제(영상 문화, 성적 평등, 환경 위기, 정보화 사회) 중에서 하나를 택해 렌즈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글을 작성한다.

과제 3 : 자료 탐색 글쓰기 (A4 2매, 2000자)

과제 1에서 4가지 주제를 다룬 읽기 자료 중 1편을 택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논문들을 택한다(논문을 택할 때는 찬, 반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 논문이 seed text가 된다. 학생들은 seed text에서 출발하여 찬·반 대립이 있는 또 다른 논문 2편을 찾고, 이를 비교하는 글을 작성한다. 관점 비교를 하며 글을 작성할 때 자신의 견해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영상 문화, 성적 평등, 환경 위기, 정보화 사회



관련 논문(seed text)을 읽고 논쟁적인 소주제를 찾는다.



논쟁적 소주제에 관한 찬, 반 논문 2편을 찾는다.



찬, 반에 관한 자기 관점의 글을 쓴다.

과제 4 : 공동 논문 쓰기 (A4 10장 내외, 6000자)

과제 1의 4가지 주제와 관련된 문화 공간을 찾고, 그 문화 공간이 지닌 개인적, 사회적인 의미를 학술적으로 재구성한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문화 공간을 찾아 문화 공간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공간 분석을 할 때 앞서 언급한 4가지 주제 중 하나의 주제를 중점적인 분석 과제로 삼아야 한다. 논문은 논문 형식에 따라 작성하되 조원들이 서로 분담하여 작성한다. 제출 과제에는 각 부분 작성자의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마. 수정 워크숍(Revision Workshop)

학생들은 모든 글에 대해 초고와 수정고를 작성해야 한다. 초고는 지정된 날짜에, 교사와 모둠의 구성원 모두에게 1부씩 제공해 주어야 한다. 초고는 지정된 분량에 맞게 완성된 형태의 글로 제출한다. 초고는 조별 워크숍이나 전체 워크숍을 통해 동료 학생, 또는 교사의 도움을 받은 후 수정한다. 학생들은 수정 워크숍이 있는 후 1주일 안에 고쳐서 완성된 형태로 수정고를 제출해야 한다.

1) 조별 워크숍

학생들은 동료 도움을 받기 위해 조별 분임 모임을 수행한다. 각 조는 3~4명으로 구성하고 1명의 조장을 둔다. 조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기록을 담당한다. 조별 워크숍은 학생들은 제출한 초고에 대해 동료 평가지(참고 1)를 작성한 후 조별 모임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학생 1인당 15분의 시간을 배정한다. 순서는 조장이 조원이 작성한 동료 평가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동료들의 반응, 본인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한다.

2) 전체워크숍

전체 워크숍은 반원 전체가 모여 학생의 글에 대해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워크숍은 대상 학생의 초고에 대해 학생들이 동료 평가지를 작성하고, 함께 모여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워크숍은 교사가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학생 중에서 대표자를 정해 그 학생이 사회를 보며 진행하도록 한다. 순서는 대상 학생의 초고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1주 안에 동료 평가지를 작성하여 전체 워크숍 시간에 가져오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작성한 동료평가지에 근거하여 대상 학생의 글에 대해 도움 주는 말을 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은 3+3+4의 원칙<30%(이 글의 장점) + 30%(이 글의 문제점) + 40%(수정 방향, 도움말, 대안 제시 등)>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전체 워크숍 시간은 1인당 30분이며, 희망자에 한하여 한 학기에 5~10명 내외의 학생을 선정한다.

* 3, 3, 4의 원칙

동료의 텍스트에 대한 강평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킨다. 전체 내용 중 30%는 장점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30%는 문제점을 설명한 후 다음 40%는 수정 방향이나 대안, 도움말 등을 제시한다.

바. 평가(Grading Policy)

이 강좌는 5가지 평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는 수업 시간에 제시하는 읽기에 대한 질문 형식으로 부과된 과제 1이 있다. 이 글쓰기 과제는 학생들에게 읽기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과제 2,3의 내용 생성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과제 1은 성적 반영의 20%를 차지한다. 둘째는 과제 2와 과제 3으로, 전체 평가의 40%를 차지한다. 셋째, 공동 학술 논문 쓰기로 전체 평가의 30%에 해당한다. 공동 학술 논문은 전체 평가와 개별 평가를 병행한다. 학술 논문의 전체 내용과 개별 집필 부분을 나누어 평가한다. 넷째, 학생들이 그 동안 작성한 글을 모아 포트폴리오로 제출한다. 학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 정도에 따라 10% 정도를 반영한다. 다섯 번째, 출석, 조별 활동, 과제 제출 기간 엄수와 같은 사항들을 10% 정도로 평가한다.

- 과제 1 : 읽기에 관한 반응로 짧은 글쓰기(20%)
- 과제 2, 3 : 학술 에세이 작성(30%)
- 과제 4 : 공동 학술 논문 쓰기(30%)

- 포토폴리오(10%)
- 출석, 조별 활동, 과제 제출 기간 엄수(10%)

3) 포토폴리오 제출

학생들은 자신이 작성한 과제를 묶어 포토폴리오로 제출해야 한다. 포토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의 쓰기 능력의 향상 정도를 측정한다. 포토폴리오 성적은 10%를 반영한다. 포토폴리오는 마지막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 수업 참석과 성실성

학생들은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결석과 지각은 점수에 반영된다. 과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시간에 과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점이 된다. 표절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수업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과락 점수를 받는다.

아. 의사전달과 소통

이 과목에 대한 의사전달은 주로 수업시간 교수의 안내와 인터넷 classroom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공식적인 발언은 classroom의 ‘공지 사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항상 이곳을 방문해 공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사이트에는 ‘공지 사항’이외의 여러 자료들과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이외에도 자주 들어와 보아야 한다.

자. 강의 시간표

주차	교시	수업내용	과제	비고
1주	1	강좌 소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읽기와 토론 (1) : 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 박정하, 「문화를 보는 철학」, 『문화와 철학』, 동녘.	읽기 과제 [1] (별첨)	
2주	1	읽기 과제 대한 조별 토의		조 구성 확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읽기와 토론 (2) 	읽기과제 [2] (별첨)	강의 및 전체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와 영상 문화 · 문헌병, 「대 문화와 문화 산업」, 『문화와 철학』, 동녘. · 박성수, 「이미지와 영화」, 『문화와 철학』, 동녘. 		
3주	1	읽기 과제 대한 조별 토의		조별토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읽기와 토론 (3) - 성적 평등과 인간 해방 · 김성민, 「성차별과 인간해방」, · 문헌병, 「현대 문화와 문화 산업」, 『문화와 철학』, 동녘. 	읽기과제 [3] (별첨)	강의 및 전체토론
4주	1	읽기 과제 대한 조별 토의	에세이 작성 과제 [1] (별첨)	조별토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읽기와 토론 (3) - 현대 사회와 환경 위기 · 박준건, 「생태 사회의 사회 철학」, 『문화와 철학』, 동녘. 	읽기과제[4]	강의 및 전체토론
5주	1	읽기 과제 대한 조별 토의		조별토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 읽기와 토론 (3) - 정보화 사회와 가상 현실 · 이성백, 「정보화의 사회론」, 『문화와 철학』, 동녘. 	읽기과제[5]	강의 및 전체토론
6주	1	읽기 과제 대한 조별 토의		조별토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세이 과제 [1]에 대한 워크숍(1) ‘영상 문화, 성적 평등, 환경 위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조별 동료들과 의견 나누기 	렌즈 에세이를 통해 자신이 다룰 주제를 선정하기(4주제 중 1 선택)	조별토의

7주	1	렌즈 에세이 사례 설명		교수강의
	2	▶ 샘플 에세이에 대한 토의 - 샘플 에세이에서 사용된 렌즈와 적용 사례에 대한 조별 토의 - 개인별 렌즈 에세이 보고서 쓰기	학습지[1] 작성	조별토의
8주		중간시험 및 자료 찾기 기간		
9주	1	▶ 렌즈에 대한 발표 및 토의 - 학생들은 자신의 렌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을 발표한다.	학습지[1] 제출	전체발표3인 조별 토의
	2	■자료 탐색 글쓰기 1 - seed text에 대해 설명하기 - 자료 탐색 글쓰기를 위한 주제 찾기		강의 및 전체 토의
10주	1	▶ 렌즈 에세이 워크숍	렌즈에세이[2] 초고 제출	
	2	■자료 탐색 글쓰기 2 - seed text 찾기 - 주제에 관한 seed text를 찾고 조별로 서로 토의		조별토의;
11주	1	■자료 탐색 글쓰기 3 : 자료 찾기 실습 - seed text에 관한 찬반 관점의 text 찾기 : 자료 찾기 샘플 강의	렌즈에세이 수정고 제출	강의
	2	■자료 탐색 글쓰기 4 - seed text에 관한 찬, 반 관점의 text 찾기 - 학습지를 가지고 조별로 토의한다.	학습지[2] 제출	조별토의
12주	1	자료 탐색 글쓰기 워크숍	자료탐색 글쓰기[3] 초고제출	조별 토의
		■공동 논문 쓰기 1		강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공간 - 문화, 공간, 기억의 연관성 · 천선영, 『일상 문화 공간』, 노벨미디어. ·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13주	1	■공동 논문 쓰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공간, 기억의 연관성 - 샘플 논문 보여주기 	자료탐색 글쓰기 수정고 제출	강의
	2	■공동 논문 쓰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탐색 - 조별로 탐색 공간 결정 	논문 차례 보여주기	조별 토의
14주	1	■공동 논문 쓰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탐색과 답사 		조별 현장 답사
	2	■공동 논문 쓰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개요 작성 - 논문 내용 생성 		조별토의
15주	1	▶ 공동 논문 쓰기 워크숍 1	공동 논문 쓰기 [4] 초고	전체 토의
	2	▶ 공동 논문 쓰기 워크숍 2		
16주	1	포트폴리오 제출과 검토 - 포트폴리오 발표	포트폴리오 제출	전체발표2인
	2	총정리와 자체 평가		

차. 읽기 과제

<읽기 과제 1>

읽기 과제 1]

반: 이름:

* 읽기 자료 「문화를 보는 철학」(박정하)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300~400자)

1. 최근 K-pop 현상에 대해 문화에 관한 유물론적 설명을 시도해 보시오.
2. 대중문화를 소비하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하십시오.

<읽기 과제 2>

읽기 과제 2]

반: 이름:

* 읽기 자료 「이미지와 영화」(박성수)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300~400자)

1. 책읽기를 통해 얻는 사고작용과 영화의 이미지를 통해 얻는 사고 작용을 비교해서 설명하십시오.
2. 1번의 이미지 차이가 문화와 사회,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읽기 과제 3>

읽기 과제 3]

반: 이름:

* 읽기 자료 「성차별과 인간해방」(김성민)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300~400자)

1. 신세대의 중성적 이미지, 즉 유니섹스 선호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최근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제도가 성차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읽기 과제 4>

읽기 과제 4]

반: 이름:

*읽기자료 「생태사회의 사회철학」(박준건)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300~400자)

1. 환경을 살리기 위해 현대 사회가 이루어놓은 문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2. 환경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욕망구조, 사회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읽기 과제 5>

읽기 과제 5]

반: 이름:

* 읽기 자료 「정보화의 사회론」(이성백)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정보화 사회가 전통적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보시오.(500자)
2. 정보화 사회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십시오.(300)

학습지 [1]

렌즈 에세이 작성

반 : 이름:

렌즈에세이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이 분석할 문화 현상을 결정하고, 사용할 렌즈를 택해야 합니다. 아래 문항에 답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1. 자신이 분석할 문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석 대상은 읽기에서 다룬 4가지 주제 (영상 문화, 성적 평등, 환경 위기, 정보화 사회)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2. 자신이 사용할 렌즈를 설명하시오. 렌즈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 혹은 자료와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렌즈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1) 렌즈 :
2) 렌즈에 대한 설명 :
3) 근거 :

3. 렌즈 에세이에 대한 잠정적인 개요를 작성해 보시오.

학습지 [2]

자료탐색 에세이

반: 이름:

아래 문항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1. 4가지 주제와 관련된 논문 1편(seed text)을 찾으시오. 이때 논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쟁점이

뚜렷한 것이 좋습니다. 논문을 찾았다면 아래에 기록하기 바랍니다

논문 제목 :

2. 찾은 논문을 읽고 여기서 쟁점이 되는 상황 하나만 선택하시오. 쟁점은 찬·반이 뚜렷해야 좋습니다.

쟁점 :

4. 논문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찾았다면 이제, 이와 관련된 찬, 반 논문을 다시 찾기 바랍니다. 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을 검토하시오. 찾았으면 아래에 기록하기 바랍니다.

쟁점 :

찬성 논문 :

반대 논문 :

학습지 [3]

<논문 쓰기 차례>

- 서론

I. 서론

-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론

II. 이론적 검토 (이론적 배경 혹은 대상이론 제목)

- *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 내용을 제시함

III. 연구 내용

- * 연구 내용을 목차를 나눠 서술한다.

- 결론

IV. 결론

- * 연구결과 요약, 연구의 의의, 향후 기대되는 결과

- * 공동 논문 쓰기에서는 각 항목을 학생들이 나누어 쓸 수 있음.

카. 강좌 운용 시 유의 사항

- 1) 이 모형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수자는 수업 시수와 학생 수, 강좌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 2) 주요 교재들은 교수자 재량에 의해 바꿀 수가 있다. 특히 읽기 주제와 관련된 책과 자료는 교수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바꿀 수 있다.
- 3) 읽기 과제나 에세이 쓰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만약 과제가 많다면 적절하게 줄여서 사용한다. 특히 렌즈 에세이나 자료 탐색 글쓰기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4) 성적 평가는 교수자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 평가 대상과 평가 배점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 5) 초고와 수정고의 성적 반영 비율은 개별 교수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 강좌는 20%, 80%로 규정되어 있다.
- 6) 공동 논문 쓰기는 개인 소논문 쓰기로 바꿀 수 있다. 공동 논문 쓰기는 학생들이 논문을 나누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프로젝트형 워크숍

가. 강의 개요

- 1) 지식 중점 모형에서 워크숍형은 보다 전문적인 주제에 심층적이며 다각적으로 접근하거나 전문성 있는 책에 접근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 2) 이러한 두 특징을 모두 살리기 위해 주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정의 문제를 선택하고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선택하였다.
- 3) 총 10강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장별로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샌델이 제시하는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 그 관점을 한국사회의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저자인 샌델의 제안도 한국 사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 4) 다양한 방식의 워크숍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과 토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형식면에서는 반 전체 워크숍과 모둠별 워크숍을 모두 활용할

것이 며, 내용면에서는 읽기 중심 워크숍, 쓰기 중심 워크숍, 쟁점 토론 워크숍을 모두 활용할 것이 다.

- 5) 쓰기 워크숍의 기본 전략은 학생 글의 단점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쓰기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 6)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한 권의 책을 꼼꼼히 읽어나가면서 관련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방법도 익힐 것이다.

나. 강의 목적

이 강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각 항목은 이 강의만이 아니라 워크숍형 프로그램이 공유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1) 읽기 능력 배양 : 분석적 이해 능력, 요약 능력, 비판적 평가 능력 배양
- 2) 쓰기 능력 배양 : 계획·구성·검토·교정 능력, 특히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능력 배양
- 3) 주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정의’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입장의 장단점 분석 및 평가
- 4) 협력 학습 능력 향상 : 다양한 형식의 워크숍을 통해 협력 학습 능력 배양
- 5) 토론 능력 배양 :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을 통해 토론 능력 배양

다. 수강 자격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학생에게 추천한다.

- 이 강의가 다루는 주제와 책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가진 학생
- 토론 강의를 이미 수강한 학생
- 철학 관련 강의, 특히 윤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한 학생
- 구체적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
- 관료나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

라. 읽기 자료

- 주교재 :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10.)

마. 주요 과제

개인 과제는 총 6개이다.

순서	글의 성격	글의 내용	분량	주교재 관련 부분
1	요약하기	주교재의 2장 요약	A4 1면	2장
2	정당화하기	공리주의 입장에서 특정 주제 정당화	A4 1-2면	2장

3	비판하기	자유지상주의 입장의 글 찾아 비판	A4 1-2면	3, 4강
4	자기 견해 제시하기	'거짓말은 나쁜 것인가'에 대해 견해 제시	A4 1-2면	5강
5	평가 및 대안 제시하기	지역할당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A4 1-2면	6, 7강
6	의미 분석하기	공동선의 정치가 갖는 현실적 의미 분석	A4 2-3면	8, 9, 10강

1) 각 과제는 워크숍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워크숍 전에 초고를 제출하고 워크숍 이후 1주 내로 개인 수정본을 제출한다. 수정본의 경우 수정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2) 과제 중 1~2개는 1 : 1 면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 면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 이루어진다. 피드백 하는 과제 수는 반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2-5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워크숍을 통해 '모둠별 대표글'을 제출한다. - 모둠 별 워크숍에서 서로의 글을 평가한 다음 가장 잘 된 글을 하나 뽑는다. - 그 글의 장점을 더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도록 함께 수정하고 완성도를 높여 모듬의 대표글로 제출한다. - 모듬 별 대표글은 반 전체 워크숍에서 발표되어 전체 학생의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반영하여 교수자가 평가한다.

공동 과제는 총 4개이다.

바. 수업 진행 방법

- 1) 수업은 총 16주 동안 진행되며, 주 2회, 회당 75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제외하고 총 28회로 진행된다.(주 1회 100분 수업의 경우, 75분 수업을 50분으로 적절히 줄여서 진행하면 된다.)
- 2) 28회 중 11회는 강의, 17회는 워크숍이 진행된다.
- 3) 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강좌 소개 1회, 읽기 강의 6회, 쓰기 강의 4회
- 4) 워크숍은 앞서 설명한 모듈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순서	형식		내용
	모듈선택 1	모듈선택 2	
1	모듬 별		모듬 구성 및 인사
2	반 전체	읽기 중심 (분석적 이해)	1강 내용 정리
3	반 전체	읽기 중심 (요약문 작성)	과제 1 평가
4	모듬 별	쓰기 중심 (검토, 수정)	과제 2 모듬별 대표글 선정 및 수정
5	반 전체	쓰기 중심 (계획, 구성)	과제 2 모듬별 대표글 발표 및 검토

6	반 전체	읽기 중심 (비판적 평가)	3강 자유시장주의의 반박이 가진 타당성 검토
7	반 전체	읽기 중심 (비판적 평가)	4강 병역 할당의 3가지 방법 평가
8	모둠 별	쓰기 중심 (검토, 수정)	과제 3 모둠별 대표글 선정 및 수정
9	반 전체	쓰기 중심 (계획, 구성)	과제 3 모둠별 대표글 발표 및 검토
10	반 전체	읽기 중심 (분석적 이해)	5강 내용 정리
11	모둠 별	쓰기 중심 (검토, 수정)	과제 4 모둠별 대표글 선정 및 수정
12	반 전체	쓰기 중심 (계획, 구성)	과제 4 모둠별 대표글 발표 및 검토
13	반 전체	읽기 중심 (분석적 이해)	6강 7강 내용 정리
14	반 전체	읽기 중심 (분석적 이해)	8강 9강 내용 정리
15	모둠 별	쓰기 중심 (검토, 수정/읽고 쓰기)	과제 5 모둠별 대표글 선정 및 수정
16	반 전체	쓰기 중심 (계획, 구성/읽고 쓰기)	과제 5 모둠별 대표글 발표 및 검토
17	반 전체	쟁점 토론 중심	과제 6을 주제로 토론

- 규모별로 보면 반 전체 워크숍 12회, 모둠 별 워크숍 5회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 모둠 당 학생 수는 4~6명을 유지한다.
- 목적별로 보면 읽기 중심 워크숍 7회, 쓰기 중심 워크숍 8회, 쟁점토론 워크숍 1회, 모듬 구성 및 소개 1회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 읽기 중심 워크숍에서는 교재의 내용 파악에 초점을 맞춘다.
- 쓰기 중심 워크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모듬 별 워크숍에서는 개별 학생이 쓴 글 중 가장 좋은 글을 하나 선정하여 모듬 구성원 모두가 공동저자로서 이 글의 완성도를 높여 모듬별 대표글을 완성한다.
 - 2) 반 전체 워크숍에서 모듬 별 대표글을 발표하여 전체 학생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는다.

사. 평가 방법

1) 개인 과제 (50점)

- 과제 1 : 6점
- 과제 2-4 : 각 8점 (총 32점)
- 과제 6 : 12점

* 개인 과제는 초고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수정본의 수정 내용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공동 과제 (50점)

- 과제 2~5 모듬별 대표글 : 각 10점 (총 40점)

* 모듬 별 대표글은 초고와 수정본을 함께 평가한다. 수정본 자체의 수준도 평가하지만 초고와 비교해서 얼마나 수정하여 개선했는지도 평가한다.

** 모듈 별 대표글에 대해서는 모듈 구성원에게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

*** 모듈 별 대표글로 뽑힌 사람은 초고만으로 개인과제 점수를 부여하고 개인 수정본은 따로 받지 않는다.

- 워크숍 참여도 : 10점

아. 강의 일정

주차	교시	강의 내용	과제	비고
1	1	강좌 소개 - 목표, 의의 - 진행 방법	자기 소개 준비 - 가장 영향을 준 책 소개 1강 내용 개인별 정리	
	2	읽기 강의 1 - 쟁점, 결론, 근거 찾기 - 핵심개념, 정보 확인하기		
2	1	읽기 강의 2 - 요약문 작성하기	* [과제 1] 2강 요약문 작성하기 - 개인별 작성 * 공리주의에 대한 보충 참고 자료 찾기	3주차 1교시에 제출
	2	워크숍 1 - 모듈 구성 - 자기 소개 (가장 영향을 준 책 소개) - 1강 내용 모듈 별 종합 정리		
3	1	워크숍 2 - 1강 내용 정리 발표 (2개 모듈) - 동료 평가 (2개 모듈)	[과제 1] 종합하여 모듈별 대표 요약문 작성	
	2	워크숍 3 - [과제 1] 모듈 별 대표 요약문 발표 - 검토 및 동료 평가 - 공유할 보충 자료 제시	[과제 2] 체벌에 대해 공리주의 입장에서 정당화하는 글 작성하기	4주차 2교시에 제출
4	1	읽기 강의 3 - 보충 자료 찾는 법 - 공유한 보충 자료 함께 읽기 (공리주의 이해하기)		

	2	워크숍 4 - [과제 2] 모듈 내 동료 평가 - 가장 잘 된 글 뽑아 수정하여 대표글 작성하기		
5	1	읽기 강의 4 -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 목적, 관점, 함축, 맥락 확인		
	2	워크숍 5 - [과제 2] 모듈 별 대표글 발표 및 전체 검토	3강 자유시장주의의 반박 1-5 검토하기(모듈별)	
6	1	읽기 강의 5 - 비판적 평가의 세 단계		
	2	워크숍 6 - 3강 반박 1-5의 타당성 모듈 별 발표 및 검토 - 3강 내용 정리	4강 병역 할당의 3가지 방법에 대해 정당성 및 장단점 도표로 만들기 (모듈별)	
7	1	읽기 강의 6 - 비판적 평가 업그레이드		
	2	워크숍 7 - 병역 할당의 3가지 방법 평가 도표 발표 및 동료 평가 - 4강 내용 정리	[과제3] 자유시장주의 입장에 서서 쓴 글을 찾아서 비판 글 작성하기	9주차 2교시에 제출
8	1 2	중간고사		
9	1	쓰기 강의 1 - 옹호 혹은 비판글 작성하기		
	2	워크숍 8 - [과제3] 모듈별 동료 평가 - 가장 잘 된 글 뽑아 수정하여 대표글 작성하기	5강 내용 정리 - 칸트 주장 - 칸트에 대한 샌델의 주장	
10	1	워크숍 9 - [과제3] 대표글 발표 및 전체 검토		
	2	쓰기 강의 2 - 쟁점 설정에서 개요짜기까지		
11	1	워크숍 10	[과제 4] ‘거짓말은 나쁜 것인가’	12주차 1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강 내용 정리 - 의무주의 이해하기 	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십시오.	제출
	2	쓰기 강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작성(처음, 중간, 끝) 		
12	1	워크숍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4] 모듈 내 동료 평가 - 가장 잘 된 글 뽑아서 수정하여 대표글 작성하기 	6강 7강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즈의 주장 정리 - ‘도덕적 자격’에 대한 롤즈의 평가 정리 - 롤즈에 대한 샌델의 평가 정리 	
	2	워크숍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4] 대표글 발표 및 전체 검토 		
13	1	워크숍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강, 7강 내용 정리 - 롤즈의 주장 정리 - 롤즈에 대한 샌델의 평가 정리 	8강 9강 내용 정리 [과제 5] 소수집단우대정책 관련 과제 (지역 할당제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대안 제시하기)	14주차 2교시에 제출
	2	쓰기 강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및 수정 		
14	1	워크숍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강, 9강 내용 정리 - 아리스토텔레스 주장 정리 - 샌델 주장 정리 	[과제 6] 10장에서 제시하는 공동선의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논해보라.	15주차 2교시에 제출
	2	워크숍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5] 모듈내 동료 평가 - 가장 잘 된 글 뽑아서 수정하여 대표글 작성하기 		
15	1	워크숍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5] 대표글 발표 및 전체 검토 		
	2	워크숍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6] 전체 토론 		
16	1	기말 고사 시간		
	2			

자. 주별 강의 계획

<1주차>

1교시 : 강좌 소개

- 워크숍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워크숍 강의의 특징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 워크숍의 다양한 유형도 설명해 주고 학생들이 워크숍에 참여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 워크숍 1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 1) 모둠이 구성되면 같은 모둠에 속한 학생에게 자기를 간단히 소개할 내용을 정리한다. 특히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 1~2권을 소개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한다.
 - 2) <1장 옳은 일 하기>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해 답을 찾아보게 한다.

[1장 읽기 과제]

- * 가격 폭리 처벌법에 대한 옹호 논리와 반대 논리를 정리해 보자.
- * 행복, 자유, 미덕의 세 입장 각각에서 가격 폭리 처벌법에 대해서 어떤 옹호 논리와 반대 논리가 가능한지 정리해 보자.
- * 구제 금융으로 불거진 분노를 불러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 *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정리해 보자.
- * 도덕적 딜레마를 바탕으로 도덕적 사고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2교시 : 읽기 강의 1

- 분석적 이해의 1단계와 2단계 과정을 연습시킨다.
- 분석적 이해 1단계 : 쟁점-결론-근거를 찾아서 텍스트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 분석적 이해 2단계 :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 개념을 찾아 확인하고 제시된 정보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 이해를 위한 요소를 설명하고 간단한 연습 문제를 풀어 본다.

<2주차>

1교시 : 읽기 강의 2

- 요약문 작성하기
- 글의 종류에 따라 요약문 작성 방법이 다름을 알게 한다.
- 논증적 텍스트의 경우 분석적 이해 1단계를 기초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게 한다.
- 짧은 글의 요약문을 작성할 때와 책의 한 챕터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할 때의 차이를 설명한다.
- 자료 찾기 연습 : 공리주의를 잘 설명하는 보충 참고자료를 찾아 복사하여 3주차 1교시에 제출하도록 과제를 부과한다.

- [과제 1]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정의란 무엇인가] ‘2장 최대 행복의 원칙 : 공리주의’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하시오.

- 분량은 A4 한 면(글자 크기는 한글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60, MS워드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로 할 것)
- 제출 마감 : 3주차 1교시 수업일 전날 밤까지 정해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2부 인쇄해 올 것.

2교시 : 워크숍 1

- 모듈별 워크숍, 모듈 구성 및 인사
- 앞서 살펴 본 모듈 구성 시 유의할 점을 고려하여 모듈을 구성하고 조장을 정한다.
- 모듈 별로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소개한다.
- [1장 읽기 과제]에 대한 답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 워크숍 2 발표자를 정한다.

<3주차>

1교시 : 워크숍 2

- 읽기 중심 (분석적 이해) 전체 워크숍
- [1장 읽기 과제]에 대한 답을 2개 모듈이 발표한다.
- 동료 평가 : 발표한 모듈에 대해 각각 2개 모듈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
- 이 과정을 통해 1장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워크숍 3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모듈 별로 추가로 모여 [과제 1]에 대해 좋은 요약문을 선택한다.
이를 함께 수정하여 모듈 별로 대표 요약문을 작성한다.

2교시 : 워크숍 3

- 읽기 중심 (요약문 작성) 반 전체 워크숍
- [과제 1]에 대한 모듈 별 대표 요약문을 발표한다.
- 각 모듈의 대표 요약문에 대해서 교수자가 평가하고 질의 응답한다.
- 공리주의에 대해서 찾아 온 보충 자료 중 전체가 공유할 만한 복수의 자료를 교수자가 소개하고 읽어오도록 한다.
- [과제 2]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공리주의 입장에 서서 체벌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 자신의 실제 견해와 상관없이 공리주의 관점에 서서 접근할 것.
- 분량은 A4 1~2면 (글자 크기는 한글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60, MS워드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로 할 것)
- 제출 마감 : 4주차 1교시 수업일 전날 오후 3시까지 정해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2부 인쇄해 올 것.

<4주차>

1교시 : 읽기 강의 3

- 자료 찾아 정리하기 : 보충 자료 찾기, 복수의 자료 종합 정리하기
- 공부하면서 보충 참고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한다.
- 한 주제와 관련된 복수의 참고 자료를 종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 전 시간에 제시했던 공리주의에 대한 복수의 자료를 사례를 참고 자료 활용법을 강의한다.
- 공리주의의 주장을 정리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2강에서 공리주의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 워크숍 전날 오후 3시 이후에 [과제 2]에 대해 올린 자기 모듬 동료들의 글을 다운 받아 검토함으로써 워크숍 준비를 하도록 고지한다.

2교시 : 워크숍 4

- 쓰기 중심 (검토, 수정) 모듬별 워크숍
- [과제 2]에 대한 모듬 동료들의 글을 하나씩 평가한다. 특히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 저자가 읽고 글을 쓰면서 의문이 들었거나 문제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 동료들에게 질문하고 동료들이 이에 답한다.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나 문제는 전체 워크숍에서 질문한다.
- 가장 잘 쓴 것으로 평가되는 글을 하나 선택한 다음, 보완할 점을 논의하고 함께 수정하여 모듬별 대표글을 하나 작성한 다음 5주차 1교시 이전에 교수자에게 메일로 보내게 한다.

<5주차>

1교시 : 읽기 강의 4

-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 분석적 이해의 3단계에 해당하는 목적, 관점, 함축,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 특히 글쓰기에서 맥락을 이루는 요소, 즉 독자, 저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2교시 : 워크숍 5

- 쓰기 중심 (계획, 구성) 반 전체 워크숍

- [과제 2]에 대한 모둠 별 대표글을 발표시키고 자유롭게 동료 평가를 하게 한다.
- 특히 글을 계획하고 구성할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 동료 평가가 끝나면 교수자가 각 대표글의 장점을 부각하여 그 글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글쓰기 지침을 정리해 준다.
- 다음 워크숍을 위해 [3강 읽기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3강 97~101쪽에 나오는 반박 1-5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반격 논리가 타당한지 모둠별로 따로 모여서 하나하나씩 검토해 보시오.

- 답을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해 보시오.
타당하다. 왜냐하면 () 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니까.
혹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 한 문제가 있으니까.

<6주차>

1교시 : 읽기 강의 5

- 비판적 평가의 세 단계를 익힌다.
- 각 단계의 평가 기준을 연습한다.
 - 1단계 : 분명함과 명료함
 - 2단계 : 정확성(합리적 수용가능성)
 - 3단계 : 적절성(쟁점과 결론, 결론과 근거)
- 간단한 연습 문제를 제시하여 훈련한다.
- [3강 읽기 과제]에 비판적 평가의 가능한 부분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2교시 : 워크숍 6

- 읽기 중심 (비판적 평가) 반 전체 워크숍
- 3강 전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반박 1-5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정리한다.
- [3강 읽기 과제]에 대한 답을 발표한다.
- 반박 1-5에 대한 자유지상주의 반격 논리에 대해 하나씩 검토한다.
-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진 모둠을 묶어서 그 이유를 정리해 본다. 또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모둠을 묶어서 그 이유를 정리해 본다.
- 양쪽이 찬반 논쟁적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이런 과정을 통해 논증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을 콩팍 판매, 안락사, 식인행위를 통해 교수자가 정리한다.
- 다음 워크숍을 위해 [4강 읽기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4장에 제시되는 병역 할당의 3가지 방법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정당성을 평가해 보라.
- 모두 별로 따로 모여서 논의할 것.
- 정리된 장단점과 정당성을 도표로 만들어 모두 별로 발표할 것.

<7주차>

1교시 : 읽기 강의 6

- 비판적 평가 능력 업그레이드
- 비판적 평가의 기본 3단계 외에 중요성, 충분성, 논리적 일관성, 공정성(객관성) 등의 기준을 이 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 좋은 글의 기준인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시글을 통해 이런 기준을 적 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익힌다.
- 주관적인 평가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익힌다.

2교시 : 워크숍 7

- 읽기 중심 (비판적 평가) 반 전체 워크숍
- [4장 읽기 과제]에 대해 모두별로 정리된 표를 발표하고 검토한다.
- 병역할당의 3방법 각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모둠끼리 한 편이 되게 한 다음 다른 편과의 논쟁적 토론을 유도한다.
- 대리 출산 문제를 통해서 시장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센델의 입장을 교수자가 정리한다.
- [과제 3]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자유지상주의 입장에 서서 쓴 글을 하나 찾아서 이를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보시오.
- 자신의 실제 견해와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글에 대해 효과적인 반박을 수행할 것.
- 자유지상주의 입장에 서서 쓴 글이면 어떤 주제를 다루는 글도 상관없음.
- 가능하면 신문이나 인터넷의 칼럼 형식의 글이 가장 적절함.
- 반박 글의 분량은 A4 1-2면 (글자 크기는 한글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60, MS워드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로 할 것)
- 제출 마감 : 9주차 2교시 수업일 전날 오후 3시까지 정해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2부 인쇄해 올 것.

<8주차>

중간고사 기간 : 개인 면담 시행

<9주차>

1교시 : 쓰기 강의 1

- 옹호 혹은 반박글 쓰기
- 동일한 주장을 옹호하고 반박하는 두 예시글을 통해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힌다.
- 옹호글과 반박글이 공유하는 논증 구조를 파악한다.
- 옹호글과 반박글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옹호 전략과 비판 전략을 알게 한다.
- 반박글 작성 지침을 [과제 3]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교시 : 워크숍 8

- 쓰기 중심 (검토, 수정) 모듈 별 워크숍
- [과제 3]에 대한 모듈 동료들의 글을 하나씩 평가한다. 특히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 저자가 읽고 글을 쓰면서 의문이 들었거나 문제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 동료들에게 질문하고 동료들이 이에 답한다.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나 문제는 전체 워크숍에서 질문한다.
- 가장 잘 쓴 것으로 평가되는 글을 하나 선택한 다음, 보완할 점을 논의하고 함께 수정하여 모듈별 대표글을 하나 작성한 다음 10주차 1교시 이전에 교수자에게 메일로 보내게 한다.
- 5장 내용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장 읽기 과제]를 제시한다.

* 5장 칸트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답을 각자 찾은 다음 모듈 별로 따로 모여 정리해 보자.

- 칸트에서 도덕, 의무, 행복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이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보라.
- 의문 1-4에 대한 답 중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 거짓말에 대한 칸트의 주장을 정리해 보라.
- 칸트에 대한 샌델의 평가를 정리해 보라.

<10주차>

1교시 : 워크숍 9

- 쓰기 중심 (계획, 구성) 반 전체 워크숍
- [과제 3]에 대한 모듈별 대표글을 발표시키고 자유롭게 동료 평가를 하게 한다.
- 특히 글을 계획하고 구성할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 동료 평가가 끝나면 교수자가 각 대표글의 장점을 부각하여 그 글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글쓰기 지침을 정리해 준다.

2교시 : 쓰기 강의 2

- 쟁점 설정에서 개요짜기까지
-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계획하고 구상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알게 한다.
- 개요짜기 실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실습한다.

<11주차>

1교시 : 워크숍 10

- 읽기 중심 (분석적 이해) 반 전체 워크숍
- [5장 읽기 과제]에 대하여 모둠 별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한다.
- 모둠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재의 본문을 토대로 확인한다.
- 칸트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것이 의무주의의 대표적 사례임을 교수자가 정리한다.
- 칸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4]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거짓말은 나쁜 것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앞서 배운 옹호 혹은 반박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것.
- 칸트와 샌델의 논의를 필요한 만큼 활용할 것.
- 글의 분량은 A4 1-2면 (글자 크기는 한글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60, MS워드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로 할 것)
- 제출 마감 : 12주차 1교시 수업일 전날 오후 3시까지 정해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2부 인쇄해 올 것.

2교시 : 쓰기 강의 3

- 글의 처음, 중간, 끝을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 실제 글을 작성하면서 유의할 사항을 단계별로 검토한다.
-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제시하여 비교를 통해 깨닫게 한다.

<12주차>

1교시 : 워크숍 11

- 쓰기 중심 (검토, 수정) 모둠별 워크숍
- [과제 4]에 대한 모둠 동료들의 글을 하나씩 평가한다. 특히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 저자가 읽고 글을 쓰면서 의문이 들었거나 문제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 동료들에게 질문하고 동료들이 이에 답한다.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나 문제는 전체 워크숍에서 질문한다.
- 가장 잘 쓴 것으로 평가되는 글을 하나 선택한 다음, 보완할 점을 논의하고 함께 수정하여 모둠별 대표글을 하나 작성한 다음 12주차 2교시 이전에 교수자에게 메일로 보내게 한다.
- 6장과 7장의 내용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6, 7장 읽기 과제]를 제시한다.

* 6장, 7장을 읽고 다음 항목에 답을 각자 찾은 다음 모둠 별로 따로 만나 정리해보시오.

- 합의만으로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하는 롤즈의 논리를 정리해 보라.
- 롤즈의 차등 원칙에 대한 반박 두 가지에 대한 롤즈의 대답은?

- 롤즈에 대한 샌델의 평가를 ‘도덕적 자격’ 문제에 집중하여 정리해 보라.
- 다양성 논리를 옹호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의 논리를 각각 정리해 보라.
- 정의가 도덕적 자격과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샌델의 입장을 정리하면?

2교시 : 워크숍 12

- 쓰기 중심 (계획, 구성) 반 전체 워크숍
- [과제 4]에 대한 모둠 별 대표글을 발표시키고 자유롭게 동료 평가를 하게 한다.
- 특히 글을 계획하고 구성할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 동료 평가가 끝나면 교수자가 각 대표글의 장점을 부각하여 그 글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글쓰기 지침을 정리해 준다.

<13주차>

1교시 : 워크숍 13

- 읽기 중심 (분석적 이해) 반 전체 워크숍
- [6, 7장 읽기 과제]에 대하여 모둠 별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한다.
- 모둠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재의 본문을 토대로 확인한다.
- 마지막에 롤즈의 입장을 교수자가 정리하고 롤즈에 대한 샌델의 평가도 정리한다.
- 8, 9장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따로 형식화된 읽기 과제를 주지 않고, 지금까지의 훈련을 바탕으로 모둠 별로 8, 9장의 핵심 내용을 나름의 방식대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을 과제로 부여한다. 이 발표는 워크숍 14에서 이루어진다.
- 롤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5]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아래 두 글을 참고하여 지역 할당제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라.

<조건>

- 두 글 각각의 관점에서 지역할당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를 해보고 이 논거가 적절한지 검토해보라.
- 글의 분량은 A4 1-2면 (글자 크기는 한글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60, MS워드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로 할 것)
- 제출 마감 : 14주차 2교시 수업일 전날 오후 3시까지 정해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2부 인쇄해 올 것.

(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상할 때에는 보상의 원칙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부당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즉 진정한 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가 더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더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마땅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연적 여

건에 따른 불평등을 보상해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 적어도 어느 기간 동안은, 가령 초등학교 육 기간에는,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의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이 배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바탕은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자연이 배분한 천부적 재능으로 얻는 이익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리자는 데 있다.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에서만 자신들에게 배분된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부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 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불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자질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천부적 재능을 자연이 배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개인이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이는 단지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정의로운 것 또는 정의롭지 못한 것은 사회 제도가 이러한 자연적 사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귀족 사회나 계급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자연적 우연성을 특권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천부적 자질을 가진 개인이 그 자연적 자산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자산을 계발할 수 있게 한 탁월한 성품에 대하여, 마땅히 그것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더 훌륭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산으로 성취할 수 있을 더 큰 이득을 누릴 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분명 잘못되었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최초의 출발점이 자신이 마땅히 누리야 할 몫이라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자연적 자질의 배분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자신이 몫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근면하기 때문에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가능하게 해 주는 탁월한 성품에 대하여 그것이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견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탁월한 성품은 대체로 운 좋은 가정 배경이나 사회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는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가 없다.

(나) 모든 사회적 재화 또는 가치들은 각기 고유한 배분 영역을 구성하며, 각 영역별로 적절한 배분 기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돈은 시장의 영역에서는 적절한 기준이지만,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한 기준이다. 모든 배분 영역에 통용되는 단일한 배분 기준은 없다. 우리는 기껏해야 배분 영역들의 상대적 자율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만 하면 정의가 달성된다는 생각을 나는 '단순 평등론'이라 부르겠다. 또한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여타의 가치들의 배분을 위한 기준으로 일반화되는 경우를 나는 '지배'라고 부르고자 한다. 즉 어떤 한 재화나 가치를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오로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타의 가치들이나 재화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지배이다. 지배적 가치는 그 가치를 소유함으로써 다른 모든 가치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가치를 의미한다. 지배적 가치를 단 한 사람 또는 일군의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면, 모든 가치들은 그들에게 장악된다. 하나를 갖게 되면 나머지 것도 연쇄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지배적인 가치이며 자본의 소유는 쉽게 특권과 권력으로 전환된다.

각각의 사회적 가치나 재화는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배분 기준을 가지므로 한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다른 가치들의 배분을 지배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평등은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배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배분 기준은 해당 재화(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다원적 평등'의 체제는 지배와는 정반대가 된다. 다원적 평등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공직의 배분 영역에서는 시민 X가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권력의 영역에서는 불평등하다. 그러나 공직이라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

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취업 기회의 우선적 제공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가치로 전환되지 않은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결코 앞에서 말한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혹은 그렇게 이용될 수도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가)는 『사회정의론』(존 롤즈, 황경식 역, 서광사, 1990.)에서 발췌 재구성

(나)는 『정의와 다원적 평등』(마이클 왈져, 정원섭 역, 철학과현실사, 1999.)에서 발췌 재구성

2교시 : 쓰기 강의 4

- 검토 및 수정 방법을 익힌다.
- 비판적 평가에서 익힌 내용을 자기 글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 짧은 예문을 주고 검토 및 수정과정을 실습한다.

<14주차>

1교시 : 워크숍 14

- 읽기 중심 (분석적 이해) 반 전체 워크숍
- 8, 9강의 핵심 내용 정리를 모둠 별로 발표한다.
- 모둠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재의 본문을 토대로 확인한다.
-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정리하고 충직 딜레마에 대한 샌텔의 주장도 정리한다.
- 10강의 내용은 지금까지 배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 각자가 파악해야 함을 주지시킨다.
- [과제 6]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0강에서 샌텔이 제시하는 공동선의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논해 보라.

- 글의 분량은 A4 2-3면 (글자 크기는 한글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60, MS워드의 경우 10포인트 행간 1로 할 것)

- 제출 마감 : 15주차 1교시 수업일 밤 10시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1부 인쇄해 올 것.

2교시 : 워크숍 15

- 쓰기 중심 (검토, 수정/ 읽고 쓰기) 모둠 별 워크숍
- [과제 5]에 대한 모둠 동료들의 글을 하나씩 평가한다. 특히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 저자가 읽고 글을 쓰면서 의문이 들었거나 문제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 동료들에게 질문하고 동료들이 이에 답한다.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나 문제는 전체 워크숍에서 질문한다.
- 교수자는 논제의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검표를 제

공하고 모둠 별로 점검하게 한다.

(1) 자료 (가)의 관점에서 지역할당제를 정당화할 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① 지역적 차이가 초래하는 불평등이 부당함을 밝혔는가?
- ② 지역할당제가 이러한 불평등을 보상하기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도임을 밝혔는가?

(2) 자료 (나)의 관점에서 지역할당제를 정당화할 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 ① 지역적 차이로 인한 특권이나 차별이 존재함을 밝혔는가?
- ② 지역할당제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도임을 밝혔는가?

- 가장 잘 쓴 것으로 평가되는 글을 하나 선택한 다음, 보완할 점을 논의하고 함께 수정하여 모둠별 대표글을 하나 작성한 다음 12주차 2교시 이전에 교수자에게 메일로 보내게 한다.

<15주차>

1교시 : 워크숍 16

- 쓰기 중심 (계획, 구성/ 읽고 쓰기) 반 전체 워크숍
- [과제 5]에 대한 모둠 별 대표글을 발표시키고 자유롭게 동료 평가를 하게 한다.
- 특히 글을 계획하고 구성할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 워크숍 15에서 제시했던 점검표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을 잘 지켰는지 검토해 보게 한다.
- 동료 평가가 끝나면 교수자가 각 대표글의 장점을 부각하여 그 글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글쓰기 지침을 정리해 준다.

2교시 : 워크숍 17

- 쟁점 토론 중심 (심포지엄식) 전체 워크숍
- [과제 6]에 대해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 이미 제출된 글 중 입장이 분명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는 글 3-4개를 교수자가 선택 하여 발표하게 한다.
- 발표된 글에 대해 워크숍 전날 각각 한 명씩 미리 논평자를 정하여 논평을 준비하게 한 다음 발표 후 논평하게 한다.
- 교수자가 쟁점을 발표와 논평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쟁점으로 잡아낸 다음 전체가 토론할 수 있게 한다.

<16주차>

기말고사 기간 : 개인 면담 시행

차. 프로그램 운영시 교수자가 유의할 점

- 이 강좌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한 권을 교재로 택해 '정의'라는 주제에 접근한 사례이

다. 물론 범용성이 높은 강좌이기는 하지만 워크숍 중심 글쓰기 강좌가 이런 방식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주제는 하나를 선택하지만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워크숍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정의’라는 이 강좌와 똑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의무주의, 공동체주의 등의 입장에서 정의에 접근하는 다양한 읽기 자료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 또 꼭 주제를 하나만 선택하여 접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 학기 동안 연관된 혹은 독립된 복수의 주제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한 다음 적절한 방식으로 워크숍을 구성할 수도 있다. 심지어 매주 주제를 하나씩 다루는 프로그램도 구성할 수 있다.

-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건 앞서 제시했던 모듈들(반 전체 워크숍/모둠 별 워크숍인가, 읽기 중심 워크숍/쓰기 중심 워크숍/쟁점토론 워크숍)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수자 유연성 있게 구성한다면 훌륭한 글쓰기 강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단, 워크숍 강의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능력이나 태도에서 잘 준비되어 있을 경우 효과가 있고, 또 그 경우라면 다각적인 논의를 통한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강좌처럼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책을 선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혀 둔다.

VII 기대효과 및 제안

1. 기대효과

가) 교양기초 교육의 핵심적 기능인 **의사소통능력 교육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인식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함.

나) 이 연구를 통해 **융복합적인 사유 능력과 수사학적인 표현 전략이 결합**될 수 있는 **인지적, 교육적 연구 기초**를 다질 수 있음.

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글쓰기 교육 모형을 개발하지 못한 지역 대학들에 모형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전 대학에 걸쳐 **글쓰기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라) 지식 중점 모형 안에서도 <읽기-쓰기>, <읽기 중심>, <워크숍형>으로 **유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였고 교육할 **내용도 모듈(modul)화**시켜 부분적으로도 기존의 강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기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 수요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할 수 있게 되어 **현장 확산 효과**를 제고함.

마) **의사소통교육을 선도하는 대학과 후발 대학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고 **글쓰기 교육 모형**

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투자비용을 최소화하여 교육적 자원을 다른 기초교양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바) 글쓰기 교수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증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여 글쓰기 교육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를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임.

2. 제안 : 확산 방안

가) 대학 글쓰기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자들이 모인 학회인 한국작문학회, 한국사고외표현학회, 대학작문학회 등 세 곳에서 학회 발표를 통하여 단시일 내에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글쓰기 교수자들이 본 연구결과에 바로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임.

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과목을 대학의 학점인정 교과목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거나 또는 강의 운영의 보조 교재로서 동영상 클립 모음을 제작할 수 있음. 개발된 동영상은 교기원 홈페이지(konige.kr)에 탑재하여 공개하고, 아울러 KOCW(kocw.net)에도 제공하여 전국 대학에 보급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대학 글쓰기 교수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마련할 경우 본 연구 결과물은 바로 이 양성 및 인증 과정에 핵심 커리큘럼 속에 포함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부록1. 수행한 연구 내용과 결과 보고

1. 모형 개발에 맞는 관점 수립 위한 세미나 실시:

(1) 세미나 명: 읽기와 쓰기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세미나

(2) 시간: 2011년 12월 20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6시에 진행

(3) 장소: 연세대학교 위당관 611호

(4) 세미나 커리큘럼

	저자	논문명
1	Judith A. Langer and Sheila Flihan	Chapter 5. writing and reading relationships : constructive tasks ...(2)
	출처	Roselmina Indrisano, James R. Squire(2000), <i>perspectives on writ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i>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2	Richard Fulkerson	General Strategies of Argument ...(12)
	출처	James C. McDonald(2000), <i>The Ally and Bacon sourcebook for college writing teachers</i> , Allyn and Bacon
3	Richard Fulkerson	Composition at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ry, CCC, 56:4 2005 ...(17)
	출처	Charles Bazerman James C. McDonald(2000), <i>The Ally and Bacon sourcebook for college writing teachers</i> , Allyn and Bacon
4	Marilina Salvatori	Conversations with Texts : Reading in the Teaching of Composition ...(6)
	출처	Edward P.J. Corbett, Nancy Myers, Gary Tate(2000), <i>The writing Teacher's Sourcebook</i> , Oxford University Press
5	Amelia E. El-Hindi	Connection Reading and Writing : College Learners' Metacognitive Awareness ...(15)
	출처	Norman A. Stahl, Hunter Boylan(2003), <i>Teaching Developmental Reading Historical,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Reading</i> , Bedford/St.Martin's
6	Karen B. Quinn	Teaching Reading and writing as Modes of Learning in College : A Glance at the past ; a View to the Future ...(14)
	출처	Norman A. Stahl, Hunter Boylan(2003), <i>Teaching Developmental Reading Historical,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Reading</i> , Bedford/St.Martin's
7	Richard Fulkerson	Technical Logic, Comp-Logic, and the Teaching of writing ...(4)
	출처	Timothy Barnett(2002), <i>Teaching argument in the composition course background</i>

* 세부적인 내용은 '5. 학회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2. MIT 오픈코스웨어(MIT OPENCOURSEWARE) 검토

(1) 검토 목적: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오픈코스웨어(Open Course Ware)는 다양한 오픈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http://ocw.mit.edu/>). 그중 하나가 글쓰기 분야의 양질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이면서 다양한 주제 개발, 인용법, 읽기-쓰기 모형 등을 상당히 폭넓게 개발되어 있어, 우리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오픈코스웨어를 세미나 후 한 편씩 검토하였다.

(2) 검토 자료 목록표

	no.	Courses
1	21W.730	Writing on Contemporary Issues: Social and Ethical Issues
2	21W.730-1	Expository Writing: Social and Ethical Issues in Print, Photography and Film
3	21W.730-2	The Creative Spark
4	21W.730-3	Writing and the Environment
5	21W.730-3	Consumer Culture
6	21W.730-3	Expository Writing: Autobiography - Theory and Practice
7	21W.730-4	Writing on Contemporary Issues: Food for Thought: Writing and Reading about the Cultures of Food
8	21W.730-4	Expository Writing: Analyzing Mass Media
9	21W.730-5	Writing on Contemporary Issues: Culture Shock! Writing, Editing, and Publishing in Cyberspace
10	21W.730-5	Writing on Contemporary Issues: Imagining the Future
11	21W.731-1	Writing and Experience: Exploring Self in Society
12	21W.731-2	Writing and Experience: Crossing Borders
13	21W.731-4	Writing and Experience

14	21W.732	Science Writing and New Media
15	21W.732-1	Introduction to Technical Communication: Perspectives on Medicine and Public Health
16	21W.732-2	Introduction to Technical Communication: Ethics in Science and Technology
17	21W.732-2	Intro to Tech Communication
18	21W.732-5	Introduction to Technical Communication: Explorations in Scientific and Technical Writing
19	21W.734J	Writing with Shakespeare
20	21W.734J	Writing About Literature
21	21W.735	Writing and Reading the Essay
22	21W.739J	Darwin and Design
23	21W.742J	Writing About Race: Narratives of Multiraciality
24	21W.745	Advanced Essay Workshop
25	21W.746	Humanistic Perspectives on Medicine: From Ancient Greece to Modern America
26	21W.747	Classical Rhetoric and Modern Political Discourse
27	21W.747-1	Rhetoric
28	21W.749	Documentary Photography and Photojournalism: Still Images of a World in Motion
29	21W.775	Writing about Nature and Environmental Issues
30	21W.784	Becoming Digital: Writing about Media Change
31	21W.785	Communicating in Cyberspace

(3) MIT 오픈코스웨어 검토 결과

- MIT 오픈코스웨어에 올라온 프로그램들의 주제들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주제 설정에 반영함.
- 인용법, 읽기-쓰기 모형 등을 프로그램에 활용함.
- 논증적 글쓰기와 표현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2차년도, 3차년도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로 축적해 둠.

3. 워크숍 개최

(1) 워크숍명: '쓰기를 위한 읽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2) 워크숍 개요

1) 장소: (국내) 속초

2) 기간: 2012년 1월 27(금)~28일(토)

3) 개최의 필요성: <21세기형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1차
 개 발표 시 중요 사항으로 다루어야 할 점은 텍스트 이해 능력 과 분석 능력, 비판
 능력 의 배양이다. 이것은 지식 중점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깊이
 있고 다각적인 이해를 요한다.

진 이에 따라 본 연구팀은 겨울 방학 동안 읽기-쓰기 모형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행해 왔다. 그리고 집중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쓰기를 위한
 읽 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워크숍 개최 목적:

- 참여 연구자들이 중심되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글쓰기 전문가들이나 전공자들이 토론
 을 맡음으로써 '쓰기를 위한 읽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실제적 토대를 마련한
 다.
- 발표와 토론 결과물을 읽기-쓰기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한다.

5) 참가자 명단:

정희모(연세대 교수: 연구책임자), 박정하(성균관대 교수: 공동연구원),
 김미란(성균관대 교수: 공동연구원), 진영복(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유혜령(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수), 옥현진(교육과정평가원), 김성숙(연세어학당),
 이윤빈(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오현지(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보연(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보조연구원),
 이세라(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강지은(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김희용(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등 총13명

(3) 워크숍 발표 주제 및 발표자/토론자

발표1	미국 대학 글쓰기 교육의 지형도에 관한 미국 논문 검토 (정희모)
	토론: 유혜령
발표2	MIT 대학의 "쓰기를 위한 읽기" 프로그램 소개 1 (박정하)
	토론: 옥현진
발표3	MIT 대학의 "쓰기를 위한 읽기" 프로그램 소개 2 (김미란)
	토론: 김성숙
발표4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중 '읽기와 쓰기 관계'에 대한 미국 논문 검토 (진영복)
	토론: 이윤빈

발표5	대학 작문 교육에서 텍스트와 읽기의 문제에 관한 미국 논문 검토 (김희용)
	토론: 김보연

(4) 워크숍 개최 결과

- 세미나 구성원들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글쓰기 전문가들이나 전공자들이 토론을 맡음으로써 ‘**쓰기를 위한 읽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실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음.
- 발표와 토론 결과물을 책자로 만들어 공유하고 읽기-쓰기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였음.

4. 정보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대학 방문 활동

(1) 정보 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대학 방문

- ① 방문 지역: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 ② 방문 기간: 2012년 2월 17(금)~2월 22일(수) [3월 1일(목) 귀국]
- ③ 방문 연구자: 박정하(성균관대 교수: 공동연구원)
- ④ 방문의 목적:

-1차년도 연구 계획서에 따라, 지식 중점 모형(읽기-쓰기 모형)개발을 위해 해외 우수 글쓰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최우수 대학 중 하나인 콜롬비아대학교는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지식 중점 모형 강좌도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Columbia 대학 학부 글쓰기 프로그램 책임자인 Niccole B. Wallack 교수를 만나서 글쓰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이 방문의 주된 목적이다. 특히 지식 중점 모형에 가까운 글쓰기 강좌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글쓰기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문의하며, 가능하다면 글쓰기 강좌도 참관할 예정이다.

(2) 정보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대학 방문 활동 결과

- 글쓰기 프로그램 책임자를 만나서 학술적 차원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길러 대학의 지적 삶에 적응하게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비판적 분석, 논증, 글 수정, 협동학습, 메타인지, 연구조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음.
- 워크숍 형태의 수업 진행을 참관하고 이를 <프로그램형 워크숍> 모형 개발에 활용함.

5. 학회 발표

1) 발표 1

학술대회명	대학작문학회·사고외표현학회 공동 학술대회
-------	------------------------

기획 주제	대학 글쓰기 교육의 다양성 모색
주최	대학작문학회, 사고외표현학회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일시	2012년 7월 7(토) 10:30~18:30
참가자 명단	정희모(연세대 교수/연구 책임자) - 참관 김미란(성균관대 교수/공동 연구원) - 발표
발표 내용	「다매체 시대와 대학의 읽기-쓰기 교육」(발표자: 김미란) 한국 대학의 읽기-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면서 읽기-쓰기 방법론이 소략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텍스트적, 수사학적, 담론적 접근 방법을 활용한 읽기-쓰기 방법론을 상세하게 제시함.

2) 발표 2

학술대회명	2012 홍방국제대학교 한국문법교육학회국제학술대회
기획 주제	한국학 교육·연구의 진단과 방향 설정
주최	홍방국제대학교(ĐẠI HỌC QUỐC TẾ HỒNG BÀNG) ·한국문법교육학회
장소	베트남 호치민 홍방국제대학교 회의실
대회 기간	2012년 6월 28(금)~6월 30일(토)
참가자 명단	정희모(연세대 교수/연구 책임자)- 발표 김미란(성균관대 교수/공동 연구원) - 참관
발표 내용	「한국인 대학생 텍스트의 문법적 오류 빈도와 분석」(발표자-정희모) 논문은 학생들의 읽기-쓰기 능력의 기초가 되는 문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오류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읽기-쓰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발표 결과

- 발표 내용은 이론적 토대 정립을 위한 활용,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법론 개발을 위한 활용으로 이어짐.
- 발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부록2. 읽기-쓰기 모형의 과제 예시

* 아래 자료는 미국 대학 자료, 국내 교재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참고 대상임.

1. 현대 사회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개인적 경험을 서술하거나, 또는 사회적 정의를 심각하게 “자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서술하십시오.
* 만약 학생이 지역 봉사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에세이를 통해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노숙자, 스쿨 튜터링 프로그램) 또는 특정한 공동체(노인분들, 미취학 아동들,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한 가치를 위해 도덕적 결정을 한 경우가 있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행동”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서술하십시오.
3. 학술 논문이나 뉴스 미디어에서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자료들을 찾아 비교·분석하는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A4 10-12장)
* 과제 속에는 학생들이 대상자를 만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또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기록 사진(documentary photograph)이 함께 있어야 한다.
4. 다음 2가지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십시오. (A4 7장 이상)
 - 1) 대학 공간에서 사회 문제나 윤리 문제에 관한 현상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기획서 형식으로 작성하십시오.
(학교 당국에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작성할 것)
 - 2)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사회 문제와 윤리 문제에 관한 현상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기획서 형식으로 작성하십시오.
(실제 지역사회 당국에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작성할 것)
5. 의학 잡지에서 읽어 본 두 개의 기사를 분석하여 비판적 리뷰를 작성하십시오.
6. 학생이 선택한 공중 보건 이슈를 초점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해 보시오.
7.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디자인 아이디어에 관한 관점과 방향을 서술하십시오. 단,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십시오.

8. 다음의 과정을 밟으며 조사 글쓰기(investigative essay)를 하시오.

1) 단순 조사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주장이 반영된 개인적 에세이 쓰기

2) 최근의 관심사 중에서 주제 정하기

-주제를 정하기 위한 기초 질문들을 과제로 제공

예) 최근에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한 사항은 무엇인가?

읽기 자료를 읽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은 무엇인가?

나의 특정한 관심사 중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것은 무엇인가?

3) 글을 쓰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읽고, 관찰하고, 조사하고, 생각하며 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모으기

9. 영화를 보고 다음의 과정을 밟으며 에세이 쓰기를 하시오.

: 글의 주제 및 근거 내용 확보를 위한 영화 읽기/보기

Movie essay workflow, roughly in order of occurrence

activity	deliverables	due dates
watch movie	attend; keep eyes open	Oct. 7 (in class)
essay drafts 1	write two essay drafts, one that explains what you've learned about teamwork from the movie (~2 pages), and one that explains what the movie says about non-verbal communication (~3 pages).	Oct. 14 (for class)
show the movie	informally explain your contention about non-verbal communication and show two film clips as evidence supporting your contention	Oct. 14 (in class)
essay 2, draft 2	based on film clip talks & discussion with Dave, revise essay 2; ~5 pages	Oct. 28 (for class)
PREP	share essay 2, draft 2 with your classmates for comment; be sure that Dave has a copy of the review comments you provide for your peers.	Oct. 28 (done in class)
essay 2, draft 3	based on peer feedback, revise again; ~5 pages	Nov. 4
essay 2, draft N	further drafting may be required	Nov. 11

1) 영화를 감상한 후 영화에 드러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 파악하기

2) 영화의 내용과 토론을 바탕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에세이를 쓰고, 쓴 글을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고, 서로 돌려 읽어 코멘트해 주기

3)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고쳐 쓰기

10. 특정 장르 형식을 익히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읽기 과제

자기 반영적 에세이- 신화와 낙하산 에세이 쓰기(Reflective Essays - Myth and Parachute Stories)

1) 신화 쓰기: 기존의 신화를 읽고 변형하여 자기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일면을 설명하는 신화를 만들어 내기 (자기 스스로에게 초능력과 비일상적인 특징을 주도록)

2) 낙하산 에세이: 장래의 고용주나 대학원 입학 담당자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글

- * 세 개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데, 한 학기 동안 다음 세 가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쓸 것
[팀 내에서 활동한 경험, 기술적 프로젝트와 관련한 경험, 의사소통과 관련한 경험]
- * '내 낙하산은 어떤 색깔인가('What color is my parachute')의 틀에 따라 3분법(trichotomy) 기술을 사용할 것
(→ 'What color is your parachute'라는 글의 형식을 본 따 자신의 글을 작성하기)
(→ 이런 종류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증, 설명 방식에 따라 써 보기)

11. 비교하기 에세이 과제(Comparative essay assignment)

- 1) 두 편의 희극을 읽고, 비교할 사항을 정하여 글쓰기
 - 무대 장치, 사건의 처리 방법 비교
 - 연출 기법의 장치 비교
 - 사회적 지위, 상황, 태도와 관련된 캐릭터 비교
- 2) 두 편의 글에서 다른 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기
 - 어떻게 다르며 왜 다른가?
 - 이 차이점(대조)을 극대화시켜 논의로 이끌고 갈 것, 그리고 그것이 연극 전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생각할 것.
 - 이 차이점은 어조, 기술적 방법, 사회적 발언, 드라마의 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음

12. 비교·분석 및 조사·연구 에세이(comparative analysis research essay) 쓰기

- 1) 본 에세이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나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에세이에서 필자인 여러분이 추구할 첫 번째 목표는 쟁점 사항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독자에게 교육시키는 것이지 어떤 관점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과제는 여러분이 필자로서 연구하고, 다양한 관점과 자료 들을 비교하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different perspectives)”을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바라보는 대조 렌즈(contrasting lenses)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렌즈들은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의료 보험 개혁 또는 총기 소지와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는 것), 경제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인 것 일 수도 있다.
- 2) 이 에세이를 위해 연구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10개의 책이나 논문과 같은 2차적 학술 자료들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자기나 타인의 일상적 경험, 공공 업무, 대중 매체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신문, 잡지 등)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자신의 연구 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 3) 이 에세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문적 지식을 가졌거나 쟁점 사항에 대해 특정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 보험 개혁과 관련한 에세이를 쓸 학생은 의료 보험 관련 전문직(의사, 간호사) 또는 현 의료 보험을 지지하는모임의 대변인을 만나 인터뷰를 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안내 사항은 수업 시간 중에 제공한다.
 - * 수정하는 동안에는 사진 자료 등의 시각적 자료가 포함되도록 한다.

13. 영화 <DEAD MAN WALKING>을 보고 글쓰기

- 1) 제목(title)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 2) Sister Helen Prejean (Susan Sarandon)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녀가 Matthew Poncelet(Sean Penn)과 상담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녀는 어떻게 영화의 흐름을 전환시키는가?
- 3) Matthew Poncelet에 대한 여러분의 첫 반응은 어떠했는가?
-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 4) 언제, 어떻게 범죄들이 묘사되었는가? 그것이 시청자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 5) <DEAD MAN WALKING>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 대해 쓰시오. 그 장면의 어떤 요소(시각적 요소, 대사 등)가 사형 선고 전의 장면이라 보게 만들었는가?
- 6)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해 써라. 그 장면의 어떤 요소들이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게 했는지 기술하라.
- 7)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 8) 영화를 보기 전에 사형 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가? 이 영화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영화는 사형 제도와 관련한 토의에서 우세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영화의 관점은 무엇인가?

14. 다음 주제에 관해 당신이 어떻게 쓸 것인지 기술하라. “눈에 보이는 길거리 범죄보다 화이트칼라의 범죄가 사회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친다.”

- 1) 정보를 수집하고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내가 취할 행동들을 나열하고,
- 2) 내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요나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라. 이때 생각을 주장하는 것과 입증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15. 다음 글에서 인류학자 Jules Henry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짧은 에세이를 쓰라.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학교 교육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를 보이라.

인간이기 때문에 전해 내려온 배움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동시에 보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알다시피 우리는 적응하려 하기 보다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고 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동물적인 우리의 직감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그 생각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시인들은 주로 두려움이라는 교육적인 수단(비웃거나 물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것을 포함)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단순히 해결했다. 그렇게 해서 인지의 반경을 좁혔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전통적인 방법 이외의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 교육의 기능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고 속박할 뿐이었다. ... 그러므로 학교는 아이들의 정신을 자극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Henry 286-88)

16. 자신이 다룬 사회 문제나 윤리 문제를 결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 논문을 4편 이상 찾으시오. 또한 이 연구 논문(들)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찾고, 그것을 비교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A4 3매)

* 관점을 비교할 때 자신의 견해를 포함시켜야 함.

17. 다음은 문중양이 쓴 『우리 역사 과학기행』(동아시아, 2006)의 197~199쪽에 실려 있는 글로, 세종대의 측우기와 수표의 모양 및 기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 위의 글을 참조하여 측우기와 수표의 기능을 설명하는 글을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해보자.

18. 다음은 송민이 쓴 「'사진'과 '활동사진, 영화」(『새국어생활』, 제11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2001)의 100~107면에 실린 글로, 근대어 '사진'의 어원을 탐구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사진'이라는 단어가 국어에 정착되는 과정을 500자 내외의 글로 요약해보자.

19. 다음은 박경미가 쓴 「수학용어처럼 복잡한 세상」(<<동아일보>> 2007. 12. 31)이라는 글로, 일상어로 사용되고 있는 수학용어에 대해 그 용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1) 앞글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영화의 흥행 방정식'이란 제목으로 세 문단의 글을 써보자.

2)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상어로 편입된 전공 용어를 찾아 용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보자.

20. 다음은 곽금주가 쓴 「짜짓기의 심리」(<<한겨레신문>>, 2007.10.3.)라는 글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1) 이 글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써 보자.

2) 이 글을 250자 내외의 한 문단으로 요약해 보자.

3) 다음 제목 중 하나를 골라 위의 글처럼 5문단 내외의 글을 써 보자.

(짜짓기의 경제학, 짜짓기의 동물학, 짜짓기의 사회학)

21. 다음은 변형운이 쓴 『경제를 되새기며』(여강출판사, 2000)의 223~225쪽에 「의식 수준의 향상」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는 글로, '구성의 오류'와 '실험 지향적 사고'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1) '구성의 오류'와 '실험 지향적 사고'를 정의해 보자.

2) 앞의 글을 400자 내외로 요약해 보자.

22. 다음은 고희중, 이변우, 김민균, 손정익이 쓴 『작물과 인간 그리고 미래』(교우아, 2004)의 214~215쪽에 실린 글로, 현대 농업의 주류인 '단작'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1) '윤작, 복작, 단작'을 '종차(개별적인 특성)'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각각 정의해 보자.

2) 핵심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전체 내용을 150자 내외로 요약해보자.

23. 다음은 민석홍이 쓴 「역사와 지성」의 일부로, 『새물결』(1975)에 실려 있는 글을 『대학국어』(서울대학교출판부, 2004)의 40~41쪽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참된 지성이 무엇인지를 역사의 발전과 결부지어 설명하고 있다.

- 1) 각 문단별로 요약에 포함시킬 주요 사항을 찾아 밑줄을 긋고, 그 내용이 요약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자.
 - 2) 전체 내용을 250자 내외로 요약해 보자.
24. 다음은 오진곤이 엮은 『과학자와 과학자집단』(전파과학사, 1999)의 52~54쪽에 실려 있는 글로, 지적 재산권의 성립 과정과 그 의미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 1) 각 문단의 화제를 찾아 개요 형식으로 정리해 보자.
 - 2) 전체 내용을 150자 내외로 요약해 보자.
25. 다음은 김병중이 쓴 「광기와 과학의 붓 한 자루 인생」(『화첩기행』, 효형출판, 1999)의 290~293쪽에 실린 글로, 조선 시대의 화가 최북(1712~1786)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 1) 250자 내외의 한 문단을 덧붙여 이 글을 마무리해보자.
26. 다음은 정민이 쓴 『정민 선생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보림, 2002)의 77~81쪽에 실린 글로, ‘무궁화’와 ‘해바라기’의 습성 차이를 비교하여 논하고 있다.
- 1) 무궁화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 보자.
 - 2) 해바라기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 보자.
 - 3) 필자의 궁극적인 주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내 보자.
27. 다음은 김영식이 쓴 『역사와 사회 속의 과학』(서울대학교출판부, 1994)의 3~5쪽에 실린 글로, 자연과학의 방법에 대한 과학철학적 논란이 잦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1)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를 한 문단으로 써 보자.
 - 2) 자연과학의 방법에 대해 과학철학적 논란이 잦은 이유를 한 문단으로 정리해 보자.
28. 다음은 클라이브 폰팅이 쓴 『녹색세계사』(이진아 옮김, 그물코, 2003)의 22~24쪽에 실려 있는 「이스터 섬의 교훈」이란 글로, 이스터 섬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1) 이스터 섬이 몰락하게 된 과정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400자 내외로 요약해 보자.
29. 다음은 황정미가 쓴 「성(性) 대결, 그 신화를 넘어서」의 일부로, 『우리 안의 이분법』(권용립 외, 생각의 나무, 2004)의 176~180쪽에 실려 있는 글이다. 성별 문제에 대한 남성 중심적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 1)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녀의 차이를 보는 견해’의 세 유형 중 하나를 택해, 그 견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구체화하여 서술하는 한 편의 글을 써 보자.
30. 읽기자료 : E.H.카야,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01, 17~24, 47~50쪽을 읽고
- 1) 이 글에 나오는 핵심어 과거의 사실, 과거에 대한 사실, 역사적 사실의 개념을 요약하시오.
 - 2) 윗글에 대한 요약은 주요한 골자만을 간추리는 삭제와 선택 방법이 적절하다. 글의 흐름을 고

려하면서 주요 골자를 세 문장으로 써보시오.

- 3)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질문2에서 요약된 내용을 참고로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써보시오.
- 4) 윗글을 읽고 “역사는 대화다”라는 주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위해 요약한다면,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 5) 앞의 질문들에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두세 문장으로 줄여보시오.

31. 읽기자료 : 에리히 프롬, 장경룡 역, 『자유에서의 도』, 해원출판사, 1999, 266~271쪽을 읽고

- 1) 윗글의 핵심어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요약 해보시오.
- 2) 윗글에서 요약을 위해 선택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보시오.
- 3)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질문2의 내용 요약을 참고로 주제문을 써보시오.
- 4) 윗글을 읽고 “자유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을 위해 요약한다면,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 5) 앞의 질문들에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두세 문장으로 줄여보시오.

32. 읽기자료 : 데카르트 저, 이현복 옮김, 『성찰』, 문예출판사, 1997, 34~41쪽을 읽고

- 1) 축자적 분석
 - ① 중요한 핵심어를 세 개 이상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시오.
 - ②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세 문장 이상 찾아 자신의 말로 풀어 써보시오.
 - ③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문을 찾아 자신의 말로 풀어 써보시오.
- 2) 구조적 분석
 - ④ 데카르트가 이 텍스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 ⑤ 이 텍스트의 서술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시오.
 - ⑥ ④와 관련하여, 데카르트가 제1성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을 설명해 보시오.
 - ⑦ 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데카르트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나 절차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⑧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는 없기에 원리들 자체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 까닭을 찾아 보시오.
 - ⑨ 데카르트가 어떻게 해서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이 온 힘을 다해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요약해보시오.

33. 읽기자료 : 리처드 도킨즈, 홍영남 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06, 338~346쪽을 읽고

- 1) 축자적 분석
 - ① 중요한 핵심어들을 세 개 이상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시오.
 - ②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말로 풀어 써보시오.
 - ③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시오.

2) 구조적 분석

- ④ 리처드 도킨스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 ⑤ ④와 관련하여,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고자 한 이 텍스트의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시오.
- ⑥ 리처드 도킨스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 ⑦ 리처드 도킨스가 은유를 끌어들이며 밈과 유전자를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4. 읽기자료 : 버지니아 울프, 오진숙 역, 『자기만의 방』, 숲, 2004, 9~15쪽을 읽고

1) 내재적 비평

- ① 저자가 위의 글에서 말한 여성과 픽션의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비교해 보시오.
- ② 이 글에서 저자의 여성주의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저자의 관점을 지지할 만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시오.
- ③ ‘허구는 사실보다 더 많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시오.

2) 외재적 비평

- ① 이 책이 출간될 당시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는지 논의해보시오.
- ② 여성이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지적과 문제의식이 오늘날 여성들에게도 가장 주요한 요소인지 논의해 보시오. 달라졌다면 여성의 주체적,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시오.

35. 다음에 제시한 세 편의 글 중 첫 번째 글은 모든 생물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두 번째 글은 ‘서로주체성’의 중요성을, 그리고 세 번째 글은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의 자기 정립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 글과 세 번째 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자면 진정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 자신의 자기 통제와 기율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 규정된 인간의 속성에 따르면 어떻게 이런 도덕적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삶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라면 이타적 행위나 타인과의 협동, 혹은 동물이나 곤충에게서 볼 수 있는 공동체(집단)를 위한 개체의 희생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 주어진 읽기자료 :

-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이상임 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0.
- 김상봉, 『도덕교육의 파시즘』, 박우정, 2005.
- 우리사상연구소, 「윤리·도덕」, 『우리말 철학사전 2』, 지식산업사, 2002.

36. 다음에 제시한 두 편의 글 중 첫 번째 것은 남성의 권력이 여성의 몸에 어떻게 각인되는가를

분석한 캐롤 타브리스의 책에서 발췌한 것이고, 두 번째 글은 이 책에 대한 서평 형식의 글로 캐롤 타브리스의 문제의식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논의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1) 남녀의 성차(性差)를 설명하는 학문적 관점 중에서 두 번째 글의 필자가 말한 구성주의적 관점과 본질주의적 관점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 번째 글의 내용에서 추론해서 써 보라.(1000자)

2) 첫 번째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본다면 외모에 대한 여성들의 집착은 남성들의 권력이 여성의 무의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수용한다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까지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와 성형에 매달리는 경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2000자)

* 주어진 읽기자료

- 캐롤 타브리스, 히스테리아 역, 「몸 : 미인과 가슴」, 『여성이 남성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 또하나의문화, 1999.

- 김혜인(omardot) (출처 : www.cafe.naver.com/defem/413)

37. 다음 글들은 ‘나’를 전체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전체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의 도덕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국가(전체)에 포섭하고 복종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획은 실제 생활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 글에서 거론된 것과는 다른 예를 찾아서 파시즘의 논리가 개인의 내면에 어떻게 정착되고 작동하는지 분석해 보라.

* 주어진 읽기자료 :

- 박구용, 「도덕 교과서 첫 장부터 고치자」, 『한겨레 21』, 2006. 1. 24.

- 임지현, 「너 뉘집 아들이야? - 언어 안의 파시즘」,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38. 다음 책을 읽고 서평을 써보시오.

* 배수아, 『당나귀들』, 이룸, 2005.

* 스펜서 존슨, 이영진 역,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진명출판사, 2000.

*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03.

39. 다음 글을 읽고 ‘동물 실험 문제에 대한 1,500자 내외의 글을 작성해 보자.’

* 피터 싱어, 황경식·성동 역, 『실천윤리학』, 철학과현실사, 1997.

40. 고전은 “모든 텍스트는 이미 다 쓰여졌다.”고 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창조의 원천이기도 하다. 다음 예문을 읽고 고전의 창조적 계승에 성공한 판타지문학과 현대문화의 관계를 논하여 보자.

* 주어진 읽기자료 :

- 김용석, 『철학광장: 대중문화와 필로소페인』, 한겨레 출판, 2010.

41. 다조마루, 마사코, 다케히로의 증언을 분석하여 이들이 보여주는 이기성의 성격을 설명하는 글을 써 보도록 한다. 그들의 행위가 유전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문화적 진화의 결과로 해명될 수 있는 것인지 각자 입장을 정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제 3의 입장도 가능하다.

* 주어진 읽기자료 :

- 이쿠타가와 류노스케, 『덤불속』, 문예출판사, 2008.

42.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를 읽고, '가이아 이론'에 관하여 요약해 보자.

* 주어진 읽기자료 :

- 제임스 러브록, 홍욱희 역, 『가이아 -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갈라파고스, 2004

43.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저서 『엔트로피 법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법칙'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아래의 예문 한 단락을 참조하여 5단락 정도의 완성된 글을 써 보자.

열역학 제1법칙은 우주 안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불변하여 창조될 수도 파괴될 수도 없으며, 단지 그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물질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변하는데,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한 상태로, 획득 가능한 상태에서 획득 불가능한 상태로만 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엔트로피는 더 이상 일로 전환될 수 없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정량의 유용한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결국 엔트로피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무용한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낸다.

44.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읽고, 다음 독자의 입장 중 하나를 택해 감상문을 작성하시오.

- ① 비료회사의 간부
- ② 환경 관련 학자

45. 정현종의 「대학시절을 향하여」(『숲과 꿈』, 문학과지성사, 1982)를 읽고 다음에 답해 보라.

1) 예문에 따르면,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교수자들과 그들의 제자로서 학문을 수업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공동체”이다. 이 말은 대학의 기원이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열정과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한 계약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대학의 기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대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의 대학에서, 혹은 대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2) 예문에 따르면, “학문 연구의 자유는 인간 사회의 지배체제의 권력과 연결된 사회제도의 타성을 극복하고 인류문화의 중화를 막기 위해서 늘 새로운 생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 “학문 연구의 자유”가 사회 비판의 원동력이 되었던 역사적 사례를 찾아보자. 또한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는 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 3) 예문에서 글쓴이는 “의식적인 꿈꾸기”가 대학 시절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한다. “의식적인 꿈꾸기”란 어떤 것인가? 글쓴이가 말한 대학 시절의 양면성을 실제로 대학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가?
- 4) 위의 ‘대학에 관한 생각을 떠올려 보기’에서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대학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과제에서 연상되는 핵심어들을 나열해 보자.
 - 위의 핵심어에서 관심 있는 화제를 선택해 보자.
 - 화제를 정한 뒤에는 그 화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단어를 나열해 보자.
 - 어떤 독지를 상정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5) 선택한 화제에 맞는 주제문을 써 보고 그에 따라 개요를 작성해 보자.

46. 도정일의 「서울을 위한 썰렁한 노래」(『한겨레』, 2005. 11. 3.)를 읽고 지시하는 대로 글을 바꾸어 새롭게 작성해 보자.

- 1) 이 글을 500자 내외로 요약해 보자.
- 2) 요약한 글을 아래와 같이 독자를 바꾸어 다르게 써 보자.
 - ① 서울 시장
 - ② 환경 전문가
- 3) 요약한 글을 아래와 같이 글의 목적을 바꾸어 다시 써 보자.
 - ① 서울의 환경을 개선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
 - ② 이 글의 주된 내용을 비판하고 서울의 도시 환경을 예찬하는 글

47. 장 자크 루소의 「생살권에 관하여」(『사회계약론』, 이환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는 ‘생명권을 주권자에게 이양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반박하고 있다. 위 글에서 주장하는 ‘생명권을 주권자에게 이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반박하는 글을 써 보자.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이 어떠한 논리적 흐름을 가지는지 위의 글과 비교해 보자.

48. 아래 예문은 비유적 표현을 인용하는 것으로 단락을 시작하고 있다. 이 글에서 ‘무한한 감옥’이라는 표현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어떤 특징을 가리키기 위한 비유인가?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단락 글을 새롭게 써 보자.

김슨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일컬어 ‘무한한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끝없이 여행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자적이며, 우리는 현실적인 물리적 우주뿐만 아니라 가능세계와 상상의 세계까지도 전적으로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한한 육체를 지닌 존재에게, 그러한 무한성은 비물리적인 2차적 영역 속에 감금되는 감옥과 같다.

VR(가상현실) 시스템은 물리적 공간을 표상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화성이나 깊은 바다에서 전송된 광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 원격현전을 느끼도록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의 자료를 구축하는 일은, 본래의 신체를 움직이고 있는 내적 생체 에너지로부터 사용자를 멀리 떼어 놓는다.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여명숙 옮김, 책세상, 1997.)

49. 다음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예술관을 담고 있는 글의 일부이다. 글쓴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증, 예증, 반증, 추론 등 어떤 논증 과정이 뒤따라야 할지 생각해 보자.

그저 상상만으로 자연과 인간 사이의 통역자가 되려 하는 예술가들은 신뢰할 수 없다. 첫째, 훌륭한 예술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깊게 해야만 한다. 둘째, 그림의 수법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필요하다.

(서정선, 『논리학의 첫걸음』, 서광사, 2002.)

50. 아래에 제시한 글을 읽고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추론을 통해 페일리의 견해를 반박하는 글을 써 보자.

도덕적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페일리는 그의 저서의 ‘시민의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라는 장에서 모든 시민적 의무를 편법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가 그것을 요구하는 한,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는 기존 정부에 저항하거나 그 정부를 바꿀 수 없는 한 기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러한 원리를 인정한다면 모든 개별적인 저항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한편으로는 위험과 불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선의 가능성과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H.D. 소로, 『시민의 불복종』, 강승영 옮김, 이레, 1999.)

51.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영화나 책을 선택해 감상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라는 과제를 받았다고 하자. 각자 선정한 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방향으로 감상문을 쓸지 논의해 보자.

52. <자연과학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진화론’에 대한 책을 읽고 서평을 쓰라는 과제를 받았다고 하자. 각자 선정한 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방향으로 서평을 쓸지 논의해 보자.

<참고 문헌>

외국 자료 문헌

Edward M. White, *Assigning Responding, Evaluation and Topic*, 2007.

James D. Willams, *Preparing To Teach Writing*, 2003.

MIT opencourse ware, <http://ocw.mit.edu>

국내 자료 문헌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사회과학과 글쓰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김경훤·김미란·김성수, 『창의적 사고 소통의 글쓰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서강대학교 교양국어 교재편찬위원회, 『인문·사회계열 움직이는 글쓰기』,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6

서울대학교 대학국어편찬위원회 편, 『대학 국어: 글읽기와 글쓰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의사소통센터, 『글쓰기와 읽기』, 경문사, 2011.

오성호, 『대학 글쓰기』, 새문사, 2008.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편, 『글쓰기』,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정희모, 『대학글쓰기』, 삼인, 2007.

부록3. 국내 대학의 읽기 자료 소개

<영역별 권장도서>

영역	권장도서
글쓰기 방법	<p>NIE한국위원회, 『대학생 글쓰기 가이드』, 한국신문협회, 2010</p> <p>강명구의, 『과학 기술 글쓰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p> <p>고려대학교사교외표현편찬위원회, 『글쓰기의기초』,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p> <p>고종석, 『국어의 풍경들:고 종석의 우리말 강좌』, 문학과지성사, 1999</p> <p>고종석, 『말들의 풍경: 고종석의 한국어산책』, 개마고원, 2007</p> <p>구현정, 『대화의 기법』, 한국문화사, 1999</p> <p>권영민, 『우리 문장 강의』, 신구문화사, 2004</p> <p>김경환의, 『창의적사고 소통의 글쓰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p> <p>김경환, 『글쓰기를 위한 문장의 실제와 분석』, 지코사이언스, 2010</p> <p>김기태,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지식의날개, 2010</p> <p>김봉근, 『문장기술론』, 삼영사, 1994</p> <p>김성수, 『프랑켄슈타인의 글쓰기-상처 입은 젊은 영혼들과의 대화』 글누림, 2009</p> <p>김형순, 『논문10%만 고쳐 써라!』, 야스미디어, 2005</p> <p>나탈리골드버그, 권진옥역, 『뺏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한문화, 2005</p> <p>린다플라워, 원진숙·황정현역, 『글쓰기의 문제 해결전략』, 동문선, 2002</p> <p>모티머.J.애들러, 민병덕 역, 『독서의 기술』, 범우사, 2011</p> <p>바바라애버크롬비,이민주역, 『글 잘 쓰는 기술』, 브리즈, 2006</p> <p>박미라, 『치유하는 글쓰기』, 한겨레출판, 2008</p> <p>박우현, 『논리를 모르면 웃을수도없다』, 책세상,2006</p> <p>설리번, 『작문,문단 쓰기로 익히기』, 삼영사, 2000</p> <p>성광수, 『언어란 무엇인가』</p> <p>숙명여대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세상을 바꾸는 글 읽기와 쓰기』, 숙명여대출판국, 2005</p> <p>숙명여대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숙명여대출판국, 2006</p> <p>스티븐킹, 김진준역, 『유혹하는 글쓰기』, 김영사, 2002</p> <p>애니탈러드, 이미선역, 『창조적 글쓰기』, 공존, 2008</p> <p>앤서니웨스턴 저 이보경 역, 『논증의 기술』, 필맥,2004</p> <p>오토크루제, 『공포를 날려버리는 학술적 글쓰기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p> <p>윌리엄진서, 이한중역, 『글쓰기 생각쓰기』, 돌베개, 2007</p> <p>이오덕, 『우리글바로쓰기』, 한길사, 1992</p> <p>이익섭, 『쓰기 능력의 중요성』, 새국어생활, 1999</p> <p>이재성, 『글쓰기를 위한 4천만의 국어책』, 들녘, 2006</p> <p>이재승, 『글쓰기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2003</p> <p>이창덕 외, 『삶과 화법』, 박이정, 2004.</p> <p>이희승·안병희, 『새로 고친 한글맞춤법강의』, 신구문화사, 2006</p> <p>이희승·안병희, 『한글맞춤법강의(중보)』, 신구문화사, 2010</p> <p>임재춘,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 북코리아, 2006</p> <p>장영희, 『은유로서의 신체장애』, 『미국학논집』33, 2001</p> <p>장재성, 『문장표현사전』, 문장연구사, 2002</p> <p>장하늘, 『글 고치기 전략』, 다산초당, 2006</p> <p>정희모·이재성, 『글쓰기의 전략』, 들녘, 2005</p> <p>줄리언바지니, 강수정역, 『가짜논리』, 한겨레출판, 2011</p>

	<p>채석용, 『논증하는 글쓰기의 기초』, 소울메이트, 2011 최용 외, 『(과학 기술자를 위한) 이공계글쓰기』, 북스힐, 2006 캐슬린E.설리번, 최현섭역, 『작문, 문단 쓰기로 익히기』, 삼영사, 2000 손동현 외, 『학술적글쓰기』, 성균관대출판부, 2005 한철우·성낙수·박영민, 『사고와 표현』, 교학사, 2003</p>
<p>문학</p>	<p>P.Levi, 이현경 역, 『주기율표』, 돌베개, 2007 D.H.로렌스, 김정매 역, 『무지개 상.하』, 민음사, 2006 J.D.셀린저, 『호밀밭의 파수꾼』 N.호손, 『주홍 글씨』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2006 공지영, 『도가니』, 창비, 2009 곽효환, 『지도에 없는집』, 문학과지성사, 2010 구효서, 『나가사키 파파』, 뽕, 2008 귀스타브 플로베르, 『보바리부인』 그림형제, 『그림동화전집』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91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민음사, 1995 김기택, 『검』, 창비, 2009 김수영, 『김수영 시전집』 김승옥, 『환상수첩』, 문학동네, 2004 김승희, 『냄비는 둥둥』, 창비, 2006 김애란, 『달려라 아버지』, 창비, 2005 김연수, 『나는 유명작가입니다』, 창비, 2005 김인숙, 『그 여자의 자서전』, 창비, 2005 김주영, 『홍어』, 문이당, 2005 김혜순, 『당신의 첫』, 문학과지성사, 2008 김훈, 『지옥 속의 낙원-식영정, 소쇄원, 면양정』, 『자전거여행』 김훈, 『남한산성』, 학고재, 2007 김훈, 『칼의 노래』, 생각의나무, 2001 노신, 『어Q정전』 로버트 먼치, 김태희역, 『종이봉지공주』, 비룡소, 1998 무라카미 하루키, 유유정 역, 『상실의 시대』, 문학사상사, 2000 무라카미 하루키, 윤성원 역, 『태엽 감는 새』3, 문학사상사, 1995 문인수, 『쉬』, 문학동네, 2006 문태준, 『가재미』, 문학과지성사, 2006 밀란 쿤데라, 이재룡 역,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민음사, 2009.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2006 박민규, 『카스테라』, 문학동네, 2005 박범신, 『고산자』, 문학동네, 2009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씽크빅, 2005 박완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2006 박주택, 『시간의 동공』, 문학과지성사, 2009</p>

박지원, 『열하일기』
 박태원, 『천변풍경』, 문학과지성사, 2005
 박후기, 『내 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 창비, 2009
 배수아, 『당신 안의 나르시스』, 『내 안에 남자가 숨어 있다』, 이룸, 2000
 송기원, 『사람의 향기』, 창작과비평사, 2003
 송찬호,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 문학과지성사, 2009
 스티븐 핀커, 『언어본능』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창비, 1998
 신경숙,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문학동네, 2010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신달자, 『열애』, 민음사, 2007
 아룬다티로이, 『9월이여 오라』, 녹색평론사, 2011
 아쿠타가와, 『아쿠타가와 작품선』
 안도현, 『간절하게 참 칠없이』, 창비, 2008
 알베르 카뮈, 이회영 역, 『이방인』, 문예출판사, 2004
 얼 쇼리스, 이병곤 역,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2006
 오노레드발자크, 선영아 역, 『인생의 첫출발』, 문학과지성사, 2008
 오르한 파묵, 이난아 역, 『내 이름은 빨강』, 민음사, 2009
 울더스헉슬리, 이덕형 역, 『멋진 신세계』, 문예출판사, 1998
 윤홍길, 『장마』, 민음사, 2005
 이문열, 『젊은 날의 초상』, 민음사, 1981
 이상, 『날개』, 문학과지성사
 이성복, 『아, 입이 없는 것들』, 문학과지성사, 2003
 이스마엘 카다레, 유정희 역, 『부서진 사월』, 문학동네, 2006
 이원, 『야후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뜬다』, 문학과지성사, 2001
 이윤기, 『두물머리』, 민음사, 2000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2003
 이청준, 『별레 이야기』, 열림원, 2007
 장대송, 『섬들이 놀다』, 창비, 2003
 장정일, 『아담이 눈뜰 때』, 김영사, 2005
 장철문, 『무릎 위의 자작나무』, 창비, 2008
 장하준, 이순희 옮김,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길사, 2007
 정끝별, 『외락』, 창비, 2008
 정이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03
 정현중, 『세상의 나무들』, 문학과지성사, 1995
 정희성, 『돌아다보면 문득』, 창비, 2008
 제인 오스틴, 전승희 역, 『오만과 편견』, 민음사, 2009
 조나단 스워프트, 『걸리버 여행기』
 조설근, 『홍루몽』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78.
 조셉 콘라드, 『암흑의 핵심』
 조지오웰, 『1984』, 민음사, 2011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주체사라미구, 정영목 역, 『눈 먼 자들의 도시』, 해냄출판사, 2003

	<p>찰스 디킨스, 『위대한유산』 천명관, 『고령화가족』, 문학동네, 2010 최인훈, 『광장』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황석영, 『손님』, 창비, 2001 황지우,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문학과지성사, 1998</p>
인문 사회	<p>『우리들은누구인가? 타자들은누구인가?』, 『미국패권의몰락』, 창비, 2004 『녹색평론 선집1』, 녹색평론사, 2008 『비관적 사고와 과학 글쓰기』, 연세대출판부, 2008 『난중일기』 D.Haraway, 『유인원,사이보그,그리고여자:자연의재발명』, 동문선, 2002 DonnaJoNapoli, 김종복·이성하역, 『언어의 신비』, 태학사, 2007 E.Fromm, 황문숙 역,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E.베르나르, 박종탁 역, 『세잔느의 회상』, 열화당, 1995 E.HCarr, 권오석 역, 『역사란 무엇인가』, 홍신문화사, 2007 J.L.Borges, 황병하 역, 『기억의 천재 푸네스』 Morris,Desmond, 『인간동물원10』, 문음사, 1994 S.Sontag 저 유경선 역, 『사진이야기』, 해냄, 1986 가브리엘가르시아마르케스, 조구호 역, 『백년의 고독』, 민음사, 2000 강상중, 『고민하는 힘』, 사계절, 2009 강양구,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프레시안북, 2007 강준만, 『글쓰기의 즐거움』, 인물과사상사, 2006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역,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고종석,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1999 고종석, 『코드 훔치기』, 마음산책, 2002 고철환,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공상철 외,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다락원, 2001 국립국어원, 『어문규정집』, 국립국어원홈페이지자료실, 2008 권혁범, 『월드컵 '국민축제' 블랙홀에 빨려들어난 '대한민국』, 『당대 비평』20호, 2002 권혁웅, 『마징가제트 계보학』, 문학과지성사, 2005 길밖세상, 『20세기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2004 김경환김미란김성수, 『창의적사고소통의글쓰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김교빈외, 『동양철학에세이』, 동녘, 2006 김구, 도진순역, 『백범일지』, 돌베개, 2005 김기봉,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웅진씽크빅, 2006 김대호, 『2013년 이후-희망 코리아로 가는 길』, 백산서당, 2011 김대환,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 쿰란출판사, 2009 김동식, 『인문학 글쓰기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창비, 2010 김두식,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4 김보경, 『교사는 어떤 노동자인가』, 생각의나무, 2003 김상봉, 『호모에티쿠스』, 한길사, 1999 김어준, 『건투를 빈다』, 푸른숲, 2008</p>

김연수, 『여행할 권리』, 창비, 2008
 김영두,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2003
 김영민, 『공부론』, 샘터, 2010
 김영순, 『패러디와 문화』, 한양대출판부, 2005
 김예슬, 『김예슬 선언-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느린걸음, 2010
 김용석, 『미녀와 야수, 그리고 인간』 푸른숲, 2000
 김종철, 『간디의 오두막』, 『녹색평론선집1』, 녹색평론사, 2008
 김종철, 『나는 왜 컴퓨터를 안 살 것인가. 여성주의, 육체, 기계』
 김종철, 『간디의 물레』, 녹색평론사, 2010
 김지하, 『생명과 평화의 길』, 문학과지성사, 2005
 김하수,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서』, 『한국어+4호』, 연세대학교언어정보 연구원
 김호기의, 『지식의 최전선』, 한길사, 2002
 노암 촘스키 강주현역, 『지식인의 책무』, 황소걸음, 2006
 노암 촘스키, 강주현역,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시대의 창, 2002
 니콜라스카, 최지향 역,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청림출판, 2011
 다자이 오사무, 김춘미 역, 『인간실격』, 민음사, 2004
 다치바나 다카시, 이언숙 역,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청어람미디어, 2001
 다카하라 모토아키, 정호석 역, 『한-중-일 인터넷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2007
 레이첼 키슨, 김은령역, 『침묵의 봄』, 예코리브, 2011
 레즐리 스티븐슨,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일곱 가지 이론』, 종로서적, 1991
 로버트 달, 박상훈 역,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4
 로버트 오언, 이승우 역, 『사회에 관한 새로운 의견』, 지만지고전출, 2008
 롤랑 바르뜨, 조광희 역, 『카메라루시다』, 열화당, 1986
 롤랑 바르뜨,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롤랜드 올리버, 배기동 역, 『아프리카』, 여강출판사, 2001
 리호이나키,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 당대, 2012
 리영희, 『리영희 저작집6: 역정』, 한길사, 2006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역, 『생각의지도』, 김영사, 2004
 리타 펠스키, 김영찬 역, 『근대성과페미니즘』, 거름, 1998
 리하르트 반틸멘, 최윤영역, 『개인의 발견』, 현실문화연구, 2005
 마르시아스심, 『심미주의자』, 생각의나무, 2001
 마빈 조니스, 김덕중 역, 『빅맥이나 김치이나』, 지식의날개, 2004
 마빈 해리스, 박종열 역,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2000
 마이클 샌델,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마이클 화이트, 안인희 역, 『최초의과학자-레오나르도다빈치』
 마츠오카 세이고, 변은숙 역, 『지식의 편집』, 이학사, 2004
 말로모건, 김석희역, 『무탄트』, 정신세계사, 1994
 메리울스턴크래프트, 손영미 역, 『여권의 옹호』, 한길사, 2009
 미네르바정치학회편, 『정치@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8.
 미셸 투르니에, 이규현 역, 『황야의 수탉』, 현대문학, 2005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역사』, 나남, 2004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1』, 한겨레출판, 2011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2』, 한겨레출판, 2006
 박석무, 『다산정약용유 배지에서만나다』, 한길사, 2003
 박태근·유용태·박진우,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작과비평사, 2011
 박형민, 『자살, 차악의 선택』, 이학사, 2010
 박희병 편역, 『선인들의 공부법』, 창작과비평사, 1998
 버트런드 러셀, 송은경 역,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사회평론, 1999
 버트런드 러셀, 송은경역, 『게으름에 대한 찬양』, 사회평론, 2005
 법륜, 『마음의 평화, 자비의 사회화』, 정토출판, 2002
 복거일, 『국제어시대의민족어』, 문학과지성사, 1988
 복거일,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문학과지성사, 2009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역동적복지국가의길』, 뫼, 2011
 브루스 커밍스, 남성욱 역, 『김정일 코드』, 따뜻한손, 2005
 빅터 프랭클, 김충선 역,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아출판사, 1995
 빈프리트뤼쉬부르크, 이문수 역, 『여행의 역사』, 효형출판, 2003
 서경석, 김혜신 역, 『디아스포라기행』, 돌베개, 2006
 세실리아링크비스트, 김하림 역, 『한자왕국』, 청년사, 2002
 스투어트유엔, 백지숙 역,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시각과언어, 1996
 신정근, 『동양 철학의 유혹』, 이학사, 2002
 신지영 외, 『열려라, 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2011
 안토니오 네그리,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2001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단두대에 대한 성찰』, 책세상, 2004
 앤소니 기든스,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7
 엄기호, 『우리가 잘못 산게 아니었어』, 웅진지식하우스, 2011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푸른숲, 2010.
 에너지정책기후연구소, 『탈핵-포스트후쿠시마와 에너지전환시대의 논리』, 이매진, 2011
 에드워드플레넬, 김병욱 역, 『정복자의 시선』, 마음산책, 2005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장대익 역, 『통섭: 지식의대통합』, 사이언스북스, 2005
 에릭홀스봄, 김동택 역, 『저항과 반역 그리고 재즈』, 영남카디널, 2003
 에밀졸라, 유기환 역, 『나는 고발한다』, 책세상, 2005
 에버하르트피비우스, 김라합 역,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 보리, 2000
 영국사상연구소, 박민아외역,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2009
 윌터J웅, 이기우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유흥준, 『나의 북한문화 유산 답사기』, 중앙엠엔비, 2001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문화사, 2000
 이규환, 『주요국의 교육제도』, 배영사, 2010
 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2001
 이매뉴얼 윌러스틴, 한기욱 역, 『미국패권의 몰락』, 창비, 2004
 이영수, 『스크린 앞에서 투덜대기』, 문학과지성사, 2001
 이외수, 『감성사전』, 동승동, 2006.

이유선, 『사회 철학: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는 가능한가?』, 민음인, 2009
 이희재·박재동·손문상, 『십시일반』, 창작과비평사, 2008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무지한스승』, 궁리, 2010
 장 폴 샤프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학사, 2008
 장 폴 샤프트르, 박정태역, 『지식인을 위한 변명』, 이학사, 2007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부키, 2010
 장하준, 이순희 역,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길사, 2007
 정민, 『다산선생 지식 경영법』, 김영사, 2006
 정민, 『삶을 바꾼 만남』, 문학동네, 2011
 정수일, 『이슬람문명』, 창작과비평사, 2002
 정약용,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 2009
 정화열,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제레미시브룩, 황성원 역,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이후, 2007.
 제인 구달, 김은영 역, 『희망의 밥상』, 사이언스북스, 2006
 제임스서로위키, 홍대운 이창근역, 『대중의지혜』, 램덤하우스중앙, 2005
 조셉캠벨 빌모이어스 저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깔리오, 2007
 조영래, 『전태일평전』, 전태일기념사업회, 2009
 조지오웰, 이한중 역, 『나는 왜 쓰는가』, 한겨레출판사, 2010
 존루이스개디스, 박건영 역,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사회평론, 2003
 존버거, 박범선 역, 『본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2000
 존 버거 저 편집부 역, 『이미지』, 동문선, 1990
 존 블룸필드, 박영준 역, 『지식의 다른 길』, 양문, 2002
 주장현, 『왼손과 오른손』, 시공사, 2002.
 진중권의,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 한겨레출판, 2007
 진중권, 『호모코레이니쿠스』, 웅진지식하우스, 2007
 찰스 테일러 송영백 역, 『불안한 현대사회』, 이학사, 2001
 최석영, 『김치 애국주의: 언론의 이유 없는 반일』, 인물과사상사, 2010
 최영준, 『길의 역사 길의 사상』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의나무, 2008
 최현, 『인권』, 책세상, 2008
 최효찬, 『일상의 공간과 미디어』, 연세대출판부, 2007
 캔월버 저 조효남 역, 『모든 것의 역사』, 대원출판, 2004
 커스틴셀라스, 오승훈 역,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은행나무, 2003
 편상범 역, 『윤리학:행복은 도덕과 같등하는가?』, 민음인, 2009
 폴루르그먼, 김광전 역, 『경제학의 진실』, 황금사자, 2009
 프란츠 파농,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하워드 진, 이재원역, 『역사의 힘』, 예담, 2009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4
 한상진,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문학과지성사, 1989
 한승동, 『대한민국 걷어차기』, 교양인, 2008

	<p>헬레나노르베리호지, 양희승역, 『오래된 미래』, 중앙북스, 2007</p> <p>현대원 외, 『프레스널미디어』, 디지털미디어리서치, 2004</p> <p>후루사와 코유, 「지구환경 문제와 식량 농업」, 『녹생평론』64호, 2002</p> <p>후코오카 마사노부, 최성현 역, 『짚 한오라기의 혁명』, 한 살림, 2005</p> <p>히로나카 헤이스케, 방승양역, 『학문의 즐거움』, 김영사, 2008</p>
예술	<p>LeCorbusier, 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2</p> <p>R.Venturi, 임창복 역,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동녘, 2004</p> <p>다카시나 슈지, 신미원 역, 『명화를 보는 눈』, 놀와, 2002</p> <p>송해진, 『국악 이렇게 들어 보세요』, 다른세상, 2002</p> <p>승효상, 『건축: 사유의 기호』, 돌베개, 2004</p> <p>지상현, 『너, 아름다움을 말하다』, 해나무, 2005</p> <p>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5</p>
자연 과학	<p>『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노끈』, 까치, 1999</p> <p>『아이슈타인이 요리사에게 들려준 이야기』, 해냄출판사, 2003</p> <p>『중국의 과학과 문명: 사상적 배경』, 까치글방, 1998</p> <p>F.카프라, 김용정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2006</p> <p>J.리프킨, 최현 역, 『엔트로피』, 범우사, 1998</p> <p>강석진, 『수학의 유혹』, 문학동네, 2011</p> <p>기노시타고레오 저 김성수역, 『과학글쓰기핸드북』, 사이언스북스, 2006</p> <p>김영식, 『인문학과 과학-과학기술시대 인문학의 반성과 과제』, 돌베개, 2011</p> <p>김훈기, 『합성생명』, 이음, 2010</p> <p>니콜라스네그로폰테토, 백옥인 역, 『디지털이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p> <p>다윈, 『종의기원』</p> <p>다이앤애커먼, 백영미 역, 『감각의 박물학』, 작가정신, 2004</p> <p>데즈먼드 모리스, 김석희 역, 『털없는 원숭이』, 문예춘추사, 2011</p> <p>레이첼 카슨, 김은령 역, 『침묵의 봄』, 예코리브르, 2011</p> <p>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역, 『이기적유전자』, 을유문화사, 2010</p> <p>린마굴리스 외, 『생명이란 무엇인가』, 지호</p> <p>바버라 매클린톡, 김재희 역, 『생명의 느낌』, 양문, 2001</p> <p>박성래, 『다시 보는 민족 과학이야기』, 두산동아, 2002</p> <p>박창법,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 2002</p> <p>배리파커, 이충환 역,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성 이론』, 양문, 2002</p> <p>브라이언 그린, 박병철 역, 『엘러건 트유니버스』, 승산, 2002</p> <p>송기원 엮음, 『멋진 신세계와 판도라의 상자』, 문학과지성사, 2009</p> <p>슈뢰딩거, 전대호역, 『생명이란무엇인가』, 궁리, 2007</p> <p>스티븐 제이골드, 이명희 역, 『폴하우스』, 사이언스북스, 2002</p> <p>스티븐 호킹, 김동광 역, 『시간의 역사』, 까치, 1998</p> <p>안중주,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 궁리, 2003</p> <p>앨런 홉스, 임지원 역 『꿈-과학으로 푸는 재미있는 꿈의 비밀』, 아카넷, 2003</p> <p>에리히얀치, 홍동선 역, 『자기 조직하는 우주』, 범양사, 1989</p> <p>와키히데오, 홍영의 역, 『리눅스가윈도우를 능가하는날』, 혜지원, 2000</p> <p>유진 퍼거슨, 『인간을 생각하는 엔지니어링』, 한울, 1998</p>

<p>이도원, 『흙에서 흙으로』, 사이언스북스, 2004</p> <p>이인식, 『사람과 컴퓨터』, 까치글방, 1992</p> <p>이필렬, 『과학, 우리시대의 교양』, 세종서적, 2004</p> <p>장기홍, 『진화론과 창조론』, 한길사, 1991</p> <p>전상운, 『한국과학사』, 사이언스북스, 2000</p> <p>정재승,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동아시아, 2002</p> <p>제레미 리프킨, 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1</p> <p>제레미 리프킨, 이창희 역, 『엔트로피』, 세종연구원, 2007</p> <p>제인구 달, 김은영 역, 『희망의 밥상』, 사이언스북스, 2009</p> <p>제임스 러브록, 홍유희역, 『가이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p> <p>제임스 왓슨, 이한음 역, 『DNA를 향한 열정』, 사이언스북스, 2003</p> <p>조지 스무트, 과학세대 역, 『우주의 역사』, 까치, 1994</p> <p>존 펠린, 송명규 역, 『숲의 서사시』, 따님, 2002</p> <p>최경희, 『과학-우리시대의교양』, 세종서적, 2004</p> <p>칼세이건, 홍승수 역,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 2004</p> <p>클레이튼크리스텐슨외, 이진원 역, 『미래기업의조건』,비즈니스북스,2005</p> <p>토마스쿤,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2007</p> <p>페르난데스아르메스, 안정희 역, 『세계를 바꾼 아이디어』, 사이언스북스, 2004</p> <p>피에르 레비, 김동윤역, 『사이버문화』, 문예출판사, 2000</p> <p>한양대학교과학철학교육위원회,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한양대출판부,2004</p> <p>헨치페트로스키, 이희재 역, 『포크는 왜 네갈퀴를 달게 되었나』, 지호, 1995</p>
--

*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2010년 1학기-2012년 1학기 (5학기)의 수업 계획서를 참조하였음.

이 연구는 1차년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연구 및 교과목개발 사업에 관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모든 저작권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있으며, 연구에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5

Tel : 02-6393-5294 / Fax : 02-6393-5288

Website : konige.kr

원 장 : 손동현 (konige-son@kcue.or.kr)

사무국장 : 최종철 (konige-choi@kcue.or.kr)

전문원 : 김소현 (konige_kim@kcue.or.kr)